

25 수능대비
연계 변형.제작문항

수능맛집

주제통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역사서는 장중하고 화려한 문장과 더불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변려문 양식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송대 이후로 역사서에 ‘고문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문체는 ‘의고체’라고도 하는데, 변려문과 달리 과거 공자의 문장을 모방한 것으로, 유사한 글자를 중복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였기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에 적합하였다. 이는 역사서 편찬이 새로 건국된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체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역사서가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후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룬 「삼국사기」는 고려조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편찬을 주도한 역사서이다. 고려 인종 시기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 다양한 환난으로 인하여 정치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변의 영향으로 인종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김부식은 이에 부응하여 신화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로 인하여 「삼국사기」는 이전의 사서와 달리 삼국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기술하여 몰락한 왕조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세에 교훈성을 알리려는 목적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특히 각 사건별로 사론(史論)을 실었는데, 사론은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가 담겨 있는 글로, 평가의 준거를 유교적 사상에 두고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삼국사기는 고려의 입장에서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를 서술하여 신라 우선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고문체를 통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유교적 정치 체제를 반영하여 일관적인 틀 안에서 역사서를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서의 편찬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나)

「고려사」는 조선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제작된, 고려에 대한 역사를 편년체 방식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편년체는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하는 기전체와 달리 연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점에서 「고려사」는 「삼국사기」와는 다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세종은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서 중국식의 서술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고려사」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은 이전의 고문체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고려 말기부터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성리학은 기존 유교와 달리 현실적인 측면을 넘어 형이상학적인 논점들을 깊이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성리학에 영향을 받은 **조선 중기 이후의 학자들**은 기존의 고문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6세기 허균은

「문설」에서 옛 명문을 표절하는 고문체에 대하여 “문장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의 글을 ㉠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일상을 갈고 다듬어 창조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17세기 장유는 다양하고 참신한 문장을 구사하여 후세 고문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옛 글을 따라하기만 하는 것은 편협한 명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누구나 쉽게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 고문파들의 사상은 18세기 박지원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박지원은 「초정집서」를 통해 세상에 고정불변하는 대상은 없다고 보면서, 문장 역시 당대의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고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매우 독창적이고 현실적인 문체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박지원의 문체는 당시 임금인 정조에 의하여 탄압받기도 하였으나, 점점 편협하게 고착되어 가는 성리학적 지배 질서에 새 바람을 몰고 오게 되었다.

-25 수특 인예1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변형.제작문항-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 ①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사서들은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서술되었을 것이다.
- ② 송대 이후의 역사서들은 고문체를 사용함으로써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려 했을 것이다.
- ③ 인종은 정변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교 사상을 통해 왕권을 이전보다 강화하려고 하였다.
- ④ 「삼국사기」는 이전 사서에 비해 사건에 대한 편찬자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 많았을 것이다.
- ⑤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를 서술한 것은 고려 왕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사」와 「삼국사기」의 서술은 고문체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서술 방식에서 인물 중심인지 연대 중심인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 ② 「삼국사기」가 고문의 형식적 측면에 치중하여 민중들의 이해가 힘들었다면, 장유는 이를 편협한 명분에 빠진 서술로 보고 비판하였을 것이다.
- ③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고문체로 쓰였다는 점에서, 두 사서는 모두 새로 건국된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 ④ 「고려사」가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서술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박지원은 고문의 전범을 탈피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 ⑤ 김부식이 사론을 통해 이전 왕조들에 대해 평가한 것은, 후세에 교훈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3. **조선 중기 이후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삼국사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 ① 허균은 「삼국사기」가 당대의 일상어와 괴리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을 것이다.
- ② 허균은 성리학적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삼국사기」를 비판했을 것이다.
- ③ 장유는 「삼국사기」가 누구나 쉽게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같고 닳지 못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 ④ 박지원은 일상의 언어도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삼국사기」를 비판했을 것이다.
- ⑤ 「삼국사기」가 책이 쓰인 당시의 언어로 기술되었다면 허균과 박지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4. 김부식과 허균의 입장에서 a ~ d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장중하고 화려한 문장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도록 한다

b. 무릇 문장이란 과거의 사실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에게 경계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c. 문장은 옛 성현의 도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장을 모범으로 삼을 때 깊이 있는 도를 전달할 수 있다

d. 요즘 문장은 뜻이 통하지 않고 음률만을 같고 닳으니, 시장의 아낙들이 하는 말이 이보다 부족하다 할 수 있겠는가

- ① 허균은 a에 동의하지 않고 b에 동의하겠군.
- ② 김부식은 a에 동의하지만 c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허균과 김부식은 모두 d에 동의하겠군.
- ④ 김부식은 b에 동의하고 d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허균은 c와 d에 모두 동의하지 않겠군.

5. (가)와 (나)를 읽고 <보기>의 ㄱ ~ d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기존 역사서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후대에 옛 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에 옛 글을 전범으로 삼되, 현실에 맞게 새로이 사서를 써 왕과 신하와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 후세에 본받아야 할 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ㄴ. “시대마다 풍속과 사정이 현격히 다르므로 당대의 문장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면 이는 공허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지금의 말로써 진실되게 기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고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ㄷ. “요즘의 패관잡기는 귀신이나 사(邪)의 무리들만 다루고 있으므로 이는 문장의 순정함을 해치는 것이다. 경전에 힘쓰고 잡서를 엄금하여 당송의 고문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양에 이르는 길이다.”

- ① ㄱ은 과거의 글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조선 중기 이후의 성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겠군.
-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삼국사기」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통해 일관적인 틀 안에서 서술한 것을 두고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쓴 것이라 하겠군.
- ③ ㄴ은 옛 것 바탕으로 진실되게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사실적인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겠군.
-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열하일기」에 나타난 서술 방식은 과거의 글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장의 순정함을 해치는 것이라 보겠군.
- ⑤ ㄴ은 ㄷ과 달리 당대의 현실적인 언어를 토대로 쓴 글을 보고 이것을 고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초정집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겠군.

6.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경찰이 범인의 뒤를 따르다.
- ② 아무도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
- ③ 후배가 나를 잘 따른다.
- ④ 의원들이 모두 의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 ⑤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1. ①

not A but B 구문에 대한 내용 확보를 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사서들은 장중하고 화려하고 비유적인 변려문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려문과 '달리' 송대 이후의 역사서들은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변려문으로 서술된 과거의 사서들은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서술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인종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이는 정변 이전에 고려의 통치 체제에서 왕이 중심이 되지 못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로, 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왕권을 이전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④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 = 편찬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2. ④

「고려사」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서술 방식을 취한 것은 맞으나, 여전히 기본적인 서술 방식은 고문의 양식을 따랐다. 따라서 「고려사」는 고문의 전범을 탈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단, 독자적인 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정불변하는 대상은 없다고 생각한 박지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

② 장유는 고문체를 비판하며 옛 글을 따르기만 하는 것은 편협한 명분에 빠진 것이며, 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고문체의 서술 방식을 취한 것으로, 당대 지배층의 사상이 반영되어 민중들이 접근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글은 편협한 명분에 빠져 옛 글을 따르기만 하여 생긴 폐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1문단 화제와 관련된 내용 확보를 묻는 선지이다. 1문단 마지막에 송대 이후 역사서가 고문체로 쓰인 것은 역사서 편찬이 새로 건국된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와 「고려사」 모두 고문체로 쓰였다는 것은 왕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선행 문단의 서술은 포괄적이므로 공통점을 확보하는 필수 개념임을 기억하자.

3. ②

공통점 확보! '조선 중기 이후의 학자들'은 성리학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 고문체를 비판한 것이다. 삼국사기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성리학 자체가 고려 말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학문이므로 삼국사기가 성리학적 사상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 ④

a. '장중하고 화려한 문장'은 변려문을 뜻한다. 변려문에 반하여 나타난 문체가 고문체로, 고문체를 따른 김부식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려문을 비판하는 내용인 a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허균 역시 당대의 일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장중하고 화려한 문장은 일상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a에 동의할 것이다. 즉, 김부식과 허균이 모두 동의할 것이다.

b. 고문을 통해 역사서를 편찬하여 교훈성(=경계)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작한 것이 삼국사기이므로 김부식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허균은 문장이 교훈성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b에 대한 입장은 알 수 없다.

c. 고문체는 '공자'의 문장을 모방한 것이다. 공자는 옛 성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토대로 도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교적 관점에서 교훈성을 전달하려 한 김부식의 견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김부식은 이에 동의할 것이지만, 허균은 고문체를 비판하였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d. 요즘의 문장들이 뜻이 통하지 않고 음률만을 갖고 닳는다고 비판하며, 시장의 아낙들의 언어와 비교하여 아낙들의 언어가 이러한 문장보다 부족할 것이 없다는 서술이다. 시장의 아낙들의 언어를 '일상어'라고 본다면, 당대의 일상어를 갖고 닳아야 한다고 본 허균의 입장에 부합한다. 옛 성현인 공자의 문장을 모방한 고문체를 차용한 김부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자의 문장과 거리가 먼 아낙들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므로, d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5. ㉓

일단, 각 기호의 의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ㄱ은 기존 역사서가 지나치게 간략함을 지적하며, 옛 글을 전범으로 삼아 후세에 본받아야 할 점, 즉 교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문체로 「삼국사기」를 집필한 김부식의 의견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ㄴ은 시대마다의 풍속과 사정이 다르므로 당대의 문장으로 글을 써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고문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ㄷ은 요즘의 글들을 문장의 순정함을 해친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어 당송의 고문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고문체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화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사실적인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은 고문체를 따른 「삼국사기」에 해당한다. ㄴ은 고문체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㉔

본문의 ㉔가 들어간 문장의 문맥에서 “따르는 것”은 “모방하는 것” 또는 “모방하려는 것”의 의미로 해석된다. ㉔의 “따를”은 “비슷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95학년도
수능맛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귀납논증은 구체적 사실로부터 보편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방식이다.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영원한 진리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귀납적 방법이 배제된 이후 결론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연역논증이 대세였으나, 16세기 베이컨에 의해 귀납은 논리학의 한 범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귀납논증은 결론에 앞서 전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1월1일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 1월2일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 등의 무수한 전제를 관찰한다고 하자. 이를 통해 결론인 ‘해는 매일 동쪽에서 뜬다’를 도출하는 방법이 귀납논증이다. 이와 달리 연역논증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삼단 논증이다. 즉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와 같은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어떤 사실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하지만, 귀납은 사실적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점에서 연역과 차이를 보인다.

귀납은 자연과학적 관찰에 주로 쓰인다. 어떤 과학적 현상을 밝혀내기 위해 우선 개별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실험 등을 끌어내야 한다. 목장에서 편히 휴식하는 말들과 열심히 움직이는 말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관찰하여 몸의 온도를 잴다. 말들을 모두 관찰한 결과 움직인 말들이 휴식을 취한 말들에 비해 체온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를 일차적 귀납이라고 한다. 이후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가만히 있는 동물에 비해 움직임을 가진 동물이 발산하는 열이 더 많을 것임을 가정하고, 말 이외의 동물들에게 실험을 한다. 이를 통해 ‘움직임이 있는 동물은 움직임이 없는 동물에 비해 체온이 높다’는 보편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차적 귀납이다.

귀납논증은 설득력의 정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귀납적 강도는 사례가 많거나, 반례가 적거나, 일반화가 용이할 때 강해지는데, 귀납적 강도가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는다. ㉠ 베이컨에 의해 체계화된 귀납논증은 이후 자연과학과 더불어 수학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나)

여기 까마귀가 있다. 까마귀를 관찰했더니, 모든 까마귀가 검은색이었다. 지금까지 수백 년간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까마귀는 검은색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어느 날 까마귀의 모든 생물학적 조건과 동일한데 색깔이 검지 않은 새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새는 까마귀인가 아닌가? 논리학자들은 단 하나의 반례만으로도 논증이 통째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귀납논증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흄은 인과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과학 지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귀납논증이 사실은 순환논증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흄에 따르면 귀납논증은 세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한다는 대전제인 ‘자연의 균일성 원리’에 의존한다. 그런데 자연의 균일성 원리는 선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든 자연의 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의 균일성 원리가 경험적 진리라면 이를 귀납적으로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데 귀납은 다시 자연의 균일성 원리에 의존하므로 순환논법에

빠지고 만다. 즉 ㉡ 귀납 논증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지금까지 자연 법칙에 잘 들어맞았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번에도 잘 맞을 것이라는 결론은 귀납 논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흄의 주장이 당시 서양 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당대 주류를 차지했던 계몽주의자들은 이전과 달리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지식에서 ㉣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이컨이 체계화한 귀납논증은 과학적 지식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려는 계몽주의자들의 열망에 기름을 부은 것이었다. 그러나 흄의 주장은 경험과 관찰이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의지할 만한 확실한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 칸트는 귀납적 사고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직관에 있으며, 인간은 스스로 이를 판별한 직관적 사고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귀납법은 개연성을 지닌 가설을 유도할 뿐 논리적 필연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확률이나 통계학의 발달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전해 왔다. 개별 사실들에 관한 정보 처리를 더욱 쉽고 빠르게 해 주는 컴퓨터 등의 기술적 도구들이 발달되면서 귀납적 연구 방법 역시 더욱 영향력을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

-25 수완 실전3 ‘베이컨 귀납, 데카르트 연역’ 변형. 제작문항-

1. 밑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른 학자들의 반박을 재반박하며 의견을 공고히 하고 있다.
- ② 한 개념에 대해 갈리는 철학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이론의 도입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 ③ 특정 주제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견의 변화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실험 결과에 따른 해석이 순차적으로 발전됨을 언급하며, 변화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주장하는 대상에 대한 반례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 탐구에서 얼마든지 반례가 있을 수 고, 이로 인해 귀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 ③ 오랫동안 관찰한 통계적 사실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최근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통계적 사실에 비해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 ④ 귀납논증은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논증을 하지만, 연역논증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삼단 논증을 기반으로 한다.
- ⑤ 일차적 귀납은 이차적 귀납에 비해 구체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차적 귀납은 일차적 귀납을 바탕으로 관찰 없이 내용을 확장하므로 보편적이다.

3. ㉠ ~ ㉢가 서로 대화한다고 하였을때, 적절하지 않은 반응은?

- ① ㉠: 전제들의 관찰을 통해서 적절한 결론을 확보한다면 이는 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 그러나 논증에 대해 반례가 등장하게 된다면 과연 귀납논증이 정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③ ㉠: 수많은 사례에서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법칙을 일반화하기 쉽다면 귀납논증을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 ④ ㉢: 맞습니다. 귀납논증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인간의 직관적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⑤ ㉡: 사실에 대한 경험을 감각적 능력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귀납은 결국 순환론에 빠질 뿐입니다.

4. (나)의 ㉡에 대한 흠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귀납논증이므로 귀납은 순환논증이다.
- ② 검지 않은 까마귀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납논증은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 ③ 귀납논증 자체가 정당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와 결론이 귀납논증인 것은 정당하다.
- ④ '자연의 균일성 원리'에 대해 귀납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귀납논증은 오류가 있다.
- ⑤ 세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야 귀납논증은 정당화될 수 있다.

5. 다음 <보기>의 데카르트의 입장을 토대로 밑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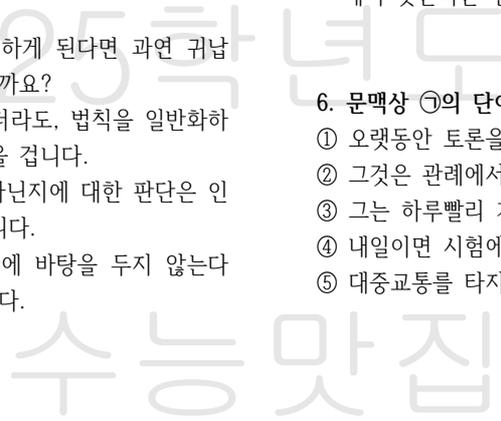
<보기>

데카르트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철학적 방법론으로 '방법적 회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 기관은 불안전함을 인정해야 하며, 관찰을 통해 참으로 인정되는 지식도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보편적 지식에 해당하는 수학,과학 지식 역시 의심해야 하고, 이러한 의심을 통해 사유하는 인간 그 자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였다.

- ① 삼단 논증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데카르트는 당위적인 결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 ② 사실적 지식을 확장해주는 논증의 경우 관찰을 통한 지식 역시 의심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자연의 균일성 원리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보편적 지식도 의심해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
- ④ 인간이 직관적 사고가 있다는 입장에 대해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인간 자체를 절대적인 진리로 본다는 점에서 동의할 것이다.
- ⑤ 기독교적 세계관을 벗어난 입장에 대해 확실한 진리를 경험에서 찾는다는 점을 들어 데카르트는 비판했을 것이다.

6.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오랫동안 토론을 하다보니 처음의 주제에서 벗어났다.
- ② 그것은 관례에서 벗어난 최초의 행동이 되었다.
- ③ 그는 하루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 ④ 내일이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⑤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1. ③

2. ③

(가)는 4문단에서 귀납적 강도가 높아지는 조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찰 사례가 많거나, 반례가 적거나, 일반화가 용이할 때 귀납적 강도가 높아지며 결과의 신뢰성이 이에 비례한다고 서술했다. 오랫동안 관찰된 통계적 사실은 최근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통계적 사실에 비해 관찰 사례가 많아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① 주장의 대상에 대한 반례가 많아질수록 신뢰성이 낮아지며, 따라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없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논증을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영원한 진리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②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비판되기보다 옹호될 것이다.

④ 귀납논증과 연역논증 둘 다 '어떤 사실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귀납논증은 사실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되며 연역논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⑤ 일차적 귀납은 개별 사실에 대한 관찰과 실험 등을 끌어내며, 이차적 논증은 보편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만, (가) 3문단의 '움직임이 있는 동물은 움직임이 없는 동물에 비해 체온이 높다'에 대한 귀납논증의 예시를 보면 이차적 귀납에서도 말 이외의 동물에게 실험을 하여 관찰 없이 내용을 확장한다고 볼 수 없다.

3. ⑤

㉔는 베이컨, ㉕는 흄, ㉖는 칸트이다. 흄은 귀납논증이 순환논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귀납논증의 근거가 귀납논증에 의한 '자연의 균일성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감각적 능력에 바탕을 두어 사실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귀납논증을 보완한다고 순환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옳다고 볼 수 없다.

① 귀납논증을 지지하는 베이컨의 입장과 부합한다.

② (나)의 1문단에 제시된 귀납논증을 반대하는 논리학자들의 입장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4문단에서 언급된 귀납논증이 영향력을 높여갈 수 있는 이유로, 귀납논증을 지지하는 베이컨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귀납적 사고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직관에 있다고 생각한 칸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4. ①

흄은 귀납논증이 '자연의 균일성 원리'에 의존하지만, '자연의 균일성 원리'가 선험적이지 않으며, 모든 자연의 원리를 관측할 수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자연의 균일성 원리'는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귀납적 논증에 의해

정당화되어, 이를 근거로 삼는 귀납논증은 순환논법에 빠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은 '자연의 균일성 원리'에 기반하며, 이를 증명하게 되는 방식이 귀납논증이므로 순환논증이라는 것은 흄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귀납논증은 관찰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방식이지만, 그에 대한 반례가 존재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흄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관찰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③ 귀납논증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잘 맞을 것이라는 결론은 그 전의 구체적 사실로부터 보편적 사실을 추론해 내는 방식의 귀납논증이다.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흄이 지적한 부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옳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연의 균일성 원리'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흄의 주장이지만, ㉔에서 흄은 '자연의 균일성 원리'가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면 앞으로의 귀납논증이 순환논증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⑤ '세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자연의 균일성 원리'이다. 흄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귀납논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④

데카르트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였는데, 이 대상에는 인간의 감각 기관, 보편적으로 참이라고 인정되는 지식 또한 포함되어있으며 이러한 의심을 통해 사유하는 인간이 절대적 진리라고 이야기하였다. 데카르트에게 인간의 직관적 사고란 절대적 진리보다 의심해야 할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삼단 논증을 주장하는 입장은 연역논증의 입장과 같으며, 데카르트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는 연역논증에 대해 의심하여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사실적 지식을 확장해주는 논증은 귀납논증이며, 데카르트는 보편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귀납논증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귀납논증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자연의 균일성 원리가 선험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흄의 입장이며, 데카르트는 이러한 보편적 사실로 여겨지는 지식까지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데카르트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관찰 또한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확실한 진리를 그에 따른 경험에서 찾는다는 점을 비판했을 것이다.

6. ②

(나)의 '벗어나다'는 '규범이나 이치, 체계 따위에 어긋나다.'로 쓰였다. 가장 비슷한 용례는 ㉔번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데카르트 이후로 발전한 전통적 과학철학은 포퍼에 이르러 더욱 계승·발전하여 경험에 대한 반증을 바탕으로 한 연역적 방법론을 추구하였다. 포퍼에 따르면 처음에 제시한 가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가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에 대한 반증이 가능하므로 과학적 방법론은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후 과학철학은 역사적 흐름에 입각한 쿤의 패러다임 연구에 이르게 되었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뜻하는 말이다.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학적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보았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학적 용어 역시 그 내포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러다임에 따라 절대적이었던 이론의 입지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같은 용어라도 이전 패러다임과 이후의 패러다임에서 의미가 다르므로 패러다임이 다른 과학자는 소통이 불가능하며, 쿤은 이러한 제약을 이를 통약 불가능성이라 칭하였다.

파이어아벤트는 쿤이 주장한 통약 불가능성의 개념을 계승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초창기에는 과학에서의 반증 가능성을 수용하였던 그는,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 결국은 실험자의 주관이나 권위에 지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모든 과학적 방법론의 무용성을 주장하였다. 어떤 가설에 대하여 반증이 이루어진다면, 반증된 가설에 대해 또다른 반증이 가능할 것이고, 이 또다른 반증은 최초의 가설과 꼭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다. 더구나 같은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설의 내용은 패러다임이 다른 실험자간에는 다를 수 있다. 결국 과학적 방법론은 실험자의 주체적 판단 또는 실험자가 학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한 방법론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과학이 신화나 미신보다 우월한 지식일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이 이러한 사상을 함축하여 보여준다.

파이어아벤트는 쿤의 주장 역시 패러다임의 범주를 너무 좁게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비판하였다. 쿤의 말처럼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것은 시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문화, 심지어 개인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개념을 훨씬 포괄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에 맞서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나)

임레 라카토슈는 실증적 경험 위에 세워진 이론이야말로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과학적 방법론 정교화하였다.

임레는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을 해당 이론의 핵심 원리 부분인 '견고한 핵'과 이를 보조하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자율적인 부분인 '보호대'로 나누었다. 이 중 견고한 핵 부분은 한두 건의 실험적 반례로는 거부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권장된다. 이론과 실제의 불일치는 견고한 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보호대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이때 견고한 핵

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오랜 시간동안 그 패러다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이론은 항상 소수이다. 견고한 핵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패러다임이 모두 부정되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이다.

한편 임레는 과학적 방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 지침에 대한 중요성도 주장하였다. 연구 지침을 과학자가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지침'과 필히 행해야 할 '적극적 지침'으로 나누고, 이러한 지침들을 철저하게 ㉡ **지켜야** 과학적 방법에 신뢰성이 생긴다고 보았다. 과학적 방법론이 무의미하다는 도전을 받게 된 이유도 과학자 개인의 주관성과 도덕성이 의심받기 때문이며, 이러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지침으로써 철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그의 견해는 후대의 과학 윤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임레의 이론은 이론과 지침의 분류가 애매하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 윤리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임레는 실제 과학적 연구가 엄격한 반증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면서도 반증주의의 논리적 타당성 자체는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 **포퍼와 토머스 쿤의 사이에 있다고 평가된다.**

-25 수특 주통9'쿤, 파이어아벤트 철학' 변형.제작문항-

1. 위글의 **파이어아벤트**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은 실험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통약 불가능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 ② 과학적 방법에 절대적 규칙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신을 믿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 ③ 만약 과학적 지식이 진정으로 반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패러다임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대중에 잘 알려진 저명한 학자의 이론이 실험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패러다임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입장에 차이가 있는 학파에 따라서도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나)의 임레의 입장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주장에 따르면 신화와 미신은 반증이 불가능하므로 적절하다.
- ② ㉠의 주장에 따르면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비과학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③ ㉠의 주장에 따르면 실험자의 실험을 통제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이외에도 보편타당한 지식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의 주장에 따르면 연역적 가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㉔의 의미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적 방법론은 가설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쿤과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 ② 과학적 용어는 그 용어를 기술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포퍼와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 ③ 이론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퍼와, 시대를 지배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점에서 쿤과 유사하기 때문에
- ④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포퍼와, 과학적 방법은 무용하다는 점에서 쿤과 유사하기 때문에
- ⑤ 가설에 대해 철저한 반증을 통해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쿤과, 연역적 방법의 논리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퍼와 유사하기 때문에

4. 쿤과 임레의 입장에서 <보기>의 ㄱ-ㄴ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천동설이 대세였던 시기의 학자와 지동설을 믿는 현재의 학자가 대화를 나눈다면 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 ㄴ.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며, 이론적 틀은 시대와 상관없이 무의미한 것이다.
- ㄷ. 단 하나의 반례도 없이 증명된 이론은 중심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ㄹ. 어떠한 지식이 견고하다면 이는 경험적으로 언제나 증명 가능한 것이다.

- ① 쿤은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임레는 ㄱ과 ㄴ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 ③ 임레는 ㄱ에 비동의하고, 쿤은 ㄴ에 동의할 것이다.
- ④ 쿤은 ㄴ에 비동의하지만, 임레는 ㄴ에 동의할 것이다.
- ⑤ 쿤과 임레는 모두 ㄷ에 동의할 것이다.

5. <보기>는 어느 학자의 과학에 대한 의견이다. 밑글과 연결지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과학이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생각은 과학을 더 융통성있게 만들며 독단적으로 만든다. 모든 방법론은 그 한계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무엇이든 좋다'는 것이다

- ① 연역적 방법을 토대로 연구하는 학자에 따르면 보편적인 규칙을 부정하는 <보기>의 견해를 비판할 것이다.
- ② 과학자의 주관이 과학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과학적 방법에 제한이 있다는 <보기>의 견해를 인정할 것이다.
- ③ 견고한 지식과 느슨한 지식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과학적 규칙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생각이라 지적하는 <보기>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이론적 틀이 다른 사람끼리는 소통이 어렵다는 견해는 <보기>의 과학은 고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견해와 부합할 것이다.
- ⑤ 개념의 집합체를 넓은 범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융통성 있는 규칙은 무엇이든 좋다는 <보기>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6.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사냥꾼은 어제부터 노루가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 ② 그 소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③ 이 개는 기척에 예민하고,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잡아둔 도둑을 지키는 일에 적격이다.
- ④ 그 사람은 한 번 약속을 하면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 ⑤ 그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하였다.

1. ③

파이어아벤트는 반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방법론이 실험자의 주관이나 권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과학적 방법론의 무용성을 주장했다.

2. ③

㉠은 과학적 방법이 실험자의 주관이나 권위에 의해 좌지우지되므로 미신이나 신화같은 비합리적인 대상들과 과학적 방법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임레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 과학적 방법에 대한 주관적이거나 불합리한 결과 도출을 통제하고, 지침을 지침으로써 과학적 방법론이 무용하다는 도전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임레는 ㉠에 대해 실험자의 주관을 지침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다.

①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의 반증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신화와 미신 역시 반증이 불가능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레는 과학적 방법론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정교화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② ㉠의 주장은 과학이 신화나 미신과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임레는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며, 연구 프로그램에서 핵심 원리와 보호대를 구분했다. 임레는 비과학적인 요소를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에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④ 임레는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편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 주장은 과학이 우월한 지식이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이로 인해 과학 외의 지식도 보편타당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임레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타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해야 한다.

⑤ 임레는 과학적 방법론을 정교화하면서, 연구 프로그램의 견고한 핵을 강조했다. 어느 정도 연역적 가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은 연역적 가설과 상관없이 과학적 방법론이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3. ⑤

임레는 포퍼의 연역적 방법론을 인정하면서도, 쿤의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여, 연구 프로그램에서의 '견고한 핵'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반증에 철저히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쿤과, 연역적 방법론의 논리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퍼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포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역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임레 역시 이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유사성을 띤다. 그러나 이론과 지침의 분류가 애매하다는 점은 임레 이론에 대한 비판점이지, ㉠에서 말하는 임레 이론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 또한 위 지문의 진술만으로 포퍼의 이론 역시 이론과 지침의 분류가 애매한지는 알 수 없다.

4. ①

ㄱ. 쿤과 임레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임레는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뀐 것은 견고한 핵이 변한 것으로 볼 것이다.

ㄴ. 쿤과 임레는 모두 비동의할 것이다. 쿤도 임레와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을 이론적 틀로 보고, 패러다임을 시대에 따라 분류한다.

ㄷ. 쿤은 비동의할 것이고, 임레는 동의할 것이다. 임레는 단 하나의 반례도 없이 증명된 이론은 핵심 원리 부분인 견고한 핵으로 받아들이고, 쿤은 반증 가능성과 시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ㄹ. 쿤과 임레는 모두 비동의할 것이다. 쿤과 임레는 모두 반증주의의 타당성 자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 ⑤

개념의 집합체를 넓은 범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파이어아벤트에 해당한다. 파이어아벤트는 모든 방법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무엇이든 좋다'는 융통성 있는 규칙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예 규칙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로 파이어아벤트는 <보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① 연역적 방법을 토대로 연구하는 학자인 포퍼에 따르면 보편적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를 부정하는 <보기>의 견해를 비판할 것이다.

② 과학자의 주관이 과학에 영향을 준다는 파이어아벤트의 견해에 따르면 실험자의 주체적 판단 또는 실험자가 학계의 미치는 영향력 등 과학적 방법에 제한이 있기에 <보기>의 견해를 인정할 것이다.

③ 견고한 지식과 느슨한 지식을 구분하는 임레의 견해에 따르면 느슨한 지식인 보호대의 조정으로 융통성있게 하기에 <보기>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④ 이론적 틀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어렵다는 쿤의 견해에서는 통약 불가능성으로 과학이 고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견해와 부합할 것이다.

6. ④

본문에서 '(사람이 규정 따위를) 어기지 않고 지정된 대로 행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거에는 행복이 신적 존재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행복이나 쾌락은 단순한 외적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가에서는 행복의 근원은 도덕을 추구하는 마음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고, 도가에서는 자연적 즐거움이 곧 인간의 즐거움이라고 보았다. 서양에서는 아리스타포스가 쾌락의 추구하고 이에 대한 절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으며, 에피쿠로스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이 행복을 감소시키므로 욕망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위의 이론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도덕성의 추구하고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과거의 이론들은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빈약하였다. 이에 현대에는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하여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학자로 콜버그가 있다.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을 크게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 수준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하여 총 6단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체험을 토대로 공동체의 도덕성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콜버그에 따르면 도덕성 발달 수준은 '전 관습적 수준, 관습적 수준, 후 관습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전 관습적 수준'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하는 '벌과 복종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도구적 목적 교환의 단계'로 이어진다.

'관습적 수준'은 청소년과 성인을 거쳐 형성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도덕성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착한 소년, 소녀 단계'는 대인관계에서 옳은 행동을 통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행동하는 단계이다. 이것이 더 발전한다면 '사회 체제와 양심 보존의 단계'로 접어들는다.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도덕성 판단에 대해 주체적인 판단보다는 수동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후 관습적 수준'에 이르러야만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도덕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수준에서는 '사회 계약과 유용성 단계'로 발전하여 도덕과 법,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즉 법과 규칙이 꼭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보편 윤리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는 도덕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보는 단계로 역사적 성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수준을 단계별로 나눔으로써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판단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 외부적 요인이 아닌 주체적 판단을 취해야만 공동체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의 골자이다.

(나)

콜버그는 도덕성의 핵심을 정의와 배려로 보고, 정의와 배려의 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인간의 도덕성은 항상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낮은 단계의 도덕성이 사회·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를 통해 발달한 높은 단계의 도덕성은 과연 주체적인 도덕 판단으로 볼 수 있을까? 하이트는 ㉠ '사회적 직관주의'를 통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사회적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 지적한다.

하이트에 따르면 도덕 판단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판단이 결합된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도덕 판단은 '직관적 판단'이 우선한다. 직관적 판단은 직관에 기반을 두고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후 직관적 판단에 대한 사후적 추론을 통해 이를 합리화한다. 합리화단계에 접어들면 자신의 도덕 판단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부의 개입 없이 반성적 사고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 판단에 대한 사회적 설득이다. 사회적 설득은 개인의 도덕 판단에 대해 타인이 직관을 자극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작업의 주도권은 '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과 이에 대한 수정의 과정은 사회적 관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하이트의 주장은 개인적인 도덕적 발달 단계가 없음을 전제한다. 개인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감정 상태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판단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문화가 다른 집단들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도덕 판단에 있어서는 개인의 직관보다는 사회의 직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이트는 불안정한 개개인의 이해충돌을 막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주관적 도덕 판단을 통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갈등을 줄여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25수완 유형2 동아시아·서양 행복론 변형·제작문항-

1.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 중에는, 절대자에 의해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견해가 있었다.
- ② 자연적 즐거움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본 도가의 견해는 외부 요인보다 주체적 판단을 중요시한 콜버그의 견해와 유사하다.
- ③ 유가는 도덕을 구하는 마음이 행복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도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
- ④ 아리스타포스는 행복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에피쿠로스와 유사성이 있다.

⑤ 콜버그에 따르면, 보편 윤리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 (가)와 (나)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의 최상위 범주가 주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에 하이트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 ②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개인의 판단을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
- ③ 관습적 수준의 단계에서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성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하이트는 사회적 차원의 판단이 개인적 차원의 판단과 결합한 것으로 볼 것이다.
- ④ 개개인이 감정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이 항상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할 것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쾌락과 절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하이트가 개인의 직관적 판단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과 유사하다.

4. ㉠의 입장에서 (가)의 콜버그를 비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개인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도덕적 발달 단계가 무질서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콜버그를 비판할 것이다.
- ② ㉠은 주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콜버그를 비판할 것이다.
- ③ ㉠은 콜버그가 외부 요인보다 내적 판단을 더욱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할 것이다.
- ④ ㉠은 도덕성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직관과 판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콜버그를 비판할 것이다.
- ⑤ ㉠은 개인이 반성적 판단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콜버그를 비판할 것이다.

3. [A]를 바탕으로 <보기1>의 사례들과 <보기2>의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

- (가) 성미는 혼자서 게임을 할 때는 욕설을 자주 하였지만,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는 욕을 하지 않는다.
- (나) 하루종일 굶어서 배가 고프니 철수는 빵집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빵을 훔쳐서 먹었다.
- (다) 정희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빨간불임에도 건너가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다.

<보 기 2>

- 전 관습적 수준
 - ㉠ 벌과 복종의 단계
 - ㉡ 도구적 목적 교환의 단계
- 관습적 수준
 - ㉢ 착한 소년, 소녀 단계
 - ㉣ 사회 체제와 양심 보존의 단계
- 후 관습적 수준
 - ㉤ 사회 계약과 유용성 단계
 - ㉥ 보편 윤리의 단계

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간의 판단은 불안정하고 완전하지 않다. 어떠한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감정에 따라 판단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선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도덕성이 때에 따라 복잡성을 띠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성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외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도덕을 실현할 수 있다.

- ① 도덕성의 단계를 구분하는 인지심리학적 관점은, 도덕성이 선형적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② 도덕 판단이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진정한 도덕을 위해 외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③ 도덕 판단이 직관과 추론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은, 도덕성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④ 외부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다는 주장은, 어떤 상황의 판단이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⑤ 도덕성을 발달 단계에 따라 분류하는 주장은, 도덕성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6.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일을 일러서 시키다.
- ②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하다.
- ③ 사람이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꼭 집어 말하다.
- ④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
- ⑤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

1. ②

(가) 지문에서 도가의 견해는 자연적 즐거움을 중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외부 요인보다 주체적 판단을 중요시한 콜버그의 견해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도가는 외부 요인인 자연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체적 판단을 중시한 콜버그와의 유사성은 없다.

2. ①

하이트는 도덕적 판단이 개인의 주체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직관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본다. 따라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주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②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 판단이다. 이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개인의 판단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③ 관습적 수준의 도덕성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지만, 하이트는 사회적 직관이 개인적 직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선지는 관습적 도덕성 수준에서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차원의 판단이 개인적 차원과 결합된 것으로 보는 틀린 선지이다.

④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이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일관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감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견해는 콜버그의 이론과 반대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의 쾌락과 절제의 균형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하이트는 직관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그 직관이 사회적 맥락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직관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①

(가) 성미는 혼자 있을 때는 욕을 하지만, 친구와 있을 때는 타인의 시선에 따라 행동을 조절한다. 그렇기에 대인관계에서 옳은 행동을 통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행동하는 ㉠ ‘착한 소년, 소녀 단계’로 볼 수 있다.

(나) 철수는 자신의 욕구(배고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 ‘도구적 목적 교환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다) 정희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 ‘보편 윤리의 단계’로 볼 수 있다.

4. ①

하이트는 도덕적 발달 단계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도덕적 발달 단계가 무질서하게 형성된다는 것은 발달 단계가 있음을 전제하므로 틀렸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하이트는 주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콜버그를 비판할 수 있다. 하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고,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선지에서의 ‘내적 판단’은 주체적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하이트는 사회(외부)적 요인을 중요시하기에 내적 판단을 더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콜버그를 비판할 수 있다.

④ 하이트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단계를 올라갈수록 사회적 요인보다 개인적 판단을 중시한다고 보며,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⑤ 하이트는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스스로 반성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이트는 콜버그의 이론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5. ⑤

콜버그의 1~4단계는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다. 콜버그도 외부 요인이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서술하기 때문에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선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도덕성이 때때로 복잡성을 띠는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 도덕성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은 도덕성이 단순하고 일관되게 발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 도덕 판단이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이트의 주장은 진정한 도덕을 위해 외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 판단이 사회적 맥락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③ 도덕 판단이 직관과 추론으로 이루어진다는 하이트의 입장은 도덕성이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외부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콜버그는 객관적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지만, <보기>는 도덕성이 감정이라는 주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에 콜버그의 주장은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6.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중기 성리학을 집대성한 율곡 이이는 모든 사물의 근본 법칙인 '리(理)'와 사물을 이루는 질료이자 현상적 요소인 '기(氣)'를 바탕으로, '리'와 '기'가 현상 세계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이기론(理氣論)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후기 노사학파의 거두 기정진은 이이의 이기론이 '기'가 능동성을 지닌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정진은 '리'와 '기'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이해하였다. '리'가 만물의 법칙이자 선한 본성을 지녔다는 이이의 견해에는 동의하였으나, '기'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단지 '리'의 파편일 뿐이라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즉 '리'의 움직임이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라고 칭할 뿐, 실제 현실의 사물들이 움직이는 것은 '리'가 구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리'와 '기'의 관계는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자의 관계와 같은 것이며, ㉠ **“귀인이 수레.말을 타고 나아가지만, 이를 보는 자는 다만 귀인이 나간다고 말할 뿐 수레.말이 나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서 '리'와 '기'가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잘 드러난다.

기정진은 '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세계의 다양성의 원리를 '이일분수(理一分殊)'로 설명하였다. 이일분수는 본원적 실체인 '리'가 여럿으로 나뉘어 현상 세계에 '기'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때 '분'은 '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분'은 현실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원리이며, 현실에 드러나는 다양한 '분'의 원리에는 보편적인 '리'가 갖추어져 있으며, '분'이 '리'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면 보편적 원리와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은 원리에 따라 기정진은 당대 조선에 유입되던 서학(西學)*은 보편적인 도덕 실천의 근거인 '리'의 체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여 내치를 바로잡고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척화주전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조선을 성리학의 적통이자 중심으로 이해하며, '리'를 지킴으로써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당대 유학자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나)

화서학파는 '리'와 '기'가 현상 세계에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기론을 주장하였다. 화서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항로는, '리'와 '기'는 상호적 관계이지만, '리'가 '기'에 비해 우월해야 하며,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리'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화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항로에 따르면 '리'와 '기'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위치에는 우열관계가 성립한다. 즉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기'는 '리'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현상 세계의 질서를 '리'가 주도하고, '기'는 이에 철저히 맞춰 보조해야 하며, 따라서 이항로는 개인의 철저한 심성수양을 통해 인간의 감정인 '기'를 통제해야 '리'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기'가 '리'를 드러내는 통로로 보고, '리'가 '기'로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 그는 '기'를 통제하지

못해 욕망을 내세우게 된다면 '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욕망을 통제하고 전통을 지켜야 '리'가 현상세계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이항로는 기술 발전에 치중하여 심성수양을 배격하는 서양의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도덕적 전통을 ㉡ **따르는 중화와 달리**, 서학은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하므로 서구의 과학 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으로, '기'가 '리'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하므로 이항로는 서양과의 화친은 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항로의 이러한 사상은 위정척사 운동으로 이어졌고, 일제에 의해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 조선의 유림들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서학: 서양의 학문을 통칭하는 말

-(가) 25 수록 인예12, '기정진의 이기론'

(나) 25 수록 인예 5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인들의 생각' 변형.제작 문항-

1.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리'와 '기'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 ② '리'와 '기'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③ 도덕적 실체의 예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 ④ 특정 사상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 ⑤ 조선 이외의 학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 (가)의 기정진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 ① '리'가 선한 본성을 함양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으나, '리'와 '기'가 현상 세계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기'의 역할을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 ② 주인이 바르지 못한 명을 내린다면 종도 그에 따라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것이므로 주인은 항상 옳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분'은 항상 '리'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분'은 결국 '리'가 현실에 다양한 모습으로 실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④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수탈하는 것은 '분'이 '리'에게 종속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서학은 보편 원리를 벗어나 있다. 만약 서학이 만물의 법칙에 부합하는 학문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3. <보기>의 입장에서 ㉠의 입장을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간재학파의 대표적 학자 전우는 사물의 본질인 '리'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가 심성으로서 현실에 드러나므로 심성을 닦아야만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임금의 명을 신하가 수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하가 한 일"이라는 전우의 발언은, 현상 세계의 움직임은 '기'로 구현되지 않으면 '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그의 사상이 잘 함축되어 있다.

- ① 귀인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가 현상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수레와 말은 중요하지 않다.
- ② 심성 수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엇도 이룰 수 없으므로, '리'의 실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심성 수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③ 임금의 명이 있어야 신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귀인의 명이 있어야 수레와 말이 움직이므로 적절하다.
- ④ 수레와 말이 움직이므로써 귀인이 이동하는 것인데, 이는 '기' 역시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⑤ '리'는 현실에 드러날 수 없으므로 이를 귀인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기정진(A)과 이항로(B)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서학은 보편적인 도덕을 벗어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서양의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 ② B: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편 도덕의 본성은 중화에 입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를 통해 '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 ③ A: '리'가 여럿으로 나뉘어 현상에 드러난 것이 '기'입니다. '리'와 '기'를 동등하게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 ④ B: 그렇지만 '기'가 없으면 '리'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수양을 통해 '기'를 갈고 닦아야 '리'가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 ⑤ A: 물론 '리'가 바르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가 '리'의 조각일 뿐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 <보기>의 '박은식'의 입장을 토대로 (가)와 (나)의 학자들의 사상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은식은 열강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의 실용적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서학은 물질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서학의 수용은 조선의 주체성을 잃어 버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리'와 '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양명학을 받아들이고, '기'가 마음 속에 구현되어 선을 행할 수 있는 지식으로 표출되는 '양지'에 따라 상황에 맞춰 선함의 개념을 수정하여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실행함으로써 서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① 박은식은 '리'와 '기'가 현상 세계에 함께 존재한다는 '이이'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기'가 마음 속에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은 비판하겠군.
- ② 박은식은 '리'가 현상 세계에 나뉘어 '분'으로 드러난다는 '노사학파'의 입장에 대해 '기'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부정적으로 보겠군.
- ③ 박은식은 맹목적인 서학 수용이 조선의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언급했으므로, 중화를 중심으로 '리'를 해석하는 '화서학파'의 주장을 비판하겠군.
- ④ 박은식은 서학이 물질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고 본 점에서 '화서학파'가 서양의 사상이 심성수양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겠군.
- ⑤ 박은식은 실용적 가치를 지닌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서학을 배격해야 한다는 '당대 유학자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6. ㉠의 문맥적 의미가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 ② 형사가 용의자의 뒤를 따랐다.
- ③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 ④ 금강산은 철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다.
- 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랐다.

1. ⑤

울곡 이이와 이항로는 모두 서학을 리에 어긋나는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2. ②

주인=리, 종=기 라고 보았을 때, 주인의 분부에 따라 종이 행동한다는 것은 '리'의 작용에 의해 '기'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정진에 따르면 주인에 해당하는 '리'는 만물의 법칙이자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리'는 항상 올바른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주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는 '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설명이기 때문에 기정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3. ④

<보기>의 전우는 '리'는 실체가 없고, '기'는 실체가 있으며 '리'를 구현하는 통로로 본다. ㉠에서 '귀인'은 '리'를, '수레.말'이 '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우는 수레와 말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현실에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정진은 '기'를 '리'에 종속되어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므로, '기'에 해당하는 수레와 말이 움직임으로써 귀인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수레와 말과 같은 '기'의 작용을 간과했다는 주장은 전우의 입장에서 기정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① 귀인이 움직인다는 것은 수레와 말에 해당하는 '기'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우의 입장에서 수레와 말은 중요한 것에 해당하기에 이는 기정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기정진은 '기'를 '리'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심성 수양이 없어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전우의 입장에서 기정진의 입장을 바라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귀인의 명이 있어도 수레와 말을 제대로 갈고 닦지 않으면 '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전우의 입장이기에, 이는 기정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⑤ 이 선지는 이항로 비판에 가깝다. 기정진은 '리'가 현실에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우의 입장에서 기정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4. ③

'리'가 여럿으로 나뉘어 '기'로 나타나는 것이 '이일분수'의 개념이다. 그러나 '리'와 '기'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이항로(B)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항로 역시 리가 기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5. ①

(가)의 1문단에서 이이는 '리'와 '기'를 현상 세계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은식 역시 '리'와 '기'가 통합되어 있으며, '기'가 마음 속에서 양지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리'와 '기'가 현상

세계에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즉 이이나 박은식이나 '기'가 모두 현상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이의 입장을 '기'가 마음 속에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박은식은 기와 리가 모두 현상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리'가 현상 세계에서 '분'으로 나뉘어 드러난다는 것은 '기'의 실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박은식은 이를 비판할 것이다.

③ 박은식은 서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할 경우 조선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므로, '리'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화의 문화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이항로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서학파의 이항로는 서양이 기술 발전에 치중하여 심성의 수양을 배격하고 있으며, 도덕적 전통을 따르는 중화와 달리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한다고 보았다. 이는 서학은 물질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는 박은식의 입장과 일치한다.

⑤ '리'를 지킴으로써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당대 유학자들은, '리'의 체계를 벗어난 서학을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는 주체적으로 서구의 실용적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박은식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6. ④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그 기준 따위에) 바탕을 두거나 그러한 입장에 의거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양의 회화는 동진의 화가 고개지가 제시한 '전신사조(傳神寫照)'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전신사조는 대상을 그릴 때 대상의 외형 묘사뿐 아니라 인격과 내면세계까지 표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동양의 회화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외양을 닮게 그리는 '형사(形似)'와 내면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신사(神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신사조는 신사의 표현에 바탕을 두고 형사에 얽매이지 않게 대상을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사물의 형상이 잘못 되었을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쉽게 수정할 수 있지만, 사물의 본질인 '상리'가 어긋나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알아보기 어렵고, 작품 전체를 버리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대나무를 그림에 있어서도 대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생장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마디를 끊어 그리는 것은 상리를 잃는 것이라 여겨,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붓에 그린 뒤 점을 찍어 마디를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개지는 이러한 이념에 따라 영웅호걸을 그릴 때에는 능름함이 표현되도록 덩치가 크게 그리고, 성인군자는 인자함과 고결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되도록 얼굴을 희고 눈이 가늘게 그렸다. 특히 그는 얼굴에서 눈이 그 인물의 정신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여 인물의 얼굴을 그릴 때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눈동자를 그릴 때 아래 위나 크고 작음, 또는 짙고 얇음을 터럭만큼이라도 잃으면 신사가 변한다고 보아 눈을 그릴 때에는 그 대상이 표출하는 기질에 최대한 가깝게 그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개지는 인물 뿐만 아니라 풍경을 묘사할 때에도 신사의 방법에 입각하여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풍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그릴 것을 주장하였다. 사물의 외관에 구애되지 않는 화가의 해석을 중시하여 화가의 내면에 느껴지는 심상에 따라 형태를 변형시켜 그림으로써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인격까지도 회화에 **① 녹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미술에서는 19세기 말의 후기 인상주의나 표현주의에서나 비로소 이루어졌으니 고개지의 예술관이 당대에 매우 급진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개지의 전신사조는 동양 미술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관념적 화법은 조선에도 큰 영향을 끼쳐 18세기까지 회화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나)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 대에는 중국의 전신사조 화풍이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어 사물의 형태보다 관념에 집중하는 화풍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성호 이익**은 겉모양과 같지 않게 그리는 그림은 눈 앞에 보이는 경치를 보지 않고 시를 읊는 것과 같다고 보고, 신사에 집중해 본래 형태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상을 닮게 그리는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재 윤두서 역시 대상의 외면을 철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시각적인 사실성을 구현하는 회화를 추구하였다. 대상의 사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그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나 정신도 추구할 수 있

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터럭 하나라도 똑같이 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의거하여 사물의 질감, 음영, 입체감 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형사를 중시한 대표적인 그림으로 진경산수화를 들 수 있다. 겸재 정선을 시조로 하는 이 예술 사조는 모방한 그림이 아닌, 우리나라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아 사실성과 더불어 그림의 소재가 되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기존 화풍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던 원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합하도록 대각선이나 사선을 활용한 화면 구성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풍들이 신사의 전통을 완전히 배격한 것은 아니다. 윤두서는 형체를 온전히 그림으로써 사실성이 확보된 그림을 통해 신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진경산수화 역시 대상을 제외한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경관에서 받은 감흥과 정취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신사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신사조의 풍조는 구한말 서양의 예술이 직접적으로 들어와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어 유지되었다.

-25 수특 주동2 '동양의 회화론' 변형.제작문항-

1. (가)와 (나)의 서술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회화 기법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다양한 이론을 절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통시적 흐름에 따라 회화 사조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인물의 입장에 입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상대의 비판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 (가)와 (나)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구가 작지만 전쟁에 나아가 화려한 전공을 세운 장수를 고개지는 위압감있게 묘사했을 테지만, 윤두서는 실제에 가깝게 그렸을 것이다.
- ② 단풍이 든 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과감한 붓터치를 통해 현실에서 보기 힘든 색감을 구현했다면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그림에 찬사를 보냈을 것이다.
- ③ 인체 구도에 맞춰 철저하게 신체를 부분적으로 그린 후 결합하여 완성한 회화에 대해 전신사조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할 것이다.
- ④ 탁 트인 별판을 보고 호연지기를 느낀다면 진경산수화를 추구하는 화가는 세밀한 배경 묘사를 위해 원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지만, 전신사조를 따른다면 그 감정에 충실하여 그림을 그릴 것이다.
- ⑤ 사실적이고 정밀한 색채를 바탕으로 그린 초상화라도 실제 인물의 모습과 다르게 그렸다면 18세기 이후의 화가들중에는 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두서의 예술론에 동의한다면, 대상의 정신보다 사실성을 우선시하므로 ㉠은 이에 대해 수용하겠군.
- ② ㉠에 따르면 형체보다 관념을 중요시하는 화법은 형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③ 고개지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사물의 본질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은 이를 비판하겠군.
- ④ ㉠은 경치를 보고 시를 읊어야 하는 것처럼, 회화 역시 눈앞의 대상에 부합하게 그려야 된다는 입장이겠군.
- ⑤ 풍경을 멀고 가까움에 부합하도록 그리는 화풍은 ㉠의 입장을 옹호하겠군.

4. (가)의 '고개지'와 (나)의 '윤두서'의 입장에서 <보기>의 ㄱ ~ ㄹ을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회화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화가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ㄴ. 예술은 대중성을 목표로 한다. 대중들에게 외면받는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ㄷ. 사물을 실체보다 간략하게 그리더라도 그것이 사물이 가진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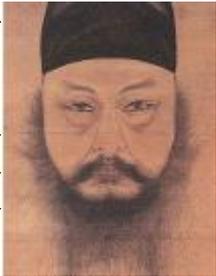
ㄹ. 포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 포도의 위치와 비례를 끊어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회화의 시작이다.

- ① 윤두서와 고개지는 모두 ㄱ과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② 고개지는 ㄱ에 동의하되,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윤두서는 ㄴ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④ 고개지와 윤두서는 모두 ㄴ과 ㄷ에 동의할 것이다.
- ⑤ 윤두서는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할 것이다.

5. <보기>의 A와 B에 대해 (가)와 (나)의 인물들이 내린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윤두서의 「자화상」은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한 새로운 유형의 선비 초상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 의의가 크다. 이 작품은 엄격한 좌우 대칭과 비례를 통해 실제 대상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그가 인물화에서 새로운 전범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B: 페흐스타인의 「항구」는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회화의 선, 형태, 색채 등은 그것의 표현 가능성만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입각하여 그려졌다. 「항구」는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고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적인 균형과 구도를 의도적으로 무너트리는 화법을 취했다.



- ① 고개지의 관점에 따르면, A가 눈을 그리는데 있어서 대상과 유사한 형태로 그림으로써 대상의 인품을 표현했다면 이는 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겠군.
- ② 이익의 관점에 따르면, A가 인물의 주름과 털까지 모두 실제 대상의 비례에 의거해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형사의 화풍을 취한 것이라 보겠군.
- ③ 고개지의 관점에 따르면, B가 바다를 그릴 때 색이 진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그림으로써 화가의 감정을 전달하였다면 대상의 본질을 잘 드러낸 것이라 하겠군.
- ④ 정선의 관점에 따르면, B가 항구에 정박한 배들의 구도는 원근에 맞게 그리되, 배경의 색채는 화가가 느낀 감흥에 충실하게 그렸다면 이는 형사와 신사를 모두 드러낸 것으로 보겠군.
- ⑤ 윤두서의 관점에 따르면, B가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였다도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균형미를 사실과 다르게 그렸다면 이는 적절한 회화의 기법이 아니라 하겠군.

6.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얼어붙었던 손이 서서히 녹아갔다.
- ② 그의 사과를 듣고 서운했던 감정이 녹아 버렸다.
- ③ 얼음이 어느새 녹아 컵에 물이 맺혔다.
- ④ 천천히 휘젓다 보면 물에 녹을 것이다.
- ⑤ 그 노래에는 작곡가의 음악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1. ①

(가)는 고개지의 의견에 따라 '형사'를 비판하며 '신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나)는 성호 이익과 공재 윤두서를 언급하며 '겉모양과 같지 않게 그리는 그림'인 '신사'를 비판하며 '형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 ④

'진경산수화'를 추구하는 화가는 '형사'의 관점을 따르고, '전신사조'를 추구하는 화가는 '신사'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형사'를 추구하는 화가 또한 '신사'의 관점을 아예 배격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제외한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경관에서 받은 감흥과 정취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는 '형사'의 예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형사'를 추구하는 화가여도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그림에서의 생략, 변형을 시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를 따르는 화가가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원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옳은 선지가 될 수 없다.

① 고개지는 '신사'의 관점에서 대상에 대해 화가가 느끼는 바와 정신세계를 그림에 더 많이 나타내려 위압감 있게 그렸을 테지만, 윤두서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실성을 중요시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② (가)를 통해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화가의 내면세계를 대상에 반영하여 그리는 '신사'에 동의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풍이 든 산을 화가가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산에 대한 화가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에서 보기 힘든 색감을 구현했다면 그림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③ 전신사조를 추구하는 입장은 '신사'의 관점으로, 대상을 그저 동일하게만 그리는 것은 형사에 얽매어 대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본질을 구현하지 못했음을 비판할 것이다.

⑤ (가)와 (나)를 통해 18세기를 기점으로 동양 미술사에서 추구하는 기조가 '신사'에서 '형사'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형사'에서는 터럭 하나까지 똑같은 그림을 추구하므로, 실제 인물의 모습과 다르다면 지적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③

이익은 대상의 외양을 닮게 그리는 '형사'의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신사'를 강조한 고개지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개지는 사물의 본질(=정신)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외관(=형체)에 구애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수식 범주가 고개지의 입장과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윤두서와 이익은 모두 형사를 우선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형체보다 관념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전신사조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다. (나)의 1문단에서 이익은 신사에 집중해 본래의 형체를 왜곡하면 안된다고 보았으므로 전신사조가 형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 ⑤

ㄱ. 회화에서 대상의 본질을 중시하는 것을 '신사'라 한다. 물론 고개지는 풍경을 그릴 때 화가의 감정과 정취를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지만, 이는 신사의 방법에 입각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두서는 대상의 사실성을 취하면서 신사를 드러내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고, 윤 모두 비동의)

ㄴ. 예술을 대중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고개지와 윤두서가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에 공통점을 두면서도, 그 내용을 담는 데 있어서 화가의 내면을 중시하는가, 사실적으로 그리는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대중적 측면에 입각한 ㄴ의 주장은 둘 다 거부할 것이다. (고, 윤 모두 비동의)

ㄷ. 사물을 실제보다 간략하게 그리는 것은 사물을 왜곡한 것이다. 그림에도 사물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신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고개지는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윤두서는 신사의 핵심을 형사, 즉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두었으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고 동의, 윤 비동의)

ㄹ. 고개지가 형사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개지는 상리를 위해서 부분으로 끊어 그리는 것은 옳지 않게 보았다. 반면 윤두서는 사실성을 위해 대상의 외면을 철저하게 분석했으므로 ㄹ에 동의할 것이다. (고 비동의, 윤 동의)

따라서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된다.

5. ③

고개지는 대상의 본질인 상리를 드러내기 위해 '대나무를 그림에 있어서도 대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생장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마디를 끊어 그리는 것은 상리를 잃는 것이라 여겨,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붓에 그린 뒤 점을 찍어 마디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바다는 하나로 연결된 대상이므로 한붓으로 그린 후 채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색에 따라 하나의 대상인 바다를 구분하여 그린다면 이는 상리에 어긋난 것이라 평가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① 우선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윤두서는 신사의 전통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 아니다. 그는 형사에 입각하여 그리는 것이 신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고개지는 외형 묘사에 더해 인격과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였다. 고개지는 내면인 신사를 형사보다 더 중시하였지만, 그것이 무조건 왜곡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개지는 대상의 눈이 인물의 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A가 눈을 실제에 가깝게 그림으로써 대상의 인품을 잘 표현했다면 A가 상리를 표현하여 신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것이다.

② 이익은 대상을 왜곡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 B는 전통적인 균형과 구도를 무너트리고 감정에 충실하게 그렸으므로 대

상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익이 추구하는 형사의 방법에 어긋난다.

④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원근과 구도를 통해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형사의 입장을 취하되, 배경을 생략하거나 화가의 감흥과 정취를 드러는 신사의 화풍도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B가 원근의 구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색채를 통해 화가의 감흥을 드러냈다면 이는 형사와 신사의 입장을 모두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⑤ 윤두서는 대상의 형체와 비례를 정확하게 그리는 형사의 화풍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신사의 전통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B가 의도적으로 대상의 균형미를 무너뜨리는 화풍을 취했다면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6. ㉔

25학년도

수능맛집

사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제통화기금(IMF)은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 체제에 따라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와 가맹국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구이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제 거래에 기준이 되던 금에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켜 달러를 금에 연동되는 기축통화로 삼던 체제이다. 문제는 금은 매장량이 정해진 실물자산인데, 달러는 제조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의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 **대다수의 국가들이 달러를 매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IM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SDR은 금과 달러에 이은 제3의 화폐로, IMF 가맹국들이 무역 과정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SDR을 이용해 무역 적자를 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는 종말을 고했지만, 현재도 SDR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DR은 달러를 포함,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를 하나로 묶어 통화 바스켓을 설정하고, IMF 가맹국은 SDR을 형성할 때 출자한 기여분에 따라 재정 위기 시에 SDR을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령 어떤 가맹국이 국제 무역에서 큰 손실을 입고, 타국의 채권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SDR을 인출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때 SDR은 인출한 SDR을 상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출한 국가의 상황에 맞게 통화 바스켓의 5가지 화폐를 원하는 비율대로 맞춰 환전할 수 있다. 이렇게 IMF에서 가맹국의 위기에 SDR을 인출해주는 것을 구제금융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제금융을 실시한 국가는 빌린 SDR을 완납하기 전까지 IMF의 요구에 따라 경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실 있는 기업이 외국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IMF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IMF 출범을 주도한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의 입맛에 맞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IMF가 타국의 경제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MF의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행 IMF의 의결권은 출자 지분이 많은 국가에게 더 많은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그러나 출자 지분이 많은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은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 IMF의 의결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대부분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 **개발도상국의 의결권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IMF는 현재 국제 사회에서 감시 기관이 없는 독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UN 산하 세계은행이 있지만, 세계은행은 빈곤 퇴치 및 기술 개발등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실제 국제 은행의 역할은 IMF가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 **IMF의 권한을 세계은행에 일부 양도**하여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25 수완 유형3 '국제통화기금' 변형.제작문항-

1.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MF는 자금이 필요한 국가에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이는 세계은행에 비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SDR은 파운드나 엔화 같은 다른 화폐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겠군.
- ③ 구제금융을 실시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 IMF가 판매를 요구하는 것은, SDR은 담보가 따로 없기 때문일 수 있겠군.
- ④ SDR에 대한 인출권을 가진 국가가 출자 비중을 늘린다면, SDR 인출시에 경제 정책에 대한 개입을 늘릴 수 있겠군.
- ⑤ IMF에 따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은 IMF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인 것이 영향을 준 것이겠군.

2. ㉠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을 캐는 것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② 달러가 과잉공급 될수록 실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 ③ 실물자산과 화폐의 가치가 같다면 같은 화폐로 실제 금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달러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 ⑤ 금보다 달러의 실제 가치를 대다수의 국가들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3. ㉡와 ㉢의 입장을 각각 반박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진술을 고르면?

- ① ㉡: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국가보다 적은 돈을 지불한 국가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② ㉡: 개발도상국이 더 발전해서 출자 지분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 ③ ㉢: 이미 IMF가 있는 상황에서 세계은행에 권한을 일부 양도하면 세계은행의 입김이 너무 커진다.
- ④ ㉢: 세계은행에 비해 IMF가 오랫동안 구제금융을 실시해왔으므로 훨씬 뛰어난 기관이다.
- ⑤ ㉢: 세계은행의 설립 취지와 IMF의 설립 취지가 충돌하므로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4. <보기>는 어떤 국가가 겪었던 상황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은 90년대말 방만한 국가 경영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져 위기를 겪게 되었다. 당장 만기가 되는 해외의 채권을 갚을 수 없게 되자 A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구제금융 이후 IMF는 도산한 기업들을 외국에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은행 금리를 2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이자를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등 A국은 몇 년간 IMF의 통제 하에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A국은 인출한 SDR을 모두 상환하였고, IMF의 경제 개입으로 국가의 구조가 많이 바뀌어 21세기에 떠오르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였다.

- ① 구제금융 당시 도산한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빈민층으로 전락하여 살아간다면 IMF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 ② IMF의 개입으로 A국의 방만한 경제 정책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IMF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 ③ A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것이 IMF의 경제 개입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역량이 발전한 것이라면, 현행 구제금융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은 약화될 것이다.
- ④ A국이 IMF에 의해 외국에 넘긴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A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면 서구 국가들이 IMF의 의결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약화될 것이다.
- ⑤ A국 이후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국가에 IMF가 개입을 최소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역량이 발전하였다면 세계은행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장은 강화될 것이다.

1. ④

2문단에 따르면 SDR에 대한 인출권을 가진 국가는 IMF 가맹국 모두에 해당하며, SDR을 형성할 때 출자한 기여분에 따라 재정 위기 시 SDR을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SDR에 대한 인출권을 가진 국가가 출자 비중을 늘린다면 자국의 SDR 인출 시에 경제 정책에 대한 개입을 늘릴 수 있다기보단 SDR을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① 6문단의 현재 세계 은행은 빈곤 퇴치 및 기술 개발등에만 지원을 하며, 실제 국제 은행의 역할은 IMF가 수행하여 IMF의 권한을 세계은행에 양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서술을 통해 현재 IMF가 세계은행보다 권한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② SDR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때에도 통화 바스켓 내의 다른 화폐로 대체 가능해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다.

③ SDR은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빌린 SDR을 완납하기 전까지 IMF의 경제 정책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실시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 IMF는 판매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계은행이 빈곤 퇴치 및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며 감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과 IMF의 의결권은 출자 지분이 많은 국가에 더 많은 권리가 돌아가고, 그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점이 IMF에 견제 장치가 없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25학년도

2. ④

금 매장량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달러는 제조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둘의 가치가 같으면 달러를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3. ①

의결권을 적은 돈을 지불한 개발도상국에게 쥐어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선진국이 돈을 더 지불한 이유가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맛집

4. ④

A국이 IMF에 의해 외국에 넘긴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A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면 서구 국가들의 이익만 증가했으므로 서구 국가들이 의결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강화될 것이다.

① 자영업자들은 구제금융 당시 IMF의 요구로 인해 도산하였고, 계속해서 빈민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IMF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② 외환보유고의 부족이 원인이 된 방만한 경제 정책들이 IMF로 인해 사라졌다면, IMF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③ A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것이 IMF의 도움이 아니라면 현행 구제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선진국에 올랐다고 볼 수 없기에 현행 구제금융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은 약화될 것이다.

⑤ IMF의 도움을 최소화하였는데도 역량이 발전하였다면, IMF의 도움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기에 IMF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고, 세계은행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장이 강화될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환 이론은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말한다. 사회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보는 것이다. 에머슨은 교환을 협상과 호혜로 분류하였는데, 협상은 행위자들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고, 호혜는 미래에 얻을 이익을 기대하며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자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에머슨의 교환 이론은 이와 같은 행위를 행위자의 권력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교환 행위에서 더 많은 자원을 줄 수 있는 행위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의 비대칭은 권력을 가진 쪽에 교환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에머슨의 교환 이론은 상업적이고 이익을 얻기 위한 교환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소셜 마케팅과 같은 공익적인 교환 행위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소셜 마케팅은 '공동선'이라는 공익적인 목적 달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 일체의 홍보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흡연은 나쁘다'라는 메시지를 TV에 내보내는 공익광고 같은 것들이 소셜 마케팅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셜 마케팅의 경우 특정 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소셜 마케팅을 접하는 행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단순히 그 행위를 했을 때 이점이 생긴다는 것을 홍보하는 경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로스차일드는 소셜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 그리고 능력(ability)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각 글자의 첫 알파벳을 딴 MOA 모델을 제시하였다.

MOA 모델은 동기, 기회, 능력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만들고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우선 동기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다. 기회는 권장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방해하는 주변 환경이다. 또한, 능력은 권장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말한다. 동기, 기회,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용자는 소셜 마케팅의 권장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러한 수용자에게는 권장 행동의 이점이나 해로운 행동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적 접근만으로도 충분히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동기와 기회는 있되 능력이 없거나, 동기와 능력이 있되 권장 행동할 여건이 안 된다면, 혹은 동기만 있고 기회와 능력이 모두 없다면 행동 변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셜 마케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기와 능력은 있지만,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술을 끊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축구팀에 가입을 유도하여 동기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행위자가 금주를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로스차일드의 소셜 마케팅은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동기와 능력이 있으나 기회가 없는 사람과 달리, 동기가 부족한 경우는 이러한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법 집행을 통한 공포 효과를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스차일드 이론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5 수특 사문2 '리처드에머슨의 교환이론' 변형.제작문항-

1.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과 관련된 두 학자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절충안을 제시한다.
- ③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적합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예시를 바탕으로 제시된 이론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 ⑤ 문제 상황을 토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 MOA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회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권장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 ② MOA 모델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행위자라 할지라도 공포감을 주는 마케팅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 ③ MOA 모델은 동기와 능력이 있는 행위자에게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④ 동기, 기회, 능력의 유무에 따라 행위자에게 적합한 마케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셜 마케팅의 효과가 떨어진다.

3.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머슨의 교환 이론은 행위자 간 자원의 양이나 가치가 달라진다면 권력 관계도 달라진다고 볼 것이다.
- ② 소셜 마케팅과 에머슨의 교환 이론의 차이는 보상이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이다.
- ③ 보상과 효용을 얻으려는 협상과는 달리 호혜는 일반적으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④ 축구팀에 가입하여 음주 행위가 줄어들었다면 행위자는 목표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 법을 통해 공포감을 주는 것 역시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은 탁구 동호회의 회장이다. 동호회에는 갑 외에 을, 병이 가입되어 있으며, 갑과 달리 을과 병은 탁구 초보자이다. 을과 병은 갑이 없으면 탁구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갑은 자신과 실력이 비슷한 정을 동호회에 영입하였다. 한편 을의 동생 무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지만, 운동을 할 기회가 없어 매일 인터넷만 하고 있다. 이에 을은 무를 탁구 동호회에 가입시키려 한다.

- ① 탁구를 자원으로 보았을 때, 정이 영입되기 이전에는 갑이 권력을 독점했지만, 정이 영입 이후에는 권력의 비대칭이 더 커지게 되겠군.
- ② 을과 병의 탁구 실력이 갑과 유사하게 늘어난다면 갑의 권력이 감소하여 탁구 동호회의 권력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겠군.
- ③ 무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다면 무의 자기효능감과 상관 없이 무가 인터넷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겠군.
- ④ 무의 동호회 가입으로 인해 무의 행동 변화가 촉발된다면 로스차일드는 환경적 요인이 무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겠군.
- ⑤ 정이 가입 전 동호회 상황에 대해 에머슨은 권력 관계가 평등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로스차일드는 공동선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겠군.

25학년도
수능맛집

1. ①

교환 이론에 관련된 에머슨과 로스차일드 두 학자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 ②

MOA 모델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소셜 마케팅의 권장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포감을 마케팅을 할 지라도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③

1문단에서 교환은 협상과 호혜로 분류한다는 것, 교환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는 것이 서술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 효용을 얻으려는 목적은 협상과 호혜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① 에머슨의 교환 이론은 더 많은 자원을 줄 수 있는 행위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행위자 간 자원의 양이나 가치가 달라지면 권력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다.

② 소셜 마케팅과 에머슨의 교환 이론의 차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이다.

④ 축구팀에 가입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음주 행위가 줄어들었다면, 목표에 대한 욕구인 동기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인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공포감을 주어 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4. ④

무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에서 능력이 있다고, 기회가 없어 인터넷만 한다는 것에서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의 동호회 가입으로 인해 행동 변화가 촉진되었다면 그의 주변 환경, 즉 기회가 생기며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① 정의 영입 이후에는 자원을 나누어줄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갑의 권력이 줄어들 것이고, 권력의 비대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을과 병의 탁구 실력이 늘어난다면 갑의 권력은 줄어들지만, 을과 병의 권력은 늘어나는 것이기에 권력의 총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③ 무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며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동기, 기회, 능력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자기효능감, 즉 능력과 상관없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⑤ 이 상황은 공동선이란 무관한 상황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할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채무 변제를 실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에 상당하는 물건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 일체를 말한다.

담보물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물권의 개념을 알아야한다. 물권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인 ㉠ **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해당하는 물건인 ㉡ **부동산**으로 구분한다. 법적으로 물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리는 공시가 필요한데, 동산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공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또는 차량 등과 같은 고가의 동산은 등기, 등록 등 기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담보물권은 동산·부동산에 대해 모두 설정이 가능한데 크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분류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채권과 관련된 물건이어야 하며,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설정이 가능하다. 건물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에게 사업주가 공사비용을 주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인 공사 업체는 채무와 관련된 목적물인 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설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질권과 저당권은 유치권과 달리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설정 가능하다. 질권은 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으로 전당포와 같이 물건을 맡기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질권은 채권자가 ㉢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저당권은 채무가 발생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시점에 담보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저당권은 보통 물건의 가치보다 낮게 설정된다. 어떤 건물의 가격이 1억이라면 채권은 그 이상으로 설정될 수 없고, 1억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권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이상 대출할 수 없다. 만약 2억을 대출했다면 이 아파트의 저당권은 2억인 것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경매에서 처분된 금액에서 2억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만약 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보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물건의 처분 가격 전체를 채권자가 변제 받고, 남은 채무는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해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여러명일 때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저당권에서 우선변제권은 보통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여한다. 즉 해당 채무자에게 가장 먼저 채권을 실행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이때 채권

자는 필수적으로 행정청에 확정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무리 먼저 채권을 실행했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돌아간다. 채무자 A에게 채권자B가 먼저 대출을 해주고, 이후 C가 대출을 해줬을때 확정일자를 C가 먼저 받는다면 우선변제권은 C에게 있다. 이때 C가 B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한다.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물건. 주식이나 현금을 포함하는 증명서 일체를 말함.
-25수특 사문3 '물권 변동, 담보 물권' 변형.제작문항-

1. 밑글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사 업체가 사업주에게 대금을 기한내에 주지 못하는 경우에 유치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경우에도 기한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 ② 질권의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시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유치권이 설정되면 채무자가 해당 물건에 소유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 ③ 저당권과 달리 질권의 경우 동산에 설정이 가능하며, 저당권은 점유자가 설정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만 질권은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 ④ 일반적으로 동산의 경우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하지만, 상황에 따라 점유자와 소유자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⑤ 저당권이 물건의 가치보다 낮게 설정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저당권을 설정한 물건의 가치가 추후에 떨어지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리는 방법이 있다.
- ② ㉠과 달리 ㉢은 기록을 통한 공시가 필요하다.
- ③ ㉠과 ㉢은 모두 ㉡으로 설정될 수 있다.
- ④ ㉠은 질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은 그렇지 않다.
- ⑤ ㉠이나 ㉢에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

3. 밑글을 읽고 <보기>의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갑은 을에게 천만원 짜리 침대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갑이 침대를 완성했는데도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갑은 5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너희은행에 20억을 대출받았다. 이후 갑은 공장 확장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인민은행에 추가로 20억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병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갑은 채무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너희은행이 인민은행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너희은행은 인민은행에 대해 채무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 ② 만약 갑의 아파트 현 시세가 30억이고 인민은행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갑은 아파트를 처분한 후 10억을 너희은행에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 ③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아파트의 시세가 30억이라면 너희은행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을 때 인민은행은 채무 상환을 위해 갑이 점유 중인 침대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갑이 침대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 침대를 담보로 갑에게 대출을 하게 된다면 갑은 침대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갑이 침대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금이 침대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며, 갑의 아파트 시세가 70억이라면 갑은 채무불이행 이후 경매를 통해 30억을 수령하게 된다.

4.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B와 C는 손실을 입게 된다.
- ② 저당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다.
- ③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상관 없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여된다.
- ④ B가 C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없을 수 있다.
- ⑤ A의 부동산 가격이 채권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에도 C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C는 손실을 입지 않는다.

1. ①

'질권과 저당권은 유치권과 달리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설정 가능하다.'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질권과 저당권은 채권 발생 시점에 설정이 가능하다. 유치권은 채무불이행 이후 설정 가능하지만,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경우에는 그 즉시 질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질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반면 유치권은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기 전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놓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이므로, 적절하다.

③ '질권은 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으로,' 와 같이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저당권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저당권의 물건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지만, 질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④ 일반적으로 동산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유치권을 행사할 시 채무자(소유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점유를 하게 되며, 질권의 경우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담보의 점유자는 채권자, 소유자는 채무자이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⑤ 저당권이 물건의 가치보다 낮게 설정되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담보물을 처분하고, 채무가 변제된 차익을 채무자가 가지게 되지만 저당권을 설정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자는 담보물로도 채무를 온전히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2. ②

고가의 동산은 동산임에도 기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기록을 통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옳은 선지가 아니다.

④ 질권은 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있다.

3. ③

침대는 갑과 인민은행 사이의 채권과 관련된 물건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①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먼저 채권을 실행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을 받지만 그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이를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며, 따라서 옳은 선지가 될 수 있다.

② 갑의 채권이 저당권의 설정 대상이 된 담보물보다 크다면, 물건의 처분 가격을 모두 채권자가 변제 받고, 남은 채무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게 된다. 따라서 갑에게는 인민은행에 대한 10억의 추가적인 채무가 남아있을 것이다.

④ 을의 채무 불이행 이후에는 채무와 관련된 침대에 대해 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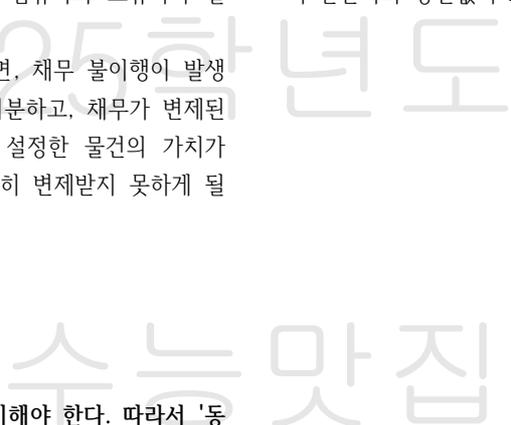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이 침대를 담보로 갑에게 대출을 했다면 갑은 침대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은 채무 불이행 이후 설정할 수 있으며, 담보물은 채무와 관련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침대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갑의 채무와 관련된 아파트의 경매 이후 갑은 시세인 70억 중 인민은행과 너희은행의 채무를 제외한 30억을 수령할 수 있다.

4. ②

저당을 잡은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저당권보다 시세가 낮아졌다면 채권자는 저당을 잡은 물건으로도 채무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시세가 높아졌다면 채무 변제 후 차익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므로 채무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⑤ 부동산이 채권가격보다 하락했다는 것은 B, C의 대출 금액보다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누가 먼저 받는가와 상관없이 B와 C는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법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더불어 소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였을 때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권리가 소멸된다. A가 100만원을 B에게 빌렸을 때 한 달 뒤 송금하기로 계약했다면 A는 100만원을 B에게 갚을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A는 채무자, B는 채권자가 되며 B는 100만원을 송금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고, A는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A가 한 달 뒤 100만원을 B에게 송금한다면 급부를 이행한 것이고, 100만원 송금이라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금전 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부를 이행하게 되면 이 급부 대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A가 한 달이 지나도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 **채무불이행**이라 하며,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인해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 **이행지체**라 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과실이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A가 B에게 송금받을 계좌 번호를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B가 이에 응하지 않고 채무를 상환할 기간이 지났다면 이는 B의 과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채권자지체**라고 하며, 이때에는 채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한 의무를 약속한 것이다. 채무자는 성실하게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며, 채권자는 급부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변제받을 권리 역시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계약 해제권은 보통 채권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 지체가 지속된다면 채권자와 달리 채무자는 계약 해제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무가 소멸할 수 있다.

㉢ **소멸시효**는 권리 대상자에 한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금전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급부 이행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B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5년간 급부를 이행할 것을 공지하지 않는다면, A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는 B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도중에 B가 A에게 응답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면, B의 채권자지체 상황은 해제되며 계좌를 알려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된다.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것 역시 급부를 이행하라는 묵시적 요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급부를 이행할 주체가 사라지게 되고, 채권자가 사망한다면 급부를 받을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의 자녀 등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채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채무자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에게 급부가 이전된다. 채무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사망을 인지

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상속 포기를 신청한 시점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된다. 채무의 상속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5 수특 주통8, 계약파기, 채권자협력 변형.제작지문-

1. **윗글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가 사망하게 되어 한 달 뒤에 급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A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B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 ② 한 달 뒤 100만원에 대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B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계속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A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 ③ B가 A에게 송금받을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A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지만, 특정 요건이 갖춰진다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권리를 갖는다.
- ④ B가 계좌를 추후 A에게 알려졌음에도 A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B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A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A의 계좌 번호 요구에 B가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한 달 뒤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A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B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2.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채무자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 ②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는 급부를 자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 ③ A의 요구에 B가 계좌 번호를 알려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채권자지체 상황이 발생해도 채권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채무자가 급부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기 불황으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③ ㉠과 ㉡의 상황에서는 급부가 소멸하지 않지만, ㉢이 발생하면 급부가 소멸한다.
- ④ ㉠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의 상황이 발생한 이후가 될 수 있다.

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였을 때,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을 은행에서 1억의 대출을 시행하면서, 3년 뒤 이를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 은행의 전산 오류로 인해 매달 전송되던 대출을 갚을 기한을 알리는 알림 문자가 전송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대출을 상환할 만기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 갑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갑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병이 하나 있다.

- ① 을 은행의 전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갑이 생존해 있었다면 을 은행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대출 상환 두 달 전, 을 은행이 알림 문자를 병에게 전송하더라도 병이 문자를 받고 두 달 이후에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병의 급부는 소멸하게 된다.
- ③ 갑이 사망한 후 한달 뒤 병이 갑의 사망을 알게 되었을 때, 병이 갑의 사망 시점 7개월 뒤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경우 을 은행이 가진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 ④ 만약 갑이 사망 전에 을 은행에 1억을 상환했다면 갑과 을 사이의 금전 채권은 소멸하게 되며, 갑이 사망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병에게 상속될 수 있다.
- ⑤ 병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병에게 갑의 급부가 이전되지만, 을 은행이 이후 파산하게 되어 폐업하게 된다면 권리의 주체가 사라져 병의 급부가 소멸될 수 있다.

25학년도
수능맛집

1. ③

소멸은 권리가 아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성격의 법률임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A가 사망했고, A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급부를 이행할 주체가 사라지기에 소멸시효가 발생해 B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 ② B가 급부를 이행하라는 지속적 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5년이 지난다면 채권이 소멸해 A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 ④ 채권자는 급부가 이행 되지 않을 시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변제받을 권리가 주어지기에 B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A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A의 계좌 번호 요구에 B가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기에 B에게 법적 책임이 생긴다.

2. ②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는 급부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의무가 소멸할 수 있다.

- ① 채무자는 계약 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계약 해제권을 가지는 것은 채권자 뿐이다.
- ③ A의 요구에 B가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기에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지체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

3. ④

㉔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은 '권리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법률 요건으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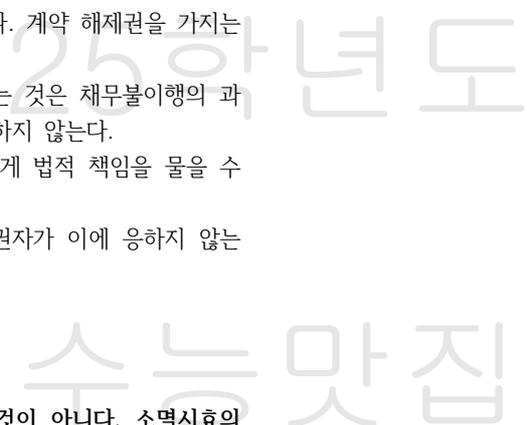
- 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 ② ㉔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㉓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 ③ ㉓과 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부가 소멸하지 않지만, ㉔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해 급부가 소멸된다.
- ⑤ ㉔의 상황은 채권자지체, 계약 당사자 사망 등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㉓ 상황 이후에도 ㉔이 발생할 수 있다.

4. ②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병은 아버지인 갑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병은 을 은행과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상속 포기를 시행하는 순간 병은 갑과 을의 채무 관계에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되므로, 병은 애초부터 채무에 대한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병이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병이 을과 계약관계

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때에는 갑에 대한 을의 채권만 소멸할 뿐, 병은 소멸될 의무 자체가 없다. 따라서 병의 급부가 소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려면 5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계약 상환 날짜까지 따져도 1년만을 권리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상속 포기는 '사망 인지' 후 6개월 뒤까지 가능하다. 병은 갑이 사망한 사실을 한 달 후에 알았기 때문에, 사망 시점 7개월 뒤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도, 을 은행이 가진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 ④ 갑이 사망 전에 1억을 상환했다면 급부를 이행했기 때문에, 을 은행의 권리가 소멸한다. 그리고 갑이 사망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병이 상속할 수 있다.
- ⑤ 병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갑의 급부도 이전된다. 하지만, 을 은행이 폐업한다면 급부를 받을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병의 급부가 소멸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필적 고의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무관하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형법은 어떤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 행위임이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주의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과실범이나, 범죄자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방조하는 ㉠ **방조범**의 처벌이 어려워진다. 미필적 고의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념이다.

형법에서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을 뜻한다. 대개 고의는 적극적으로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를 뜻한다. 하지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종범인 방조범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 방조에는 범죄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강화시켜주는 정신적 방조, 범죄 실행 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물질적 원조 행위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가 있다. 법률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는데, 은행의 경비원이 은행 강도가 나타난 상태에서 경비의 업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

방조범 중에 단순 방조를 넘어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는 ㉡ **교사범**에 해당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금은방의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범죄 의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은방은 월요일에 영업을 안 하니까 그 시간에 실행하면 확률이 높다'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정신적 방조에 해당하지만, 그 사람이 범죄 의사가 애초에 없었음에도 '금은방은 월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니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기 쉽다'고 말하여 범죄 의지를 불어넣는 행위를 하면 교사범에 해당한다. 교사범과 방조범은 범죄를 직접 저지른 '정범'과 묶여 '공범'에 해당하지만, 형법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교사범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보다 무조건 낮은 형량을 선고 받는 필요적 감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교사범은 감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과실범**은 위의 사례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법적으로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은 했으나 결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주의의무 위반이라 한다. 은행 경비원이 잠시 잠을 자는 동안 강도가 들어서 몰래 물건을 훔쳤을 때 경비원은 근무 시간동안 성실하게 경비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강도가 들었음을 알고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과실범은 대개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범이나 방조범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

미필적 고의는 이처럼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나 과실로 인해 성립한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특정한 행위를 유발할 것이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기계 결함이 발생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여도 아예 처벌받지 않는다.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형법 한정

이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상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형법과 민법은 별개의 행위에 대해 판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5수특 사문11 '방조' 수완 실전3'과실' 변형.제작문항-

1. **윗글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문을 깨려는 사람을 보고 야구공을 쥐어 준 경우, 고의성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② 같은 행위라도,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행위를 독려한 것과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독려하는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형량이 높을 것이다.
- ③ 은행에 들이닥친 무장 강도를 본 경비원이,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면 이는 과실범에 해당한다.
- ④ 같은 공범일지라도 범죄 행위를 직접 수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범에 비해 항상 형량이 낮다.
- ⑤ 횡령을 저지르기 위해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에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는 물질적 방조에 해당하며, 이는 부주의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해 처벌이 무거울 것이다.

2.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실수를 저지르거나 의도치 않게 불법 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특정 행위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유발될 것을 모른 채 그 행위를 수행했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④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하나는 항상 적용받게 된다.
- ⑤ 범죄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무조건 감경의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 원칙이다.

3. 지문의 ㉠ ~ ㉣과 <보기>의 각 사례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만을 고르면?

<보기>

A: 중고 거래에서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맥키넨은 카데나스에게 이 상황에서 거래 내역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을 물었고, 카데나스는 이에 답변해 주었다.

B: 궁핍한 생활을 하는 알칸타라에게 로맥이 다가와 거래처의 정산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 후, 이를 실행하면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고, 알칸타라는 이를 실행하였다.

C: 안토니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춤을 추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테이블의 병이 깨져 옆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

D: 로드리고는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속도를 감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계속 속도가 높아지자 차의 통제를 잃고 차를 벽에 긁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A	B	C	D
①	㉠	㉡	㉢	없음
②	㉡	㉢	㉣	없음
③	㉢	없음	㉠	㉣
④	㉣	㉠	㉡	㉢
⑤	없음	㉣	㉠	없음

4. 밑글의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는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며 보트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트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해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충돌하게 되어 순식간에 해변이 이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해변에는 B와 C가 있었는데, 사고를 본 B는 C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 ① A가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면, A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C가 B의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왔을 때, B의 말로 인해 C의 범죄 의사가 생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B의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 ③ A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트가 고장에 의해 편의점에 충돌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A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므로 A는 과실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A가 평소 보트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B의 말을 들은 C가 물건을 훔친다면, A와 B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C의 행위는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
- ⑤ C가 물건을 가져간 후 이를 들켜 처벌을 받게 되면, B는 C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편의점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수능맛집

1. ②

범죄 행위를 독려하는 경우 방조범 또는 교사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범의 경우 3문단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지를 불어넣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범의 죄질이 더 나쁘므로,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교사범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행위를 독려한 교사범이 형량이 높을 것이다.

① 야구공을 쥐어주는 행위는 물질적 방조에 해당한다.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과실범은 범죄자의 행위를 모른 채, 본인의 과실에 의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 위 경우는 범죄자인 강도의 행위를 본 이후이기 때문에 과실범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 해당한다.

④ 공범에는 방조범과 교사범이 있다. 교사범은 죄질이 방조범에 비해 더 나쁘므로, 정범에 비해 형량이 항상 낮지 않고, 감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횡령을 저지르는 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물질적 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문단에 따르면 과실범은 정범이나 방조범에 비해 책임이 현저히 가볍다. 따라서 방조범이 부주의로 인한 과실범에 비해 처벌이 무거울 것이다.

2. ①

미필적 고의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무관하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형법상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 체계에서, 부주의에 의한 과실범이나 방조하는 방조범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제시된 개념이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는 실수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범죄 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①

A는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답변해 준 상황이다. 이는 상대방의 범죄 의사에 동조하여 정신적 방조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B는 로맥이 횡령을 유도하면서 알칸타라의 범죄 행위를 유도하였다. 즉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사를 불어넣은 것에 해당하므로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

C는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행위의 결과에 대해 인식은 했으나 결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범이라 볼 수 있다.

D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다. 즉 의도성이 없으므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

4.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아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A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편의점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보트를 운전했다면 A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C가 B의 말에 의해 범죄 의사가 생성되었다면 B는 교사범이 되고, C가 애초부터 물건을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B가 이를 부추킨 것이라면 B는 방조범이 된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요건이지만, 교사범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 경우 B의 형량은 달라질 것이다.

④ A가 보트의 정비를 소홀이 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범에 해당한다. 또한 B의 말을 듣고 C가 물건을 훔친다면, 직접 범죄 행위를 수행한 C는 확정적 고의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범죄 의사를 불어 넣은 B는 미필적 고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형법과 민법은 별개 행위에 대해 판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았을 지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타당하다.

과학.기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브레이크는 주행중인 차량을 감속 또는 정차시키는 장치로, 유압 장치를 통해 바퀴에 마찰력을 전달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에 연결된 유압 장치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는 파스칼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파스칼의 원리란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가한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방향에 상관없이 용기 안의 모든 임의의 지점에 전달되는 것이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과 연결된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이 움직이며 실린더 안의 브레이크 오일을 브레이크 호스를 통해 바퀴에 연결된 실린더로 밀어낸다. 이후 바퀴에 있는 실린더에 유체 압력이 전해지며 유체가 실린더를 밀어 바퀴 양 옆의 브레이크가 바퀴를 잡아 마찰력을 발생시키면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동상황에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차량을 정지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손실 발생한다는 것이다. 운동 에너지를 열로 전환시킬 땐 100%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열역학 2법칙에 의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는 100%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최근 생산되는 전기자동차에서는 회생제동 장치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회생제동은 마찰열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손실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저장시키는 방법이다. ㉠ **회생제동 장치**가 장착된 브레이크는 유압식 브레이크의 설비에 모터가 추가된 형태이다. 모터는 주로 앞바퀴에 ㉡ 달려 있는데, 마찰열에 의해 운동에너지가 바퀴를 감속시킬 때 돌고 있는 바퀴에 연결된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며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다. 모터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회전체와 회전체를 움직이는 고정체로 구성되어 있다. 모터가 운전할 때 회전체는 돌면서 운동에너지를 만드는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줄어들면 모터의 전류가 차단되며 모터와 연결된 바퀴의 운동에너지가 모터를 구동한다. 이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기 위해 바깥의 고정체에 전류를 흘려주면 고정체가 자성을 띠게 되면서 회전체와 고정체 사이에 전류가 발생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바퀴의 운동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게 된다.

회생제동 장치는 배터리 고유 저장 용량까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보통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저장 용량보다 모터의 출력 용량이 커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고속 주행 시 모터의 출력이 높아지며, 그에 비례하여 바퀴의 회전 속도 역시 빨라진다.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마찰열은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동 시에 필요한 운동 에너지도 커지므로 브레이크의 유압량도 커야 한다. 모터의 출력 용량이 작다면 커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용량이 작아져 운동 에너지 손실이 커지고, 제동력 또한 약해져 제동 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25 수완 실전4 '유압식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변형.제작문항-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이 움직인다.
- ② 전기자동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에너지의 증가로 배터리 용량 변화로 인한 전기 에너지 발생량이 커진다.
- ③ 회생제동 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모터의 전류를 조정하여 에너지를 축적한다.
- ④ 마스터 실린더와 바퀴의 실린더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와 밟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이 다르다.
- ⑤ 브레이크를 동작시킬 때와 달리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될 때의 효율이 더 높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터리의 크기가 클수록 고정체의 전류가 커진다.
- ② 일반 유압식 브레이크에 비해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작아진다.
- ③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전류를 발생시켜 속도를 늦춘다.
- ④ 모터의 출력 용량과 속도는 반비례한다.
- ⑤ 주행 시에는 모터에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기 에너지는 단위시간 당 운동 에너지로 그 힘을 표현할 수 있다. (A) 전기 에너지가 큰 모터는 힘을 커지지만, 그만큼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과도한 발열이 일어나면 전기 에너지를 구동하는 모터에 손상이 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B) 모터의 출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 ① 차량을 정비 없이 오랫동안 운행하기 위해서는 (A)보다 (B)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② 빠른 속도에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A)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③ 배터리의 저장 용량이 작다면 (A)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나 (B)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나 운동 에너지 손실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 ④ 급정거 상황에서 빠르게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A)보다 (B)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
- ⑤ 브레이크의 유압량이 큰 경우는 (A)로 이루어진 장치가 (B)로 이루어진 장치보다 더 나을 것이다.

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다.
- ② 영철이는 어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다.
- ③ 초인종이 현관에 달렸다.
- ④ 이 논문에 각주가 많이 달려 있다.
- 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 일에 달려 있다.

25학년도

수능맛집

1. ②

전기 에너지 발생량이 커지려면 모터의 출력 용량이 커야하는 거지, 배터리 용량 변화에 따라 전기 에너지 발생량이 커지지는 않는다.

① 2문단에 따르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페달로부터 전달된 압력으로 인하여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이 움직인다.

③ 회생제동 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모터의 전류를 차단하고 회전체와 고정체 사이에 전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축적한다.

④ 마스터 실린더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을 브레이크 호스를 통해 바퀴에 연결된 실린더로 밀어내는 일을 하고, 바퀴의 실린더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실린더를 밀어 바퀴 양 옆의 브레이크가 바퀴를 잡도록 만든다.

⑤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될 때는 100%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때는 100% 전환이 불가능하고 손실이 발생한다.

2. ②

일반 유압식 브레이크는 마찰열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100% 전환이 불가능해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지만, ㉠은 마찰열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손실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저장시키기에 손실이 작아진다.

3. ④

급정거 상황에서 빠르게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적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기 에너지가 큰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B)보다는 (A)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을 것이다.

① (B)의 모터 손상 위험이 더 적기에 정비 없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B)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 빠른 속도에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큰 모터인 (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③ 배터리 저장 용량이 작다면 회생제동 장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에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진다. 따라서 둘 사이의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⑤ 브레이크의 유압량이 커야 마찰열이 큰 경우에도 제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B)보다 (A)로 이루어진 장치가 더 나을 것이다.

4. ③

본문에서 '(장치나 기기 따위가 어디에) 쓸 수 있도록 설치되다.'의 뜻으로 쓰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질소는 지구 대기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건조한 공기에는 질소가 약 78%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산소가 약 21%를 ㉔ 차지한다. 식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은 생장에 질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자연적인 상태에서 질소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인류가 곡물을 수확하는 양은 오랜 기간동안 정체 상태였다. 그러나 20세기에 프리츠 하버가 질소고정법을 개발해낸 이후 인위적으로 질소를 식물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인류의 곡물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식물은 질소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저장, 이를 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그런데 대기 중의 질소는 삼중결합을 가진 분자이며, 이 삼중결합을 끊는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식물은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질소고정을 하지 못하고, 흠에 있는 암모니아만을 흡수하여 ㉕ 저장하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질소고정은 흡수한 질소 기체를 질소고정효소를 통해 암모니아로 변환할 수 있는 남세균과 같은 일부 세균을 제외하면 생체 반응으로 생성할 수 없다. 물론 포유류의 배설물이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양은 극소수이고, 이를 비료로 활용하더라도 곡물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㉖ 하버의 질소고정법은 대기 중의 질소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촉매를 이용하여 고온·고압에서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㉗ 합성하는 방법이다.

질소고정법은 질소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질소는 매우 안정된 삼중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수소와 쉽게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자들이 고온에서 불안정해지는 것을 활용, 약 4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질소 분자를 불안정해지게 만든다. 이때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위해 철 촉매를 사용한다. 질소와 수소는 철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정도가 커질수록 촉매에 대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며, 촉매로 사용한 철에 불안정한 질소와 수소가 흡착하게 되면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의 화학적 결합이 ㉘ 유도된다.

그러나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온도에서는 분자의 불안정성이 커져 오히려 화학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정도 분리된 질소 분자들이 수소 분자들과 뒤섞일 때 높은 압력을 가하여 분자들의 평형 상태를 ㉙ 유지시킨다. 압력이 가해지면 높은 온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질소와 수소 분자들이 서로 뒤섞인 채로 안정화된다. 이렇게 되면 질소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가 결합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암모니아를 흠에 섞어 만든 것이 화학비료이다. 하버의 질소고정법은 농토의 지력을 보충하고 식물의 생장속도를 급속도로 늘릴 수 있게 만들어 인류의 식량생산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토양의 지력을 보충할 수 있게 하여 농지의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었다.

-25 수완 실전2 남세균의 특징 변형.제작문항-

1. 밑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질소와 산소로, 그 외의 성분들은 1% 이하로 매우 적다.
- ② 분자는 고온에서 불안정해지지만, 고압에서는 안정화되므로 질소고정은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설정해야만 생성물을 생성하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 ③ 인공적인 질소고정법의 개발로 인해 이전과 달리 인류가 비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식물이 질소고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 ④ 질소고정법이 사막화를 방지하게 해주는 것은, 식물에 암모니아를 통한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토양의 지력이 소모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 ⑤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여 질소를 분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질소고정법에서는 고온 상태에서 촉매를 활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이 아닌 다른 촉매를 사용하면 질소와 수소의 흡착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 ② 반응을 700도에서 진행하게 되면 분자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압력의 정도는 더 커질 것이다.
- ③ 철보다 더 반응성이 높은 촉매를 사용한다면 화학 결합 시 압력은 더 낮아도 된다.
- ④ 만약 열을 가하는 과정이 없다면, 고온의 압력을 가해도 암모니아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온도를 더 높이고 더 강한 압력을 가하면 암모니아의 생성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

3. 윗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류*의 일종인 남세균은 ㉠ 생체 반응을 통한 질소고정을 하는 세균이다. 남세균의 세포 중 이형세포 내에는 질소고정효소가 있는데, 남세균은 Fe단백질을 이용하여 대기 중 질소의 전자를 다른 단백질에 전달한다. 질소 전자는 MoFe 단백질에 전달되고, 이후 ATP단백질을 소모해 질소를 분해한다. 이후 분해된 질소는 질소 고정효소에 의해 NADH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된 수소 분자와 결합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며, 남세균은 생성된 암모니아를 체 내에 저장한다.

*조류: 수생 생물의 일종으로 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작은 식물

- ① ㉠에서 질소의 삼중결합을 끊는 것은 ㉡의 MoFe 단백질의 역할에 대응되겠군.
- ② ㉡의 질소고정효소는 ㉠에서 철 촉매가 하는 역할과 유사 점이 있군.
- ③ ㉡의 ATP단백질의 역할은 ㉠에서 압력을 가하여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군.
- ④ ㉡에서 ATP단백질과 NADH효소가 질소와 수소를 분해하는 것처럼 ㉠ 역시 다른 과정을 통해 두 기체를 분해하는 군.
- ⑤ ㉡을 통해 저장된 암모니아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타나겠지만, ㉠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는 아미노산 전환이 불가능하겠군.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점령한다
- ② ㉡: 구사하기
- ③ ㉢: 뜯어내는
- ④ ㉣: 사용된다
- ⑤ ㉤: 보전시킨다

1. ③

2문단에서 ‘물론 포유류의 배설물이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양은 극소수이고, 이를 비료로 활용하더라도 곡물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에는 한계’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인류는 하버의 질소고정법 이전에도 비료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첫 번째 문단에서 건조한 공기에는 질소가 약 78%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산소가 약 21%를 차지한다고 언급하고 있기에, 나머지 성분들은 1% 이하로 매우 적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② 3, 4문단에서 분자들이 고온에서 불안정해지는 것을 활용하고, 높은 압력을 가하여 분자들의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하여, 적절한 온도와 압력의 조합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④ 토양의 지력을 보충할 수 있게 하여 농지의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본문의 서술을 통해 인위적인 암모니아 공급이 토양의 지력 유지를 도왔음을 알 수 있다.

⑤ 자연적으로 삼중결합된 질소를 에너지를 소비해 끊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질소고정법에서는 철 촉매를 활용하여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2. ③

불안정한 정도가 커질수록 촉매에 대한 반응이 잘 일어나며, 이 경우에 안정화하기 위한 압력은 더 커진다. 그런데 질소와 수소에 철 촉매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3문단의 ‘촉매로 사용한 철에 불안정한 질소와 수소가 흡착하게 되면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의 화학적 결합이 유도’된다는 서술을 보았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은 흡착과 화학적 결합이 잘 유도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보다 반응성이 높은 촉매를 사용한다면 흡착 및 화학 결합은 잘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분자들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반응성이 높은 촉매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압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① 본문에서 질소와 수소는 철에 쉽게 반응한다고 설명하므로, 철이 아닌 다른 촉매를 사용하면 반응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②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불안정성이 커지므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④ 열을 가하여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높여야 질소 분자의 삼중결합이 풀어지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열이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⑤ 온도를 높이면 분자의 불안정성이 더 커져 암모니아로 더 쉽게 결합될 수 있고, 생산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 ②

하버의 질소고정법과 생체 반응을 통한 질소고정 모두 촉매 역할을 통해 질소와 수소의 반응을 촉진하고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질소고정효소가 철 촉매처럼 반응물의 결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 철 촉매와 질소고정효소는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① 질소의 결합을 끊는 것은 MoFe 단백질이 아니라 ATP단백질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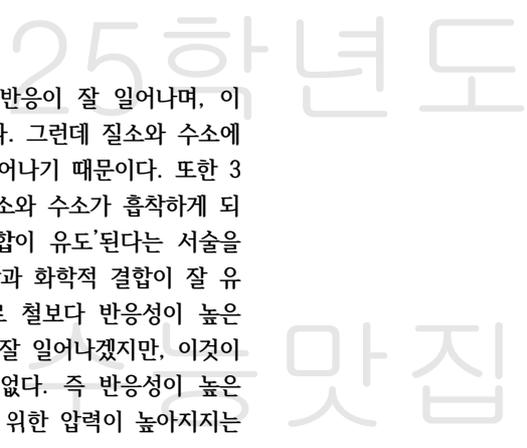
③ ①의 ATP단백질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질소의 결합을 끊는 역할을 한다. 반면 ⑦에서 압력은 반응 평형을 암모니아 생성 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로, 에너지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④ ⑦에서는 고온과 촉매를 통해 질소를 분해하지만, 수소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⑤ ⑦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도 식물이 흡수하여 아미노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이 화학비료의 주요 역할이며,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4. ⑤

⑤는 본문에서 ‘어떤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보존되거나 변함없이 계속되어 지탱된다.’로 쓰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한 이후 폭발하여 형성된 초신성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탄생한다. 별의 핵은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별이 초신성이 되어도 핵의 중력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힘에 의해 별을 구성하는 원자 내부의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 중성자로 변하면서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성자별은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다. 야구장의 한 가운데 야구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야구장은 원자가 되고, 가운데에 놓인 야구공은 그 중심이자 양성자를 가진 원자핵이며, 그 야구공 주변에 있는 작은 먼지들이 전자이다. 그런데 원자인 야구장이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그대로 야구공 크기만큼 줄어들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야구공 크기에 야구장의 질량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별이 생전에는 별을 이루는 물질들이 중력을 벗어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므로 중력에 저항하여 원자들의 형태가 유지되지만, 초신성이 된 이후 이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중력에 의해 원자의 형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에따라 전자와 양성자가 강제로 결합되어 중성자가 된다. 중력과 질량은 비례하므로 수명이 다하기 이전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클수록 중성자별의 부피는 작아지고, 그만큼 밀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중성자별은 펄서와 마그네타가 있다. 중성자별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중력은 태양보다 크기 때문에 엄청난 자전속도를 가지고 있다. 생전에 중력이 강했던 별일수록 중성자별이 된 이후 자전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러한 자전 속도로 인해 별 표면의 철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이 아주 강하게 방출된다. 중성자별의 자기장 축을 기준으로 남쪽에서 자기장이 방출되어 북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는데, 이 자기장축은 중성자별의 회전축과 일치하지 않아 중성자별이 회전하다가 자기장축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구의 전파 망원경에 중성자별의 자기장에 의한 전자기파가 관측된다. 이러한 주기성은 원자시계보다도 정밀한데, 위와 같은 형태의 중성자별을 ㉠ 펄서라고 하며, 펄서의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주기는 펄서의 회전 주기와 같고 전자기파의 관측 지속 시간은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폭 안에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이 머물러 있는 시간과 일치하는데, 그 지속 시간은 중성자별의 회전 주기보다 훨씬 짧다.

㉡ 마그네타는 중성자별 중에서도 유달리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는 중성자별이다. 보통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이며 무거운 원소의 함량이 태양보다 1.2배가 넘는 별에서 관측된다. 마그네타는 지구 자기장의 수백조배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부의 원자들은 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도넛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며,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에너지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 수 년에서 수십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전자기파의 방출 주기가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마그네타의 활동 주기는 약 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수명이 다한 마그네타는 활동을 멈추게 된다.

중성자별은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와중에도 주변 물질을 계속 빨아들인다. 이로 인해 중심핵의 질량이 지속적으로 무거워지는데, 질량이 특이점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내부의 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더욱 수축하여 중력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초속 30만Km의 속도를 가진 빛조차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핵으로 빨려들어가게 되어 별의 주변은 완전한 암흑으로 변하게 된다. 이를 블랙홀이라 한다.

-25 수특 유형3 펄서 변형.제작문항-

1.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펄서에 비해 마그네타는 중력 수축 과정에서 더 큰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펄서보다 클 것이다.
- ② 펄서는 상대적으로 마그네타에 비해 중력이 작을 것이므로, 펄서의 주변은 밝게 빛나겠지만, 마그네타의 주변은 강한 중력으로 인해 암흑으로 보일 것이다.
- ③ 중성자별의 회전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중심핵의 질량이 무거워지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자기파의 방출로 인해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 ④ 마그네타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므로 자기장축의 변화에 따라 지구에서 관측할 때 자기장이 방출되는 쪽과 들어가는 쪽이 번갈아 보일 수 있다.
- ⑤ 관측되는 전자기파의 지속 시간이 전자기파의 실제 방출 주기보다 짧은 이유는 펄서의 자전 과정에서 전자기파의 회전축이 지구를 향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더 적다.
- ② ㉠은 ㉡에 비해 약한 에너지를 발산하므로 수명이 더 짧다.
- ③ ㉠과 달리 ㉡은 자기장축이 회전축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내부 원자들이 도넛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태양에 비해 질량이 더 크다.

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야구장이 압축되어 야구공에 먼지가 붙게 되는 것은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지는 것과 같다.
- ②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 물질이 압축되지 않을 것이다.
- ③ 매우 작은 크기의 중성자별은 이 별보다 더 큰 중성자별에 비해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
- ④ 별의 질량이 클수록 압축시키는 힘이 커지며, 이는 야구장이 클수록 압축시키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한 것과 유사하다.
- ⑤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일수록 더 많은 중성자를 내부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성자별 A와 B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중성자별 A, B의 특징이다. 관측 기간은 1999년부터 2024년이다.

A: 전자기파가 2초 간격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24년까지 관측 주기가 변하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A의 자전 주기는 1억년 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B: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자기파가 0.9초마다 관측되었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0.5초마다 관측되었다. 2021년부터는 다시 0.9초 간격으로 관측되고 있다.

- ① A가 1억년 전에 비해 자전 주기가 빨라진 것은 지속적으로 주변 물질들을 빨아들였기 때문이겠군.
- ② B의 전자기파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0.5초마다 관측되었다는 것은 강한 자기장으로 인한 에너지의 폭발 때문이겠군.
- ③ A의 자전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진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자기파의 방출 주기가 한시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군.
- ④ A가 B에 비해 전자기파의 관측 주기가 더 길다는 것은, A가 B보다 먼저 중력 붕괴가 일어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군.
- ⑤ 만약 B의 관측이 2021년부터 이루어졌다면 B가 A와 마찬가지로 원자시계보다 정밀한 주기성을 가지는 중성자별로 판명되었을 수도 있겠군.

1. ⑤

펄서의 전자기파는 펄서가 자전하는 중에 자기장축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할 때 관측된다. 실제 전자기파의 방출 주기는 펄서의 회전 주기와 일치하지만,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전자기파는 자기장축이 지구 방향을 향할 때 뿐이므로 실제 전자기파의 방출 주기보다 관측 주기가 짧을 것이다.

- ① 자전속도와 자전 주기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마그네타는 펄서보다 자전 주기가 작을 것이다.
- ② 주변의 빛이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중성자별이 블랙홀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 ③ 중심핵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력이 증가하는 것과 같고, 이는 중성자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다. 중성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없다.
- ④ 자기장축은 변화하지 않는다. 중성자별의 자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이지, 자기장축은 변화하지 않는다.

2. ⑤

중성자별은 모두 태양보다 큰 중력을 가지고 있기에 태양에 비해 질량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① ㉠의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마그네타의 무거운 원소 함량은 태양보다 1.2배가 더 많다고 서술되어 있다.
- ② ㉠이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활동 주기가 만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수명이 더 짧다.
- ③ ㉠과 ㉡ 둘 다 자기장축과 회전축이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내부 원자들이 도넛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뿐이다.

3. ④

야구장은 중성자별이 아니라 원자에 해당한다. 야구장이 커지면 원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중성자별의 크기가 커진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 또한,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상관이 있지, 부피의 크기와 무관하다.

- ① 야구공은 양성자를 가진 원자핵, 먼지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야구장이 압축되어 야구공에 먼지가 붙게 되는 것은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지는 것과 같다.
- ②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력에 저항하여 원자들의 형태가 유지되기에 물질이 압축되지 않는다.
- ③ 밀도와 질량은 비례하기에 매우 크기의 중성자별은 이 별보다 더 큰 중성자별에 비해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밀도가 높아질수록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에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일수록 더 많은 중성자를 내부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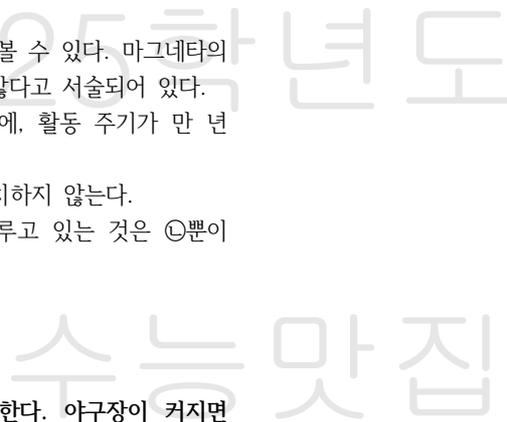
4. ④

본문에서 펄서의 관측 '주기성은 원자시계보다 정밀'하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관측 주기가 변화하지 않은 A가 '펄서'라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면 B는 '마그네타'가 됨을 알 수 있다.

관측 주기가 짧다는 것은 자전 주기가 짧은 것을 의미한다. 자전 주기가 짧으면 중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홀은 질량이 특이점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해야 하는데, 자전 주기가 더 짧은 B가 질량이 더 크다는 것이므로 B가 블랙홀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다.

- ① A의 자전 주기가 빨라진 것은 A가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 물질을 계속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 ② 2010년부터 2020년까지 B의 전자기파의 방출 주기가 변한 이유는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에너지가 폭발하였기 때문이다.
- ③ A의 자전 주기가 감소한다면 자전 속도가 증가하고, 이는 자기장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마그네타의 성질로 변화할 수 있다.
- ⑤ 2021년부터 B를 관측하였다면, 관측 주기가 변화하지 않았기에 정밀한 주기성을 가지는 펄서로 판명되었을 수도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소리 혹은 파동이다. 초음파는 소리의 파동이므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하다. 매질의 특성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차이가 나며, 동일한 매질 내에서는 동일한 전파 속도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는 물체로, 의료용으로 인체 내부의 구성 요소를 매질로 활용해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기가 있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생성하는 탐촉자*를 검사 부위에 밀착시켜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체는 수분과 더불어 지방, 혈액, 근육, 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65%를 차지하는 수분의 경우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지방보다 미세하게 빠르지만 혈액에 비해서는 약간 느리다. 근육과 뼈는 이들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르는데, 이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뼈이다.

탐촉자에서 송신한 초음파 빔은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조직의 경계면에서 반사되거나 조직 내에서 산란되어 돌아오는데, 이때 매질의 밀도와 매질 내의 전파 속도를 곱한 값인 음향 저항이 작용한다. 음향 저항의 경우 지방, 물, 혈액, 근육, 뼈 순으로 세진다. 음향 저항이 서로 다른 두 조직의 경계면에 초음파가 입사되면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투과될 때에는 두 매질 사이에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클수록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가 증가한다. 결국 같은 매질 내에서는 같은 전파 속도를 가지므로 음향 저항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두 매질 간의 밀도 차이이다. 즉 초음파 검사기는 피부를 투과한 초음파의 반사파 세기를 통해 인체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부·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과 공기 간의 음향 저항의 차이는 지방과 공기의 음향 저항의 차이보다 크므로,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보다 공기와 피부의 경계면에서 반사파의 세기가 더 크다. 따라서 초음파를 인체 내에 투과하기 위해 ㉠ **점성이 높은 초음파용 젤을 바르는 것도** 탐촉자와 피부 사이의 공기로 인한 음향 저항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한편, 초음파 검사 영상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초음파 빔이 표면에 균일하지 않은 반사면에 부딪히거나 초음파 파장보다 크기가 작은 산란체를 만났을 때 흩어지는 산란의 강도가 ㉡ **커야** 한다. 산란은 두 조직의 경계면이 아닌 조직 내 표면의 울퉁불퉁한 부위에서 발생한다. 산란 강도는 주파수의 네제곱에 비례하므로 주파수를 높일수록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초음파의 산란 강도는 조직마다 상이한데, 보통 혈액이 가장 작고 지방이 가장 크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초음파 검사 시에 최소 8시간 이전 물을 포함해 금식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음식이나 물 등이 위장에 차 있으면 초음파의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의료용 초음파 검사는 간, 담낭, 췌장 등 복부 내장 장기를 검사하는 복부 초음파, 목 부위의 갑상선을 검사하는 갑상선 초음파, 심장병 및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 등을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 혈관의 혈류 속도와 혈관 벽의 상태를 확인하는 혈관 초음파 등이 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음파를 활용한 간접 검사이기 때문에 질병의 대략적인 유발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조직의 밀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밀한 검사를 요구할 때는 주파수 영역이 초음파에 비해 훨씬 높은 라디오파를 활용한 자기 공명 영상(MRI) 검사 혹은 인체 내에 직

접 카메라를 집어 넣어 장기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검사를 사용한다.

-25. 수완 실전 5 '인체 진단용 초음파' 변형.제작문항 -

- *매질: 파동 또는 물리적 작용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는 매개물
- *탐촉자: 초음파를 발생시켜 송신하고 되돌아오는 음파를 수신하는 장비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음파 빔이 반사되는 정도는 뼈와 근육 사이보다 물과 지방 사이가 더 작다.
- ② 초음파 검사는 동일한 매질 내에 전파 속도가 같지만, 다른 매질 간에는 이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이다.
- ③ 인체 내의 구성 요소들의 비율은 다른 구성 요소들을 합친 것보다 수분이 더 많다.
- ④ 초음파 검사 영상 화면에서 혈액은 흐릿하게 보일 것이고, 지방은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 ⑤ 공기의 초음파 전파 속도와 밀도는 근육의 전파 속도와 밀도보다 클 것이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체 외부와 내부에서 초음파의 저항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 ② 인체 내부의 매질에 따라 초음파의 투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 ③ 탐촉자와 피부 사이의 밀도 차이를 줄여 음향 저항을 낮추기 위해
- ④ 초음파를 인체 내부로 투과시키기 위해 피부 위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 ⑤ 초음파를 공기와 피부 사이의 경계면을 투과시켜 반사파의 세기를 줄이기 위해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수는 최근들어 몸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상담 결과 지방간 의심 소견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영호는 최근들어 목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게 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경민이는 방광에 이상을 느껴 하복부 초음파를 받기로 하였는데, 의사는 하복부 초음파의 경우 다른 초음파와 달리 방광 내 가스를 제거해야 하므로 검사 전에 물을 많이 마실 것을 권하였다.

- ① 철수가 초음파 검사를 받기 4시간 전에 빵을 먹었다면 먹지 않았을 때보다 동일 부위에서 초음파의 음향 저항과 산란 강도가 달라졌을 수 있겠군.
- ② 영호는 갑상선 초음파를 통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검사 이후에도 정확한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의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겠군.
- ③ 철수가 실제로 지방간을 앓고 있었다면, 지방간이 없는 간에 비해 초음파의 산란 강도가 더 약하겠군.
- ④ 경민이가 방광이 아닌 담낭 쪽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초음파의 반사파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섭취하지 않았겠군.
- ⑤ 경민이와 영호는 초음파를 쉽게 투과시키기 위해 탐촉자의 접촉 부위에 초음파용 젤을 바를 것이고, 그 부위는 상이하겠군.

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늘 하준은 큰 결심을 했다.
- ② 중국요리는 크게 광둥요리, 사천요리 등으로 나뉜다.
- ③ 누군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 ④ 이번 일은 네 책임이 크다.
- 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1. ⑤

음향 저항은 전파 속도x밀도이다. 그런데 공기-근육 음향 저항 차이가 공기-지방 차이보다 큰데, 3문단에서 음향 저항이 근육이 더 크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공기의 음향 저항은 근육보다 작고 지방의 음향 저항에 더 가까운 크기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기의 전파 속도와 밀도가 근육보다 클 수 없다.

① 두 매질 사이의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클수록 반사되는 정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수분(물)과 지방 사이의 음향 저항이 더 작으므로 반사되는 정도도 더 작을 것이다.

② 첫 번째 문단에, 초음파 검사는 '매질의 특성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차이'를 이용하는 물체라고 서술되어 있다.

③ 인체 내에서 수분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④ 초음파의 산란 강도가 커야 검사 영상이 선명해지는데, 산란 강도는 혈액이 가장 작고 지방이 가장 크기에 혈액은 흐릿하게 보이고, 지방은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2. ①

피부·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과 공기 간의 음향 저항의 차이가 지방과 공기의 음향 저항의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을 시행한다.

③ 탐촉자와 피부 사이의 밀도 차이가 줄지도 않고, 애초에 공기와 피부 사이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 탐촉자는 무관하다.

3. ③

지방간은 일반 간보다 지방이 더 쌓여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은 산란 강도가 높기 때문에, 철수가 실제로 지방간을 앓고 있었다면, 초음파의 산란 강도가 더 강했을 것이다.

① 철수가 초음파 검사를 받기 전에 빵을 먹었다면 초음파의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음향 저항과 산란 강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② 영호는 목 부위의 갑상선을 검사하는 갑상선 초음파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정확한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면 자기 공명 영상이나 내시경 검사를 사용할 것이다.

④ 경민이가 담낭 쪽 문제로 방문했다면 가스 제거가 필요 없기에 초음파의 반사파에 방해하는 물을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⑤ 경민이와 영호는 음향 저항의 차이를 고려해 탐촉자의 접촉 부위에 초음파용 젤을 바를 것이고, 경민이는 복부 초음파, 영호는 갑상선 초음파를 하기에 그 부위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4. ④

'(일이) 규모나 범위, 정도가 대단하거나 심하다.'으로 쓰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중 고체는 특정 조건에서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값인 에너지준위가 일정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에너지띠라고 하는데, 이러한 에너지띠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물체가 반도체이다.

㉠ **반도체**는 항상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인 전기전도율을 기준으로 전도율이 ㉡ **도체**보다는 낮고, 저항값이 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 **부도체**보다는 큰 물질을 말한다. 반도체와 부도체는 도체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자에 대한 저항이 낮아진다. 이는 전자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에너지를 얻은 전자는 원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며 전자의 흐름에 참여하게 된다. 도체는 전자가 물질을 타고 이동할 때 원자에 부딪혀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항으로 인해 전기적 손실을 보게되고 온도가 올라간다. 또 온도가 높아질 수록 도체 내부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 분자들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도체는 저항이 커지고 반도체와 부도체는 저항이 작아진다.

파울리 배타 원리에 의하면 하나의 상태에서는 둘 이상의 전자가 공존할 수 없다.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에너지준위가 겹치게 되고, 이로 인해 원자 내부의 전자들 사이에 미세한 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연속된 층이 바로 에너지띠이다. 고체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 특정한 상황에서 에너지띠들이 일정한 분포를 띠게 된다. 이때 원자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여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 원자의 위쪽에서 전자가 비워져 있으면서 높은 에너지준위를 가진 띠를 전도띠라고 한다.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 약간의 에너지만으로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하는 도체와 달리 반도체는 두 띠 사이에 일정한 틈이 있다. 이를 띠틈이라 한다. 하지만 반도체는 부도체에 비해 띠틈의 크기가 작아서 상온의 열에너지만으로도 전자가 이동이 가능한데, 상온에서는 약간의 전자가 전도띠로 건너와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 전기가 통한다. 여기서 온도를 더 높여주면 더 많은 전자가 전도띠로 건너뛰어 자유전자가 되고 반대로 온도를 낮춰주면 전도띠의 자유전자가 원자가띠로 떨어지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어떠한 온도를 기준으로 그 온도 이상에서는 전기가 비교적 잘 통하고, 필요한 값 미만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최외각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라 하는데, 이러한 고유 반도체에 다른 물질을 소량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 하며, 도핑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 한다. 불순물 반도체 중 n형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만드는데, 이로 인해 전자가 하나 남게 되어 이 남은 잉여 전자가 사방으로 퍼지며 이동하게 된다. 반면 p형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가 3개인 붕소(B)를 **㉦첨가하는데**, 이로 인해 고유 반도체에서 결합하지 못한 전자의 자리에 빈 공간인 정공이 생긴다. 정공은 전자와 달리 양전하(+)를 띠며, 이 정공 안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이동한 전자의 빈 공간에 생긴 정공으로 다른 전자가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로

인해 n형은 음의 성질을, p형은 양의 성질을 띠는 반도체가 된다.

산업현장에서는 이 두 반도체를 결합한 p-n형 반도체를 사용한다. 두 반도체의 접합 부분은 p형 반도체의 정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서로 끌어당겨 재결합하면서 평형 상태가 되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공핍 영역이 생기는데, 이때 정공에는 양전하를, 전자에는 음전하를 가하는 정방향 전압을 흘리면 공핍 영역에 있던 전자는 음의 전류에 밀려나고 정공은 양의 전류 반발하여 반대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25 수특 과기10 '반도체의 전기전도도' 변형.제작문항-

1. **윗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액체나 기체인 물질은 고체에 비해 에너지준위가 일정한 분포를 보이지 않아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 띠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 원자들끼리 인접하게 되면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이 겹치게 되어 원자 내부에 있는 음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층이 생기게 된다.
- ㉢ 반도체에 비해 전기전도율이 높은 물체는, 물체 내 전자들이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
- ㉣ 전자가 띠틈을 건너뛰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려야 하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가띠의 자유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여 전기가 통하게 된다.
- ㉤ 반도체를 만들 때 도핑을 하는 물질에 따라 빈 공간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빈 공간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 ㉠ ㉠의 전기전도율이 높아진다면 고온에서 저항이 높아질 수 있다.
- ㉡ ㉡에 비해 ㉢은 띠틈의 크기가 커서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것이다.
- ㉢ ㉢은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전자를 더 쉽게 운반할 것이다.
- ㉣ ㉣은 온도가 변화할 때 저항의 크기가 ㉤과 유사하게 움직일 것이다.
- ㉤ ㉤은 ㉠에 비해 원자가띠의 전자 개수가 적을 것이다.

3. 위 글을 토대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형	- - + + - - + + - - + + - - + + 공핍영역	n형
----	--	----

<그림>

발광 다이오드는 정방향 전압을 흘려주었을 때 반도체 소자에 결합되어 있는 광물질에서 빛을 내는 물체이다. 발광 다이오드에 들어 있는 반도체는 p-n형 반도체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위 <그림>과 같은 상태로 전자와 정공이 반도체 내에 존재하고 있다.

- ① 발광 다이오드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가 잘 통한다면 이는 반도체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겠군.
- ② 정방향 전압을 흘리면 공핍 영역에 있던 정공은 전압에 이끌리고, 전자는 밀려나면서 전류가 흐르겠군.
- ③ p-n형 반도체에 역방향 전압을 흘리면 공핍영역 내 전자와 정공이 전압에 이끌리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겠군.
- ④ 반도체 내의 전자들이 원자가띠에만 머물러 있다면 발광 다이오드의 광물질은 빛을 내지 못하겠군.
- ⑤ 만약 고유 반도체로 발광 다이오드의 소자를 만든다면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일정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군.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사하여
- ② ㉡: 발생하게
- ③ ㉢: 지니게
- ④ ㉣: 더하는데
- ⑤ ㉤: 번지게

1. ④

자유전자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원자가띠에 자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① 3문단에 따르면 고체는 원자 사이 간격이 좁아 에너지띠들이 일정한 분포를 이룬다. 액체나 기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에너지띠들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다면 띠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환원 point를 잡으면 된다.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 = 에너지준위, 원자 내 음전하를 띠는 물질 = 전자. 따라서 2번 선지는 파울리 배타 원리에 관한 설명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③ 반도체에 비해 전기전도율이 높은 물체는 도체이다. 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 약간의 에너지만으로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하며, 이는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⑤ 도핑은 고유 반도체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이다. 빈 공간은 정공을 말하는 것으로, 선지에서 말하는 반도체는 p형 반도체이다. 정공이 생기면 음전하인 전자가 정공으로 이동하고, 또 전자의 이동으로 생긴 빈 공간을 다른 전자가 채우는 것이 반복되어 전류가 흐르게 된다.

2. ①

반도체는 전기전도율이 도체보다는 낮고, 부도체보다는 높다. 전자는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를 얻는데, 에너지를 얻은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이때 도체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도체 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저항이 높아진다. 따라서 반도체 역시 전기전도율이 높아진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② 4문단에서 반도체는 부도체에 비해 띠틈의 크기가 작아 상온의 열에너지 만으로 전자가 어느 정도 전도띠에 존재한다고 한다. 이를 역추론하면 부도체는 띠틈의 크기가 커서 전도띠로 전자가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③ 도체는 고온일수록 저항이 커져 전자의 움직임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도체는 저온일수록 전기전도율이 크고, 전자의 이동도 쉬울 것이다.

④ 온도가 상승할 때 도체는 저항이 커지고, 반도체, 부도체는 작아진다. 이 둘은 반비례 관계이다.

⑤ 원자가띠 내의 전자 개수가 물질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상온을 기준으로 반도체는 전자 일부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차라리 원자가띠 내의 전자 개수는 반도체가 더 적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②

정방향 전압은 양인 정공에는 양전하를, 음인 전자에는 음전하를 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정공과 전자는 밀려나게 되어 p형(+)과 n형(-)의 정공과 전자들이 뒤섞여 전기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정공은 전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반도체는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 전자가 전도띠에 존재하지만, 여기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전자가 띠틈을 뛰어넘어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가 잘 통한다면 이는 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정방향 전압이 정공에 양전하, 전자에 음전하를 주는 것이므로 역방향 전압은 정공에 음전하, 전자에 양전하를 가하는 전압일 것이다. 그러면 위 그림에 있던 공핍 영역의 정공(+)과 전자(-)가 각각 전압에 이끌리면서 분리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④ 반도체에 전기가 발생하려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띠틈을 넘어 전도띠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가 원자가띠에만 머문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이고, 이는 발광 다이오드의 광물질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⑤ 고유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가 4개이다. 여기에 도핑을 통해 최외각 전자의 수가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 n형 또는 p형 반도체이다. 당연히 고유 반도체를 통해 발광 다이오드를 만든다면 전자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4. ⑤

⑤는 '(선이나 관 따위에 전기나 전류가) 통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다.'으로 '액체가 묻어서 차차 넓게 젖어 퍼지다.'의 뜻을 가진 번지다로 바꾸어 쓸 수 없다.

현대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 않겠습니다
옷깃 부둥키며 ㉡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뭉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2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 앞지르겠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
강보에 ㉤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 김선우, 「낙화, 첫사랑」

(나)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A]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별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B]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C]

[D]

[E]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F]

- 오세영, 「등산」

*자일: 등산용 밧줄.

-25 수특 갈복7 '낙화,첫사랑', 실전1 '등산' 변형.제작문항-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중심 제재에 대한 우의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중심 제재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짐을 부각하고 있다.

2. ㉠ ~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반복을 통해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에서 부정문 형식을 사용해 '추락하는 그대'를 붙잡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떠나는 '그대'를 앞질러 쟁취하겠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에서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헌신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에서 비유법을 사용하여 '내 생을 사랑하'겠다는 행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A] ~ [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은, [B]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 ② [B]에서 빛을 찾아 움직이는 것은, [C]에서 무명을 더듬는 것과 상반된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무명을 더듬는 것은, [D]에서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 행위와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함부로 쳐다보지 않는 행동은, [E]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⑤ [E]에서 얻은 깨달음은, [F]에서 가까이만 가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4. <보기>를 토대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생에 대한 성찰은 시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가)는 떨어지는 꽃에 빗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얻게 된 정신적 성숙을 형상화하여, 첫사랑의 실패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별의 고통마저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산을 오르며 느끼고 깨달은 바를,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등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통해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 ① (가)의 '사랑의 뒷'은 이별을 수용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나)의 '생애의 중량'은 고난과 번뇌로 흔들리는 인생으로 의미가 담겨 있군.
- ② (가)의 '아기'는 정신적 성숙을 통한 결과로 형상화되는 것으로, (나)의 '빛'은 삶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군.
- ③ (가)에서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별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것을, (나)에서 '다만 가까이'만 하는 것은 산을 오르며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에서 '온몸으로 나를 받겠'다는 것은 정신적 성숙으로 깨달은 바를, (나)에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가는 것은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군.
- ⑤ (가)에서 '그대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첫사랑의 실패를 수용하는 모습을, (나)의 '무명'은 등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군.

1. ㉔

(가)는 첫사랑과의 이별을 낙화로 비유하며 이별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암벽을 타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진리를 찾아 확장하는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㉓

㉓의 표현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역설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쟁취하려는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켜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3. ㉕

[E]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는 [F]에서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순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4. ㉒

(나)의 '빛'이 인생의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가)에서 '아기'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해야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로 쓰인 대상일 뿐이지, 정신적 성숙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25학년도

수능맛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扶餘)를 숙신(肅愼)을 발해(渤海)를 여진(女眞)을 요(遼)를
금(金)을
흥안령(興安嶺)을 음산(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
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
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胎盤)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낮 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
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흥안령을 ~ 송가리를: 중국 북부에 위치한 산맥과 강 등을 일컫
음.

*장풍: 창포.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뿌리는 약용하고 단오
에 창포물을 만들어 머리를 감거나 술을 빚음.

*오로촌: 오로촌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멧돌: 멧대지.

*솔론: 솔론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앞대: 평북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강원도에서
부터 제주도까지에 이르는 각지.

*보래구름: 보랏빛 구름.

(나)

아프리카 탕가니카호(湖)에 산다는
폐어(肺魚)는 학명이 프로토포테루스 에티오피쿠스
그들은 폐를 몸에 지니고도
3억만 년 동안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 네 발 대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 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쉬며
고생대(古生代) 말기부터 오늘까지 살아
어느 날 우리나라의 수족관에
그 모습을 볼썽 드러냈다
빨 속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프로토포테루스 에티오피쿠스여 빨 속에서
수십 년 견디는 우리는
그렇다면 30억만 년쯤 진화하지 않겠구나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겠구나

- 오규원, 「물증」

-25 수특 현시7 '북방에서~', 수완 실전2 '물증' 변형.제작문항-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맞춰 화자의 사고가 전개되고 있다.
- ② (가)는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나)는 고유명사를 활용하여 반성의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내부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 ④ (가)는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유추적 발상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흥안령'은 화자가 떠난 장소를, (나)의 '탕가니카호'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드러낸다.
- ② (가)의 '그동안'은 화자가 특정 공간을 떠난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것과 관련이 있다.
- ③ (나)의 '수족관'은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현실을 벗어난 지향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이웃'은 현재 부재하는 대상을, (나)의 '폐어'는 화자와 동질성을 가진 존재를 드러낸다.
- ⑤ (가)의 '태반'은 '나'가 원래 있던 공간을 나타내고, (나)의 '고생대'는 오래전부터 변화가 없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에서 동일시의 대상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는 우리 민족과 화자를 동일시하며 광활한 북방을 떠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는 상황을 상상적으로 묘사하며, 다시 외압에 의해 북방으로 쫓겨난 현재 상황을 통해 안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온 민족의 역사를 성찰하고 있다. (나)는 수족관에서 우연히 바라본 ‘폐어’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하여 자조적 인식을 바탕으로 삶에 안주하는 현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가)에서 ‘아득한 옛날에’ ‘배반하고 / 속이고’ ‘떠’났다고 표현한 것은 광활한 북방의 터전을 떠난 민족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나)의 ‘네 발 대신’은 폐어가 진화를 포기한 결과로, 현대인의 삶이 어느 순간 정체되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오늘까지 살아’있게 되는 원인에 해당한다.
- ③ (가)에서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련도 없’다는 것은 북방을 저버릴 당시의 생각으로, 새로이 정착한 터전에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④ (가)의 ‘아득한 새 옛날’은 외적 요인에 의해 근원적 공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나)의 ‘빨 속’은 ‘우리’로 시상의 초점이 확장되어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가)에서 ‘낮잠’을 자고 ‘절을 하’는 행위는 안일한 삶을 표상하는 것이며, (나)에서 ‘진화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화자를 포함하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1. ④

(가)의 화자는 '아득한 옛날'에 자신이 떠났다는 것, 떠난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온 현재 느끼는 후회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떠난 행위의 시점인 과거부터 돌아온 현재까지 통시적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③

(나)의 '수족관'은 성찰의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을 벗어난 지향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수족관은 오히려 현실의 공간에서 폐어를 보며 성찰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① (가)의 '흥안령'은 광활한 북방을 가르키는 장소 중 하나로, 화자가 떠난 장소라는 것을 같은 연에서 '떠났다'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나)의 '탕가니카호'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프로 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가 원래 사는 곳을 지칭하기에 대상에 대한 정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그동안'은 화자가 북방을 떠나 한반도에 가 오랜 세월이 흐른 것과 관련이 있다.

④ (가)의 '이웃'은 같은 연에 '없다'라는 단어를 통해 부재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고, (나)의 '폐어'는 마지막 다섯 개의 행을 통해 화자와 동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태반'은 태아와 모체의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북방에 비유한 말이다. 화자에게 북방은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나)의 '고생대'는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3. ②

(나)의 '네 발 대신'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 진화를 포기한 것으로, 현대인의 삶이 정체되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오늘까지 살아'있게 되는 것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언급한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현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① (가)에서 '배반하고 / 속이고' '떠'났다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화자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활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한반도로 들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이때 화자인 '나'는 화자 개인보다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련도 없'다는 것은 무심하게 태만한 마음으로 북방을 떠나 안일하게 지내는 당시의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반성적 자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④ (가)의 '아득한 새 옛날'은 외압에 의해 삶의 터전을 떠난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화자가 북방을 다시 찾은 때를 의미하고, (나)의 '빨 속'은 '우리'라는 현대인으로 시상의 초점이 확장되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인 현대인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⑤ (가)에서 '낮잠'을 자고 '절'을 하는 행위는 앞대로 떠나와 안일하게 산 삶을 표상하는 것이고, (나)에서 '진화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대상은 앞에서 '우리'라고 언급하며 시상을 확장한 것을 보아 화자를 포함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薄質)***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滅裂)***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거운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視力)**을 회복한다.

- 박성룡, 「과목」

*박질: '매마른 성질'이라는 의미로 시인이 새로 만든 말.

*멸렬: 찢기고 흩어져 완전히 형태를 잃음.

(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안 되는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 **찰찰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면 순간
오렌지는 ㉣ **오렌지가 아니 되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똥똥**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 신동집, 「오렌지」

-25 수특 현시5 '과목', 수완 실전3 '오렌지' 변형.제작문항-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질적 속성이 변화하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화자를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독백적 서술을 하고 있다.
- ④ (나)는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 대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2. (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박질'은 척박한 과목의 기반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화자가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대상이다.
- ② '비바람'은 과목이 무르익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며, 결실을 위해 대항해야 하는 존재이다.
- ③ '멸렬'은 '빛깔'이 드러나는 배경으로, 자연의 변화를 바탕으로 삶의 순환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 ④ '기적'은 서술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이 이룩한 것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은총'은 과목의 성숙을 빚댄 표현으로, 자연의 변화는 절대자의 개입이 없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가)는 소멸과 조락의 계절인 가을에 과목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나)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 그 사물의 정수를 꿰뚫어 보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가)는 대상의 평범한 모습을 과장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나)의 화자는 일상적 대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취가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에서 '과물들이 무르익'는 모습을 '경악'한다는 표현을 통해 조락의 계절임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군.
- ② (나)에서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고 한 것은 인간이 사물에 대한 본질을 쉽게 파악하기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군.
- ③ (가)에서 '과물들이 무르익'는 '사태'가 '비바람들 속에서' '출렁거'리는 소멸의 모습을 보여주며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화자를 그려내고 있군.
- ④ (나)에서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만이 흘러감을 형상화하면서 화자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군.
- ⑤ (가)에서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화자가 과목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이군.

4. <보기>를 참고하여 ㉠ ~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본질을 탐색하고자 할 때 주체가 가진 인식의 틀이 기준이 된다. 이는 대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의 주관적 틀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나) 시는 이러한 틀을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며 본질 파악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을 대상이 가진 본질로 이해한다면, ㉡과 ㉢의 행위는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의 상황을 극복해야만 ㉣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겠군.
- ③ ㉣은 주관적 틀을 배제하지 못하여 촉발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과 같은 문제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군.
- ④ ㉠은 ㉡, ㉢과 달리 주관성을 배제하고 대상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본질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군.
- ⑤ ㉠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행위이고, ㉣은 본질 파악에 대한 가능성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1. ②

(나)는 오렌지라는 대상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 속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지, 본질적 속성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2. ④

(가)의 화자는 '박질 붉은 황토'와 '비바람', '모든 것이 멀쩡하는 가을' 속에도 '과물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에 경악하고 있다. 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이 성숙해지는 자연에 감탄하는 것으로 이는 '은총', '기적'과 같은 단어로 표현된다. 화자가 과실을 마주하고 '시력을 회복'했다고 언급했으므로 옳은 선지가 될 수 있다.

① '박질'은 척박한 과목의 기반을 드러내는 표현이 맞지만, 화자가 과물의 성숙에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므로 옳지 않다.

② '비바람'은 과목이 무르익기 위한 조건보다는 과목에 과실들이 무르익으면서 겪는 가을의 척박한 환경에 해당한다.

③ '멀쩡'은 자연의 변화를 바탕으로 삶의 순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과목에 과물이 무르익는 것과는 대비되는 '소멸'의 성질을 지닌 시어로, 화자가 과물에 경악하는 정서를 갖는 배경이 된다.

⑤ '은총'은 자연의 변화에 절대자의 개입이 없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 과목의 결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시어이다.

3. ③

(가)에서 '비바람'은 '과물들이 무르익는' '사태'의 장애물에 해당하지만, 과물들이 무르익는 사태가 화자에게 경탄의 대상이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시의 전체적인 정서에도 화자가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어울린다고 볼 수 없다.

① 화자가 '과물들이 무르익는 사태'에 '경악'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간적 배경이 아닌 소멸과 조락의 계절, 가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조락의 계절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마음만 낸다면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거나, 속살을 갈 수 있지만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사물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나, 오렌지가 모두 위험한 상태이며, 시간이 배암의 또 아리를 들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오렌지를 통해 얻는 성취가 지난하고 어려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화자는 대상의 평범한 모습을 과장된 표현으로 강조하며 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력을 회복한다'라는 표현 또한 그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4. ③

㉠은 오렌지의 '잡잘한 속살을 까는' 행위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주체의 주관적 틀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주체가 가진 인식의 틀을 통해 본질을 탐색한다면 대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오렌지가 아니 되는 상황을 언급하기 때문에 ㉠을 옳은 답으로 볼 수 있다.

① ㉠은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로, 화자가 탐색하려는 본질이다. 하지만 ㉠과 ㉡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지, 결과가 될 수 없다.

② ㉡은 오렌지에 비친 '어진 그림자'로, <보기>에서 언급한 본질 파악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다. 하지만 ㉡이 화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은 파악하고자 하는 본질이지, 성찰을 토대로 본질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은 대상의 본질을 주체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해석하는 행위이고, ㉡은 본질 파악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데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기린: 상상속의 동물, 여기서는 거문고를 상징

*잔나비: 원숭이의 순 우리말

(나)

㉠ **뺨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뺨셈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가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돋보기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품위 없는 짓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 **뺨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 김광규, 「뺨셈」

-수특 현시7 '거문고', 수완 실전1 '뺨셈' 연계 변형.제작지문-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경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저항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비유적 시어를 통해 관조적 자세를 지향하고 있다.
- ⑤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2. (가)의 **기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린이 우는 것이 거문고가 우는 것과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기린은 이리떼와 잔나비떼들에 거칠게 저항하며, 이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 ③ 기린은 스무 해 동안 울지 않았으므로, 오랜 시간 무력한 삶을 사는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이다.
- ④ 기린은 밤에 맘 놓고 울지 못하는 존재로, 밝음을 지향하는 화자와 대척점에 있는 대상이다.
- ⑤ 기린이 땅 위에 외로이 있는 것에서 화자의 고독감이 투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자는 기린을 잊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3. ㉠과 ㉡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끝내려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새로이 추구하려는 대상이다.
- ② '밥과 잠'을 추구하는 것이나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③ '문패, 옷가지'와 같은 물질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의 행위를 하기 위한 화자의 고민과 관련이 있다.
- ④ '옛날 서류'를 '아직도' 뒤적이는 것은 화자의 태도가 ㉠에서 ㉡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 ⑤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의 행위가 삶의 본질이 아님을 인식한 것과 관련이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의 제재에는 화자의 관념이 투영되는데, 이때 제재는 구체적인 사물인 경우도 있고, 추상적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가)는 국권을 피탈당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소재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고, (나)는 일상에서 주로 경험하거나 쓰이는 제재에 화자가 생각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검은 벽’은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관념이 물리적 대상에 투영된 것으로, ‘울지를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② (나)에서 ‘뺨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계산이나 수식에서 무언가를 덜어낸다는 제재의 속성을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연관지은 것이다.
- ③ (가)의 ‘이리’와 ‘잔나비’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위협적 인식이, (나)의 ‘부질없는 일’에는 화자가 느끼는 허망함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의 ‘노인’은 현재 부재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들추어 보는 것’은 기품이 없는 행위라는 화자의 관념적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 ⑤ (가)의 ‘문’을 ‘굳이 닫’은 것은 소통을 거부하려는 화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의 ‘저녁’은 일상적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학년도
수능맛집

9. ②

(가)의 '아양'과 '교태'는 임이 변한 이유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나열한 것이고, (나)의 '초가집'은 화자가 '예 놀던 길가에' 짓고 머물고 있는 공간을 나타낸다.

④ (가)의 '풋짐'은 화자의 소망이 입을 만나는 것이라 성취로 보는 것이 허용 가능하지만, (나)의 '옛적 놀이'를 소망의 좌절로 보는 것이 틀렸다. '옛적 놀이'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지 소망과 관련 없다.

10. ②

'쓸쓸한 모래밭'에서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되며, 여기에 기러기가 '내리고'라고 서술하여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파편화된 장면'은 특정 장면들이 연관성 없이 병치된 것을 의미하는데, 각 장면들이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기에 장면의 병치로 볼 수 없다.

11. ④

출납관의 격문에 다른 사람들은 투항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중략 다음 문단에서 마음에만 품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① '천군'이 비답을 내린 이유를 중략 다음 문단에서 '국양'이 근심의 성을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방'이 '천군'의 명령을 듣고 '국양'을 수색하는 이유를 '공방이 국 장군과 친분이 있으니'와 같은 주인공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녹양촌은 '공양'이 머물고 있던 곳이다. 이는 '공양'을 데려오려는 '공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목동'이 '공양'이 머물고 있다고 대답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⑤ '국양'이 무용을 뿜내는 모습을 바다, 강에 빚댄 것은 술이 가지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12. ②

'오던된 계성'은 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서를 심화시킨 것이지 투영이 아니다. 투영은 정서의 '동일시'가 일어나야 한다.

① (가)의 '천상 백옥경'은 작가가 정쟁으로 좌천되기 이전에 머물렀던 장소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은거지에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가 규방에 갇혀 겪는 외로움은 혼자 늘어가는 '난새'에 의탁되어 나타나고, '저녁비'는 위와 같은 정서를 증폭시켜 화자가 현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의 술을 의인화한 '국양' 장군이 '기세등등하게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것은 '성이 항복'하게 하는 결과를 유발하여 부정적 정서가 사라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⑤ (다)의 '슬퍼하던 자'와 '한을 품었던 자'들을 '국양'의 노력으로 심적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인간의 심적 조화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했던 작가의 심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
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
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뿔별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
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송동 길을 걸었다 /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
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향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
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들며 /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나)

재상을 지낸 윤 공이 예전에 곤강 남쪽에 살 곳을 마련했다. 그
동서쪽에 밤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집'
'이라는 뜻의 '울정'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또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살 곳을 새로이 마련했는데, 그 곳에는 밤나무가 더욱 우거
져 있었다. ㉠ 성안에는 밤나무를 심는 집이 드문데, 윤 공은 살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을 골랐다. 그는 일찍이 나에
게 이런 말을 했다.

"봄에는 성긴 가지 사이로 꽃이 비치고, 여름에는 잎이 우거져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가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겨울에는
밤송이로 방에 불을 때지요. 그래서 내가 밤나무가 있는 곳을 고
른다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그에게 말했다.

㉡ "불은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은 축축한 곳으로 흘러가듯이 성
질이 같으면 서로 끌리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높이
는 것과는 틈이 없어지면서 하나가 되는데, 왜 그렇겠소?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고 자라는 풀이나 나무는 모두 같은 성질의 것이
오, 그렇지만 그 뿌리나 싹, 꽃 열매 등은 잘 자라기도 하고 그렇
지 않기도 하고, 이르기도 하고 늦되기도 하는 등 모두 다르다오.
이 밤나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싹이 나며 기르기도 어렵소.
그러나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키우기가 쉽다오.. 잎이 더디게 나
지만 나기만 하면 쉽게 우거지고, 꽃이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열매를 잘 맺고, 열매도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어렵지 않
게 거둘 수가 있지요. ㉢ 이것은 모든 사물이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되고 모자라면 더해지기 때문이려오."

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 때 그의 나이가 서
른 남짓이었다. 그러다가 나이 마흔이 넘어서야 벼슬길에 나왔으
므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너무 늦었다고들 했다. 하지만 윤 공은
벼슬길에 나가 힘써 일했다. 임금께서 이를 보시고 그를 높은 자
리에 앉혔는데, 하루에 아홉 번씩이나 자리를 옮겨 재상이 되었
다. 이는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 우거지는 밤나무와 같다.
기들을 닦는 것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쉬우니, ㉣ 마치 밤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과 마찬
가지인 것이다.

나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다. 나무와 풀의 씨앗이 흙에 너
무 깊이 묻혀 있으면 싹이 트는 것이 늦다. 하지만 싹이 나면 이
후로는 순조롭게 어린잎이 돋고, 어린잎이 돋으면 가지가 생기고
줄기가 만들어진다. 이는 샘물이 웅덩이에 차면 조금씩 넘쳐흐르
고, 흐르다 고이면 못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다.
처음에 느리게 보이는 것은 나중에 빨리 되려는 것이며, 멈추고
있는 것은 앞으로 끝까지 도달하기 위함이다. 이지러진 것은 채워
지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 한 가지 사
물이라도 잘 살피면 이와 같은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이 높이 받드는 것이면 불이 마른 것에 붙고 물이 축축
한 곳으로 흘러가듯이 그것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져서 하나가 되
는 것도 알 수 있다. 윤 공이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귀하
게 된 것은 밤나무의 싹이 나서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 또 밤을
따서 거두고 간직하는 것은 그가 벼슬에 나아갔다가 물러난 것과
비슷하다. 밤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치가
있고, 밤을 거두고 보관하는 것에는 자신의 몸을 수양하는데 유용
한 이치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 집을 보고 이 글을
짓는다.

- 백문보, 「울정설(栗亭說)」

-25 수특 갈복9 '희미한~' 변형.제작문항-

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시민적 태도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위 시는 젊은 시절 부조리에 맞서던 인물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세태에 묻든 채로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양한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① '4.19가 나던 해'는 '차가운 방'과 '열띤 토론'이라는 상반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와 동료들이 현실 문제에 대해 냉철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군.
- ② 화자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젊은 시절의 '고민'이 부질없는 행위였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노래를' '목청껏' 부르던 화자의 행위는 '18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④ 표면적으로는 '안부'와 '월급'과 '물가'를 대화 소재로 삼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이는 화자와 일행이, '목소리를 낮추고 대화하며 '오랜 방향 끝에 되돌아'왔다는 점에서 이면적으로는 저항의 자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화자가 '옛 사랑이 피흘린 곳'에서 '가로수들'이 '고개를 떨구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자의 부끄러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삶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3. 넥타이와 밤나무 숲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넥타이'는 젊은 시절의 심회를 간직하고 있는 소재이고, '밤나무 숲'은 삶의 이치를 함의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② '넥타이'는 이상과 열정을 잃고 생활에 구속된 모습을 상징하는 소재이고, '밤나무 숲'은 인물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공간이다.

- ③ '넥타이'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밤나무 숲'은 부정적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탈속적 공간이다.
- ④ '넥타이'는 정치적인 목적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소재이고, '밤나무 숲'은 특정 인물과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 ⑤ '넥타이'는 평범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소재이고, '밤나무 숲'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이 선호하는 공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님을 드러냄으로써 거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 대상의 발화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 ③ ㉢: 특정 소재와 관련된 특성이 모든 사물로 확장되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특정 인물의 삶이 자연물과 공통적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시작이 어렵더라도 이후에는 그것이 쉬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⑤ ㉤: '나'가 관찰한 것에 대한 사고를 열거하여 '나'가 깨달은 바를 집약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인물의 경험은 인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화자에게 반성적 인식을 불러오고 있고, (나)는 특정 소재와 관련된 경험이 관념적으로 확장되어 글쓴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 ① (가)의 화자는 젊은 시절과 중년이 된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② (나)의 글쓴이는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③ (가)의 화자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연물의 모습에서 이치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 ④ (가)의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통해 과거 지녔던 태도를 상실한 것에 대한 반성이, (나)의 글쓴이는 자연물의 순환에서 느끼는 바를 인간의 삶과 연관지음으로써 나아감과 물러남, 수양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⑤ (가)의 화자는 옛사랑을 희미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과거를 미화하고 있으며, (나)의 글쓴이는 벼슬과 밤나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관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③

(가)에서는 '프라타너스 가로수', (나)에서는 '밤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었다.

2. ⑤

'가로수들'이 '고개를 떨구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일한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삶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열띤 토론'은 냉철한 비판적 태도로 볼 수 없다.
- ② 화자가 어리석다고 생각한 것은 젊은 시절의 고민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기성세대가 되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다.
- ③ 과거의 문제의식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과거와 달리 기성세대가 되어 문제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④ 현재의 저항 의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화자는 현재의 안주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이다.

3. ②

②는 '넥타이'가 기성세대가 되어 이상과 열정을 잃고, 현실에 매여 있는 삶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밤나무 숲'은 윤 공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삶의 공간이다.

④ '넥타이'는 소시민적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기에 정치적인 목적성은 틀렸다고 봐야 한다. '나'가 '윤 공'이 '밤나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나무 숲'은 특정 인물과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4. ①

밤나무 숲이 쉽게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윤 공이 의도적으로 밤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발화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불과 물의 이치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 ③ 풀과 나무와 관련된 특성이 모든 사물로 확장되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유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윤 공'의 삶이 '밤나무'와 공통적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시작이 어렵더라도 이후에 쉬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⑤ '나'가 관찰한 자연물에 대한 사고를 열거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를 강조하고 있다.

5. ⑤

(나)는 맛있지만 (가)가 틀렸다. '미화'는 '사실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이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는 과거의 이상을 상실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② (나)의 글쓴이는 '윤 공'과의 대화를 통해 '밤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노래를 목청껏 부른다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밤나무'의 모습에서 이치를 탐구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통해 반성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자연물의 순환과 인간의 유사함을 보여주며 나아감과 물러남, 수양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흐레 강진장 지나
 장검 같은 도암만 걸어갈 때
 겨울 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황건 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바다갈대의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 들린다
 적폐의 땅 **풍찬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
 스러져 가는 국운,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초근목피*
 어느덧 굴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그래 한잔 들게나 다산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 바랜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정다산(丁茶山) 1762년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
 기민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바람은 차고 바람 새에
 툇날 같은 눈발 섞여 치는데
 일박 사천 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주막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 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 곽재구, 「굴동리 일박」

*초근목피: 풀뿌리를 뜯어 연명한다는 뜻으로, 가난한 민중을 상징함

(나)

배를 민다
 배를 밀어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25수특 현시6 '굴동리 일박' 수완 실전5'배를 밀며'연계.변형문항-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심상을 바탕으로 경험적 사실을 구현하고 있다.
- ② (가)는 자연물에서 느낀 정감을, (나)는 인공적 요소에서 깨달은 부정적 사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공간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강한 단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표현으로 시어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2. <보기>를 토대로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강진 지방을 여행하던 화자가 정약용의 삶을 상상적으로 떠올리며 창작한 작품이다. 화자는 백성들 편에 섰던 목민관이었지만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정약용을 통해 양심적 지식인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민중들을 위한 지식인의 진정한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① 화자가 '강진강'에서 '도암만'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의 경험으로, 다산이 유배지로 이동한 사실을 상상적으로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 ② '바다오리들'이 날며 내는 소리에서 화자는 '창검 부딪는 소리'를 연상하고 있으며, 이는 '황건 두른 의적'의 행위를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과 관련이 있다.
- ③ '풍찬노숙'과 '살 찢기며' 걷는 것은 다산의 힘겨웠던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부릅뜬 눈'은 위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정약용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지명수배자 전단'에 적힌 '인적사항'에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흥흥케'했다는 서술에서 정약용이 탄압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양심적 지식인들을 정약용과 동일시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⑤ 화자가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올바른 지식인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 일어난 것으로, '시대를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태도를 통해 '문풍지'와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3. 다음 <보기>의 시 [A]에 대한 후일담이 (나)라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서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낚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참고-위 시는 13학년도 6평 기출 지문임.

- ① [A]는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나)는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② [A]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밧줄이 날아온 것은 뜻밖에 마주한 만남의 순간이고, (나)에서 '환해진 손'은 배가 떠남으로써 느끼게 된 허전함을 상징하는 것이군.
- ③ [A]에서 사랑의 성취를 통해 '울렁이'던 화자의 정서는 (나)의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는 경험을 함으로써 상반된 정서로 전환되었군.
- ④ [A]의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고 인식하며 순간을 포착한 화자는 (나)에서 '빈 물 위의 흥터'를 인식함으로써 고통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군.
- ⑤ [A]의 '온종일을 떠 있'는 것에서는 화자가 사랑하는 이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나)의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에서는 여전히 떠난 이를 잊지 못함이 드러나는군.

1. ⑤

(가)의 '마음이 더욱 춥다'는 표현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마음'을 '춥다'는 촉각으로 나타내며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고, '마음'을 '옷깃을 세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나)에서 배를 미는 구체적 행위는 '이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2. ⑤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는 양심적 지식인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풍지를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오히려 화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며 지식인의 진정한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화자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취한 것이지,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 것도 아니다. 저항과 비판성을 지닌 문학 작품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한다는 진술은 옳으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는 도피적 태도와 연관이 있다.

① 화자가 '강진강'에서 '도암만'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화자가 겪은 경험으로, 다산이 유배지로 이동한 사실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② '바다오리들'이 날며 내는 소리를 들으며 '황건 두른 의적'이 '창검 부딪는 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③ '풍찬노숙'과 '살 찢기며' 걷는다는 것은 탄압을 받았던 다산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부릅뜬 눈'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백성들 편에 계속해서 서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정약용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지명수배자 전단'에 정약용이 적힘으로써 그가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현실의 양심적 지식인들을 정약용과 동일시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3. ④

[A]의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나)의 '빈 물 위의 흉터'를 인식하는 것은 이별로 인한 상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① 사랑을 [A]의 배를 매는 행위로 구체화시켜서 본다면 (나)의 배를 미는 행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② [A]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밧줄이 날아온 것은 예측할 수도 없이 뜻밖에 마주한 만남으로 볼 수 있고, (나)에서 '환해진 손'은 상대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느끼게 된 허전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 사랑으로 인해 '울렁이'던 화자는 (나)에서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는 이별의 경험으로 사랑과는 상반된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

⑤ [A]의 '온종일 떠 있'는 것은 화자가 사랑하는 이를 온종일 생각하고 있음이, (나)의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에서는 이별 후에도 불현듯 상대가 떠오르고 그리워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피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갈매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 새벽 밑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니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포범: 베로 만든 돛.

*짱크: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의 근처.

(나)

㉠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복어들.

복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허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복어들의 뽀뽀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복어」

(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
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
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
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
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
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
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
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
다. 결국 매미 배처럼 훌쩍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
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중략)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
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가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
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
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
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
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잇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
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
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존양: 본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를.

- 김창흠, 「낙치설」

-25 수득 현시2 '노정기', 수완 실전2 '복어' 변형.제작문항-

1. (가) ~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기뻐던 젊은 날과는 대비되는 자신의 노년을 한탄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자신과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다)는 (가), (나)와 다르게 자신이 상실한 것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 ④ (다)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아쉬움과 그럼에도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동물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앞으로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2. 다음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복어」의 화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대상을 관찰하며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상의 초점을 자신을 둘러싼 내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관찰한 대상의 특징에 착안하여 화자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바탕에는 그러한 속성과 관련된 부정적 현실이 암시되어 확일적이고 창의성이 없는 현대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케케묵은 먼지’는 화자의 비판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싱싱한 지느러미’와는 대조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군.
- ② ‘복어들’을 ‘일 개 분대’가 ‘뿔어져’있다고 말한 것에는, 개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확일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 담겨 있는 것이군.
- ③ 화자가 관찰 대상을 ‘뿔뿔’하다고 본 것은 ‘막대기 같은 생각’으로 이어져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군.
- ④ 화자가 관찰 대상이 ‘느닷없이’ ‘너도 복어’라고 말한다고 인식한 것은 시상의 초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대상의 특징이 현대인의 속성과 이어진다면 ‘죄다 딱딱’하고 ‘말라붙’은 대상의 속성은 현대인의 기계적인 모습을 연상하여 인식한 것이군.

3.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가 그의 젊은 날이 순탄치 않았음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 ② ㉡의 표현을 통해 ㉠에서 화자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처지와 관련된 표현으로, ㉡에서 비유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은 화자는 자신이 복어를 관찰하며 괴리감을 느낀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 ⑤ ㉢은 화자가 복어와 이질감을 갖게 된 계기이다.

4. (다)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체험한 상황을 확장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의 근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가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여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
- ④ ‘나’는 관념적 사고를 바탕으로 늙음을 망각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⑤ ‘나’는 옛 사람의 말을 토대로 현재 상황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현재 처한 상황을 부정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② ㉠과 달리 ㉡는 화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③ ㉠과 마찬가지로 ㉡는 세월의 흐름을 인식하게 한다.
- ④ ㉠과 달리 ㉡는 글쓴이가 반성하는 계기이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와 글쓴이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6.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에 대한 감상을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성찰은 주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느낀 점을 소화하거나, 나아가 상념을 통한 깨달음으로 현재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가)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겪었던 소회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여 과거의 삶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는 말년에 이른 필자가 늙어 기력이 쇠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하며 순리에 따른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글이다.

- ① (가)는 ‘목숨’을 ‘깨어진 뱃조각’으로 느끼고 있는 것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오래 묵은 포범’이 주관적인 삶에 대한 소회라면, (다)의 ‘근심할 만’한 일은 늙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토대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 ③ (다)의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한 것은 글쓴이가 ‘이가 빠진 것’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글쓴이의 경험이 성찰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가)의 화자가 ‘소라 껍질’에 ‘붙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삶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의 필자가 ‘슬퍼’하는 것에서 ‘얼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은 순리에 따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⑤ (가)의 ‘산호도’와 ‘남십자성’은 화자가 추구했으나 이루지 못한 삶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의 ‘잇은 자’와 ‘탄식하는 자’는 필자가 경계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자이다.

1. ③

(다)는 이가 빠진 상황을 다루며, 자신이 상실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와 (나)는 각각 젊은 날의 어려움과 현대인의 무기력한 상태를 다루고 있다.

2. ③

‘빳빳’한 복어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무기력함과 감정이 메마른 상태를 상징한다. ‘막대기 같은 생각’은 이와 연결되어 현대인의 획일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① ‘케케묵은 먼지’는 화자가 복어를 바라보며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복어의 생기 없음을 상징하며, ‘싱싱한 지느러미’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② ‘일 개 분대’가 ‘뿔어져’있다는 표현은 복어들이 개성을 상실한 채 정렬된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획일성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④ 화자는 복어를 바라보며 그것을 자신과 연결 짓고, ‘너도 복어’라고 말하는 순간 시상의 초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다.

⑤ ‘죄다 딱딱’하고 ‘말라붙’은 복어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무기력하고 기계적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

3. ③

㉠에서 화자의 고단한 처지는 ㉡에서 ‘새벽 밑물에 밀려온 거미’에 비유되어 수동적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 이끌려 온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4. ④

‘나’는 늙음을 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늙음을 수용하고 순리에 따른 삶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5. ⑤

㉣에서 복어를 통해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성찰하게 하고, ㉤는 이가 빠진 상태를 통해 삶과 나이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6.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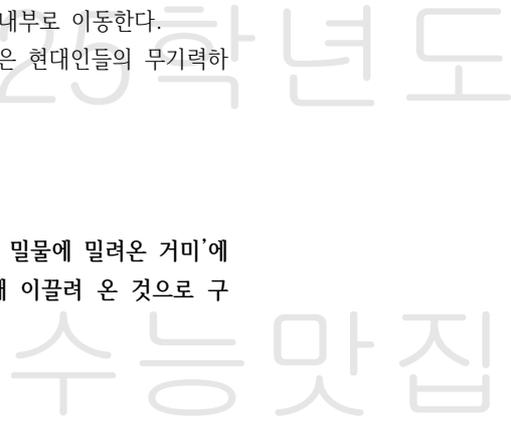
(가)에서 ‘오래 묵은 포범’은 오랜 세월 동안 겪은 주관적인 삶에 대한 소회를 보여준다. 반면, (다)에서는 늙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성찰과 수용의 자세를 보여준다. 늙음을 극복하려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살려는 것이 더 적합하다.

① (가)에서는 ‘목숨’을 ‘깨어진 뱃조각’에 비유하며 자신의 목숨이 무가치함을 보여주며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주자가 눈이 멀어 존양에 전념하게 된 것을 글쓰기가 이가 빠져 성찰을 하게 된 것으로 관련지어 글쓰기가 이가 빠진 경험이 성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가)에서 ‘소라 껍질’에 ‘붙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다)에서 ‘슬퍼’하는 것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인식하며 순리에 따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산호도’와 ‘남십자성’은 이상향을 상징하며, 이를 이루지 못한 삶을 보여준다. (다)에서 ‘잇은 자’와 ‘탄식하는 자’는 필자가 경계하는 삶을 나타낸다.



고전시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 시집살이 어렵데까
 ㉡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고추 당초 맵다 해도 ㉢ 시집살이 더 맵더라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중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세
 동글동글 수박 식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짚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걸어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은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중략)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풀머리 소 이루겠네
 그것도 소이라고 ㉤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떠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할림새: 남의 허물을 잘 고해바치는 사람.

*비사리춤: 비를 엮는 싸리 묶음.

(나)

나의 남원(서울 남산 아래 필동) 집은 옛날부터 꽃나무가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황폐해졌다. 내가 주변이 없고 게을러서 가꾸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낡아서 집 안의 꽃나무까지 가꾸기가 싫어서 그렇기도 하다.

아내가 언젠가 내게 말했다.

“다른 집 남자들을 보면, 꽃나무를 좋아하는 자가 많아 방에 들어가 비녀와 팔찌를 뒤져 사들이기까지 한다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와 반대로 집이 낡았다고 꽃나무까지 팽개쳐 두나요? 집은 비록 낡았지만 꽃나무를 잘 가꾸면 우리 집의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꽃나무를 가꾸려 한다면 집도 손을 봐야 할 게요.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 마음이 없으니 남들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자고 신경 쓸 필요가 굳이 있겠소? 늙기 전에 당신과 고향에 돌아가 집을 짓고 꽃나무를 심어 열매는 따서 제사상에 올리고 부모님이 드시도록 하며, 꽃을 구경하며 머리가 세도록 함께 즐길 생각이요. 내 계

획은 이런 것이요.”

내 말에 아내는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지난해 파주(坡州)에 작은 새집을 짓기 시작하자 아내는 기뻐하며

“이제야 당신의 뜻을 이루겠어요.”

라고 말했다. 뜰과 담장을 배열하고 창문과 방의 위치를 잡는 일을 아내와 상의하여 하였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만 아내가 병들고 말았다. 나는 아내의 병을 간호하다 차도가 있으면 파주로 가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내가 위독해졌다. 임종을 앞에 두고 내게

“파주 집은요? 집 옆에 묻어 줄 거죠?”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온 집안이 파주로 이사 오던 날, 아내는 관에 실려서 왔다. 집에서 백 보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지를 정하니 기거하고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오가는 듯했다.

우리 산에는 아름답디나무가 많아 울창하기 때문에 서도(西道)의 많은 산들 가운데 으뜸이다. 선조고(先祖考) 무덤 아래에 아내의 무덤을 썼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덤 가까운 곳의 나무를 베어, 침낭쿨과 나무 뿌리가 떨어진 그들이 드리우는 것을 막았다. 또 좋지 못한 나무들을 베어 내고 소나무와 삼나무 따위만을 남겨 두자 나무들이 등성 등성 서 있게 됐다. 그래서 다시 나무를 심기로 하여 이듬해 한식 날, 삼나무 치목(稚木) 서른 그루를 심었다. 지금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봄가을에 나무 심는 일을 관례로 할 것이다.

오호라! 이것은 참으로 오래 묵은 계획이었다. 남원을 떠나 파주로 옮기겠다고 떠벌려 왔던 지난날의 내 계획은, 아내와 하루도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 남은 자에게 슬픔만을 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보면 인간이 구구하게 살기를 도모하여 장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혹이 아닌가!

돌아보면 나는 심기가 허약해서 스스로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다. 여생이라야 수삼십 년을 넘지 않을 것이고, 한번 죽고 나면 그 뒤로는 천년 백 년 끝이 없는 세월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겠으니 남원 집에서 파주 집으로 옮겨 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서는 파주의 집에서 살지를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파주의 산에서 서로 살 수 있기에 그 즐거움이 그지없다. 이것이 내가 무덤을 새로 쓴 산에 나무를 심고, 집에 심었던 것을 종류에 따라 하나같이 산에다 옮겨 심는 까닭이다. 그렇게 하여 나의 꿈을 보상받고, 나의 슬픔을 실어 보내며, 또 나의 자손과 후인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하노니 손상치 말지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대는 앞으로 살아갈 방도는 꾀하지 않고 사후의 일만 계획한다.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으니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말한다.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다.”

계축년(1793) 4월 3일, 태등*은 분암(墳菴)에서 쓴다.

*태등: 심노송의 자(字).

- 심노송, 「아내의 무덤에 나무를 심으며」

-25 수특 고시9 '시집살이 노래', 갈북11'아내의~' 변형.제작문항-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규칙적인 리듬감을 드러내어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인물 간 대화를 바탕으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적대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열거의 방식으로, (나)는 비유적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2.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전 행적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상대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발화자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구체적인 숫자를 활용하여 과거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화자가 현실에서 위안을 얻는 존재들을 드러내고 있다.

3. 다음 <보기>를 읽고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해학은 대면한 현실이 자아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 자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을 과장하거나 비꼬아서 전달한다. 이러한 방법은 부정적 상황을 유발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체험하는 자아에 초점을 뒀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동점심과 공감을 유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 ① ‘오 리 물’ ‘십 리 방아’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아가 처한 현실에 대해 동정심을 촉발하고 있다.
- ② 시댁 식구들을 ‘뽕중새’ ‘할림새’등에 빗대어 비꼬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집살이에 대하여 묻는 동생의 질문에 ‘시집살이 개집살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시댁 식구들과 달리 자신을 ‘씩는 새’라고 표현함으로써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자아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⑤ ‘둥글둥글’ ‘도리도리’같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체험을 웃음으로 승화하고 있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것은 ‘나’가 ‘다른 집 남자들’의 행위와 대조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아내’의 편잔을 듣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② ‘창문과 방의 위치를 잡는 일’은 ‘내 계획’의 일부이며, ‘나’와 이를 함께 계획했던 인물은 계획의 완성을 보지 못하게 된다.
- ③ ‘나’가 ‘우리산’에서 ‘다시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은, 이를 ‘관례’로 삼아 ‘나’가 추구하는 ‘장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 ④ ‘살아서는’은 ‘나’가 추구하던 바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고, ‘죽어서는’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는 행위들과 관련이 있다.
- ⑤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 ‘나’가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한 것은 매년 나무를 심는 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는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다양한 방법으로 승화시키며 당면한 현실을 재치있게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성찰적 태도를 통해 승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드러나는 일상적 소재들은 화자가 마주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나)는 ‘꽃나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에 얽힌 회상을 토대로 소재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 ③ (가)는 ‘식기’와 ‘수저’에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나)의 ‘파주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공간으로 글쓴이의 슬픔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가)의 ‘쌍쌍이’ 들어오는 대상은 고달픔을 승화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파주의 산’은 성찰을 통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가)는 열거된 대상들을 재치있게 표현함으로써, (나)는 대화 상황을 가정한 서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 ②

(나)에서는 '나'와 '아내'의 대화를 통해 '나'는 고향에 돌아가 집을 짓고 꽃나무를 심는 것, '아내'는 자신이 파주 집 옆에 묻어주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두 여인의 대화로 이어지긴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나열할 뿐 원하는 바가 나와있지 않다.

2. ②

②은 시집살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맞으나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시집살이 힘드니 이에 대해 말도 마라'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3. ③

'시집살이 개집살이'라는 표현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려는 의도보다는,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힘들음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주고 있다.

- ① '오 리 물'과 '십 리 방아'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시대 식구들을 다양한 새의 이름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은 그들의 성격이나 역할을 비꼬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자신을 '씩는 새'로 표현한 것은 시집살이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며 자아를 주목하게 만든다.
- ⑤ 음성상징어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다소 경쾌하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4. ③

'나'가 '우리산'에 '다시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은 '나'가 무덤 가까이 나무를 베고, 좋지 못한 나무들을 베어 나무들이 등성등성 서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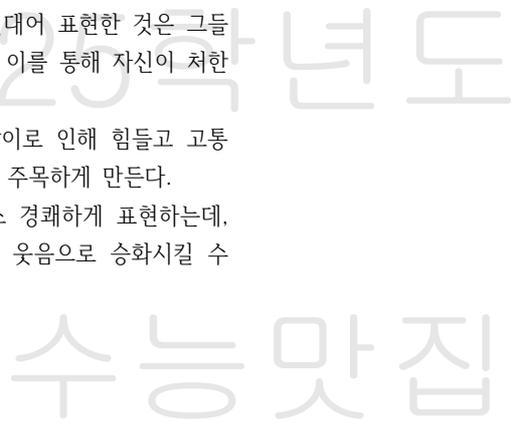
5. ⑤

(가)는 '시집살이 노래'에서 시대 식구들과의 어려운 관계를 다양한 동물에 비유하며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웃음과 해학으로 승화시킨다. (나)에서 '나'는 '아내'의 죽음을 회고하며 그의 생전의 계획과 실행되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대화 형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현실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 ① (가)에서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일상적 소재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 현실을 재치있게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나)에서 '꽃나무'는 아내와의 행복했던 추억과 그들의 삶의 계획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하지만 이 소재는 글쓴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의 회상과 아쉬움, 슬픔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극복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③ (가)에서 '수저'와 '식기'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요소가 맞다. (나)에서 '아내'는 파주 집에 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공간으로 보는 것보다 '나'와 '아내'가 꿈꿨던 미래가 있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가)의 '쌍쌍이' 들어온 대상은 고달픔을 승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에 적절하고, (나)의 '파주의 산'은 성찰을 통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 **개**에 안개 걷고 뒤 **뒀**에 해 비친다

배 떠라 배 떠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지국총(至躬聰) 지국총(至躬聰) 어사외(於思臥)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춘 1>

마름 앞에 바람 나니 봉창(篷窓)*이 서늘코야

돛 달아라 돛 달아라

여름 **바람** 정할소냐 가는 대로 배 두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북포(北浦) 남강(南江)이 어디 아니 좋을런가 <하 3>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돛 들어라 돛 들어라

만경장파(萬頃澄波)에 실컷 용여(容與)하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추 2>

기러기 떼는 밖에 못 보던 뒀 **뵈**는고야

이어라 이어라

남시질도 하려니와 취한 것이 이 흥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석양(夕陽)이 비치니 천산(千山)이 **금수(錦繡)*** | 로다 <추 4>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파랑성(波浪聲)*을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 8>

- 윤선도, 「어부사사시」

*봉창: 배의 창문.

*용여하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금수: 비단

*머흔: 험하고 사나운.

*파랑성: 파도 소리.

*진훤: 속세의 시끄러움.

(나)

산중을 매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남여(藍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누의 올라하니

㉠ **녕농(玲瓏) 벽계(碧溪)*와 수성(數聲) 데도(啼鳥)*는** **니별을 윈**
(怨)하는 듯

정기(旌旗)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鼓角)을 섯부니 해운(海雲)이 다 걷는 듯

명사 길 니근 말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를 것태 두고 해당화로 드러가니

㉡ **백구야 나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난**

금난굴 도라드러 총석명 올라하니

백옥누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공슈(工僮)의 성녕인가 **귀부(鬼斧)로** 다드문가

구태야 녹면은 므어슬 상(象)뒀던고

고성을란 더만 두고 **삼일포**를 차자가니

단서(丹書)*는 완연하되 사선(四仙)은 어디 가니

예 사흘 머은 후의 어디 가 또 머고

㉢ **선유담 영낭호 거기나 가 잇는가**

청간명 만경대 몇 고대 안뒀던고

(중략)

사양(斜陽) 현산(峴山)의 턱툭(躑躅)을 므니불야,

우개지륜(羽蓋芝輪)이 경포(鏡浦)로 느려가니,

십(十) 리(里) 빙환(氷紈)을 다리고 고터 다려,

당송(長松) 올흔 소개 슬꺾장 퍼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고쥬(孤舟) 히람(解纜)*햐야 덩즈(亭子) 우히 올라가니,

강문교(江門橋) 너은 겨터 대양(大洋)이 거기로다.

동용(從容)햐다 이 기상(氣像) 활원(闊遠)햐다 더 경계(境界),

이도곤 꺾진 디 쯔 어디 잇닷 말고.

홍장(紅粧) 고스(古事)를 헌스타 히리로다.

강능(江陵) 대도호(大都護) 풍속(風俗)이 도흘시고.

㉣ **절효정문(節孝旌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비옥가봉(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 **홀다.**

진주관(眞珠館) 독서루(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느린 물이,

태백산(太白山) 그림재를 동해(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명(木筧)의 다히고져.

왕덕(王程)이 유한(有限)햐고 풍경(風景)이 못 슬미니,

유회(幽懷)도 하도 할샤 **객수(客愁)도** 둘 디 엇다.

선사(仙槎)를 띄워 내어 두우(斗牛)로 향(向)햐살가,

선인(仙人)을 초즈려 단혈(丹穴)의 머므살가.

턴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명(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밝근 하늘이니 하늘 밝근 므서신고.

긋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 **은산(銀山)을 것거 내어 녹합(六舍)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당텨(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정철, 「관동별곡」

-25 수완 실전3,4 ‘어부사사시’관동별곡 변형.제작문항-

*녕농벽계 수성제도: 많은 시냇물과 소란스러운 새소리

*단서: 붉은 글씨. 사선이 삼일포에 유람하며 남겼다는 글씨임

*고쥬(孤舟) 히람(解纜): 나루터에 배를 대고

1. (가)와 (나)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 체험에 대한 예찬이 두드러지고, (나)는 과거 경험에 대한 아쉬움이 제시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절대적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 (나)는 현재의 처지와 관련된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과 관련하여 위정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숙고하고 있다.
- ⑤ (가)는 자연 현상을 감각적으로 미화하고 있고, (나)는 특정 대상에 관념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2. <보기>를 토대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작가가 노년에 전남 보길도의 부용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연시조이다. 사계절의 경치와 감흥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읊은 작품으로, 이전 시기의 「어부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속세를 벗어난 한가로움을 물과 관련된 소재 및 행위와 관련지어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수의 초장과 중장 사이에 배의 운행에 맞추어 조흥구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노젓는 소리와 관련된 청각적 이미지의 후렴을 통해 운율성과 흥취를 돋우고 있다.

- ① <춘1>의 초장과 중장 사이의 조흥구는 배가 출항하는 것과, <동8>의 초장과 중장 사이의 조흥구는 항구에 돌아온 상황과 관련된 것이군.
- ② <추2>의 화자는 바다 위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주며 물 위에서 느끼는 한가로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춘1>의 봄꽃에서 느낀 화자의 감각적 인상이나, <하2>에서 느낀 촉각적 심상 등은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와 호응하여 흥겨움을 더하고 있군.
- ④ <추4>에서 낚시질을 하며 즐거움을 드러내는 화자의 정서는 어부가의 전통적 성격과 관련이 있겠군.
- ⑤ <동8>에서 소나무의 씩씩함을 발견한 화자가 구름과 파도의 유용성을 발견하는 데에서, 공간에 따른 세속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3. (나)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산중을 떠나게 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는 자연물의 움직임에 관찰하며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은 인공물을 바라본 화자가 인공물과 관련된 인물의 행적을 추측하고 있다.
- ④ ㉣은 공무적 성격과 관련된 서술로, 특정 장소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담겨 있다.
- ⑤ ㉣에서는 현재의 계절과 불일치하는 표현을 통해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찬탄을 드러내고 있다.

4.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우(對偶)는 구(句)가 서로 평행·대칭되거나 어휘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대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어 강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반대우(反對偶), 같은 것끼리 짝을 이루어 통일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정대우(正對偶), 서로 인과 관계나 주종(主從) 관계로 어울림의 미학을 이끌어내는 관대우(串對偶)로 구분할 수 있다. (가)와 (나)는 이러한 다양한 대우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 대한 정감과 사대부로서의 관념을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앞 개'와 '뒤 뉘'는 방향과 관련된 반대우의 표현이, '가을'에 '고기마다 살져 있'는 것에는 관대우의 표현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에서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의 '산중'과 '동해'는 상반되는 장소가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조화를 이루는 반대우가 드러나고 있으며, '삼일포'는 '동해'와 관련이 있는 장소로 화자의 탈속적 자세를 강조하여 세상과의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서늘'함과 '여름 바람', (나)의 '공슈'와 '귀부'는 정대우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투영한 것으로, 각각 계절적 배경, 자연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다.
- ④ (가)에서 '만경징파'와 '인간'은 의미상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반대우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지만, (나)의 '왕명'과 '풍경'은 각각 관념과 정감이 대비를 이루면서도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반대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석양'과 '금수'는 시각적 이미지의 조화를 통한 정대우의 표현이고, (나)의 '물결'의 고요한 모습은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관대우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⑤

(가)에서 '석양이 비'친 '천산'을 '금수'로 표현하며 '석양'이라는 자연 현상을 감각적으로 미화하고 있고, (나)에서 '한강의 목덕'을 한양, 즉 임금이 계신 곳으로 서술하며 연근지정을 드러내고 있다.

2. ⑤

<동8>에서 소나무의 씩씩함을 발견한 화자가 구름과 파도의 유용성을 발견하였지만, 어부사시사는 속세를 벗어난 한가로움을 노래하기에 속세가 부정적 대상이 계속됨은 틀림없다. 속세의 시끄러움을 막기 위해 파도 소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속세는 부정적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① <춘1>의 초장과 중장 사이의 조흥구는 배가 출항하는 것, <동8>의 초장과 중장 사이의 조흥구는 배가 항구에 돌아와 매는 것과 관련되었다.

② <추2>의 화자는 '살져 있'는 '고기'와 '용여하자'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며 자신의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춘1>의 봄꽃에서 느낀 화자의 감각적 인상이나, <하2>에서 느낀 촉각적 심상 등은 중장과 중장 사이의 청각적 이미지의 후렴을 통해 운율성과 흥취를 돋우고 있다.

④ <추4>에서 낚시질을 하며 즐거움을 드러내는 화자의 정서는 속세에서 벗어난 한가로움을 물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지어 노래하는 어부가의 전통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① '앞 개'와 '뒤 뒀'는 방향과 관련되어 배가 뜨는 것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을'에 '고기마다 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미학을 이끌어내는 관대우의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에서의 흥취를 느낄 수 있다.

③ 투영은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하는 것으로, '서늘'함과 '여름 바람'은 배 위의 시원함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투영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슈'와 '귀부'도 정대우의 표현을 통해 사선봉에 대한 놀라움을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관대우는 상반되는 이미지의 조화를 통한 강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은 속세니까 자연과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화를 통한 강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대우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왕명과 풍경의 내적 갈등은 선우후락의 태도로 해소되므로 강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반대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석양'과 '금수'는 시각적 이미지의 조화를 통한 정대우의 표현으로 천산에 대한 정감을 보여주었고, '물결'의 고요한 모습은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관대우로 이해할 수 있다.

3. ②

㉠은 점층적 강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정서가 강조되는 것은 점층적 표현이어야 한다. ㉠은 지금 의인화를 하고 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녕농 벽계와 수성 데도'에 감정을 투영하여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단서'와 관련된 '사선'의 행적에 관하여 추측하고 있다.

④ '절효정문'이 널려 있어 지금이 태평성대라는 화자의 평가가 담겨있다.

⑤ '오월'의 높은 하늘에 '백설'이라는 계절과 불일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설'은 '파도의 물보라'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기에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찬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②

탈속은 속세를 떠나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 이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니고, '정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공무 중 유람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이는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실적인 공간에서의 흥취만을 드러내고 있다. 단절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이 낳으시고 님금이 먹이시니
나흔 덕(德) 먹인 은(恩) 다 갑프라 헛엇더니
숙연(愀然)히 칠십(七十)이무니 헛일 업서 헛노라 <1수>

어이 성은이야 망극할손 성은이다.
강호에서 늙음도 분(分)뵈고 일이어든
하물며 두 아들 전성영양(專城榮養)*은 또 어인고 하노라 <2수>

연하(煙霞)의 깊이 든 병(病) 약이 효험 없어
강호(江湖)에 버려진 지 십 년 넘게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그 성은(聖恩)인가 하노라. <3수>

전나귀 바삐 몰아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피 거친 밥에 찬물(饌物)*이 아주 없다
아희야 배 내어 띄워라 그물 놓아 보리라. <4수>

달 밝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 같다
단정(短艇)*을 빛기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 알까 하노라. <5수>

피 소주 무저리 우습다 어른 대접
남은사람 이른 말이 보잘것없다 하건마는
두어라 이도 내 분이니 분내사*인가 하노라 <8수>

㉠ 식록(食祿)*을 그친 후로 어조(漁釣)를 생애(生涯)하니
험* 업슨 아이들은 괴롭다 하건마는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하노라. <9수>

- 나위소, 「강호구가」

- *전성영양: 정성을 다해 부모를 봉양함
- *찬물: 반찬거리가 되는 것.
- *단정: 자그마한 배.
- *분내사: 분수에 맞는 일
- *식록: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녹봉
- *험: 생각.

(나)

술이 닳았거니 벗이라 업슬소냐.
블니며 툇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지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울고 휘파람불고 하며 슬겨장 노니
천지(天地)도 넓고넓고 일월(日月) 한가하다.
㉡ 희황(羲皇)*을 모르더니 지금이야 괴로고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놀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당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흐소냐.

이 몸이 이렇 굵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양정가」

*희황: 중국 고대의 전설상 황제인伏羲씨를 가리키는 말로, 태평성대를 뜻함

-25 수완 실전4 '강호구가' 연계. 변형문항-

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관념을 공간과 결부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대비를 통하여 장소의 무결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현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과거 인물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즐거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 (가)의 각 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1수>에서 드러낸 대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2수>로 이어지며, 아들의 봉양을 받는 것 역시 대상의 은덕으로 돌리고 있다.
- ② <1수>와 <2수>에서 연로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3수>에서 약이 듣지 않아 고생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③ <4수>에 손님을 대접하는 화자의 모습은 <8수>의 '남은사람'이 보잘 것 없다 말하는 것과 유사성을 띠며, 그럼에도 화자는 현재 삶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④ 화자는 <5수>에서 흥겨움을 느끼는 것이 <2수>의 '성은'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 ⑤ <9수>에서는 자연 속의 삶을 고달프게 인식하는 '아이들'과 달리 화자는 이러한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계기이고, ㉡은 화자가 의구심을 갖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의 괴로움을 심화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의구심을 갖고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과거의 삶과 관련된 대상이고, ㉡은 화자가 현재 상황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의 현재 처지와 대비되는 의미를 형성하고, ㉡은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시대에 자연은 소박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면서 작가의 사상이 투영된 이상향으로 그려진다. 이때 자연은 현실적 요소와 더불어 상상적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기도 한다. (가)와 (나)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와 더불어 다양한 상징적 소재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으며, 사대부 계층이 공유하는 관념적 요소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① (가)에서 ‘아버이 낳으시고 님금이 먹’였다는 서술은 사대부가 공유하는 사상적 측면이 드러나는 표현이고, (나)의 ‘근심이라 이시며’에서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 ② (가)의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그물 놓’으려는 행위는 화자의 소박한 삶이 제시되는 것이고, (나)에서는 생활 공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옳고 휘파람불고 하’는 행위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군.
- ③ (가)의 화자는 ‘강호에 버려졌’음에도 ‘다 못 죽’는 것이 ‘성은’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며 이상적 삶에 대한 자부심을, (나)는 ‘신선’과 같은 상상적 요소를 자신의 삶과 결부하여 흥취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단정’위에서 누리는 주관적 정감을 ‘백구’에 투영하여 만족감을 형상화하고 있고, (나)의 ‘악양루 위에 이태백’에서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과거 인물에 투영하여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⑤ (가)의 화자는 ‘어조의 생애’를 누리는 현재 처지를 ‘강호한적’으로 집약함으로써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연에서의 ‘호탕정회’를 ‘역군은’이라고 말함으로써 관념성을 표출하고 있군.

1. ②

(가)는 1수와 2수에서 '님금' '성은'등의 표현을 통해, (나)는 '역군은'을 통해 자연 공간에서 누리는 삶이 임금의 은덕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임금에 대한 감사는 사대부의 관념적 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2. ②

1수의 '칠십이무니', 2수의 '늡음'에서 연로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3수에서 '연하의 깊이 든 병'은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든 고질병(천석고항, 연하고질)을 뜻하는 말이므로 늡어 생긴 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병에 대해 효험이 없다고 했으나 이어지는 중장과 종장에서 강호에 버려진 처지에 대해 '성은'에 감사하고 있으므로, 약이 듣지 않아 고생한다는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① 1수와 2수는 모두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전성영양' 역시 '성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의 은덕으로 돌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4수에서 손님을 대접하려는 화자가 반찬거리가 없다는 표현을 통해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8수에서 피 소주 무저리로 어른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 '남은 사람'이 보잘것 없다고 하는 데에서 화자의 소박하고 가난한 처지가 드러나므로 이 두 구절은 연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전형적인 강호한정가의 특성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④ 1,2수에서 화자가 성은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 속에 머물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5수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성은에 대한 인식과 연결할 수 있으며, '흥'을 느끼는 데에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⑤ 9수의 '험 업슨 아이들'이 '어조 생애'를 '괴롭다'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자연 속의 삶을 괴로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삶을 화자는 '내 분'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어조 생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④

㉠은 관직에서 받던 월급, 즉 화자의 과거의 삶과 관련된 대상이고, ㉡은 현재 상황과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동일시하기 위해 쓰인 대상이다.

4. ③

(가)의 2수에 따르면 '강호에 버려졌'다는 인식에서 겸양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이상적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자부심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부심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토대로 자랑스러운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① (가)의 '아버지 낳으시고 님금이 먹'었다는 것은 성리학의 충·효 사상이 드러나므로 이는 사대부의 사상적 측면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근심이라 이시며'는 근심이 없다는 화자의 태도이며, 시가 문학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② '소박함'은 화려하고 여유있는 삶과 대비되는 삶이다.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그물을 놓는 것은 소박한 삶의 범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옳고 휘파람불고 하'는 것 역시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투영=동일시'이다. 투영은 '의인화'까지 포함하는 범주이다. 백구를 의인화하여 '단정'위에서의 주관적 정감을 투영한 화자는 '흥'을 느끼고 있으므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볼 수 있다. (나)의 '이태백'은 과거의 인물로 '강산 풍월'을 거느리고 백년을 다 누리면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과거 인물에 현재의 흥취를 투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강호한정'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현재 처지에 대해 화자가 이상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나)의 '역군은'은 임금님의 은덕이라는 의미이므로 사대부의 관념성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순창 서리(胥吏)* ㉠ **최윤재**는 ㉡ **사또**님께 소지(所志) 올려
원통함을 아뢰오니 올바르게 처결해 주소서
 구월 십사일은 담양 부사 생신이라
 ㉢ **소인의 사또**가 사흘 전에 달려갈 때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차를 따라갔는데
 광주 고을 목사와 화순 창평 남평 원님
 십사일 조식 후에 일제히 모이셨네
 바야흐로 큰상에 성찬을 벌여 놓고
 관악기 현악기는 누각에 늘어놓고
 구름 같은 묘한 곡에 씩씩한 몸 상좌에 앉아 있고
 도내의 제일 명창 담양 순창 명기들이
 가무를 대령하여 이날을 보낸 후에
 십오야 밝은 달의 후약이 어디인가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시려고
 화려한 육각 양산 청산에 나무끼고
 오마(五馬) 쌍전은 단풍 숲으로 들어갈 제
 옥패는 쟁그랑쟁그랑 걸음마다 울리고
 낭랑한 말소리는 말 위에서 오갈 제
 동산의 고상한 놀이* 용문의 눈 구경*에
 ㉣ **기생**이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아리따운 기생들이 의기양양 무리 지어

[A]

말 타고 군졸들과 수레를 뒤따르니
 창안백발 화순 원님 기생에게 다정하사
 굽이진 곳에서 자주 돌아보시기에
 소인은 하인이라 말에 앉아 있기 황송하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오르락내리락 몇 번인 줄 모르겠네
 망망히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노라니
 석양에 큰길 아래서 **실족하여 넘어지**니
 돌들이 흩어진 곳에 콩 태 자로 자빠지니
 팔다리도 부러지고 옆구리도 뼈어서
 어혈(瘀血)이 마구 흘러 흉격이 퍼지지 않고
 금령이 지엄하와 개똥도 못 먹고
 병세가 기괴하와 날로 위중하니
 푸닥거리 경 읽기는 다 해 봐야 헛되도다
 이제는 하릴없이 죽을 줄로 알았더니
 곰곰 앉아 생각하니 이것이 뉘 탓이고
 강천에서 배행하던 **기생들의 탓**이로다
 네 쇠뿔이 아니련들 내 담이 무너지라
 속담에 이른 말씀 예부터 이러하니
 소인의 죽는 목숨 그 아니 불쌍한가
 소인이 죽거든 **저년들을 죽이**시어
불쌍히 죽는 냇을 위로하여 주옵실가
 실낱같이 남은 목숨 살려 주시길 바라나이다

(중략)

죄범이 중타 하시어 저리 행하옵시니
수화(水火)에 들락 하신들 감히 거역하리까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처분대로 하려니와
 ㉤ **의녀** 등도 **원통하와 소회**를 아뢰 것이니
 일일같이 밤으신 순찰 사또님께
 한 말씀만 아뢰옵고 매를 맞고 죽겠나이다
 의녀 등은 기생이요 최윤재는 아전이라
 기생이 아전에게 간섭할 일 없사옵고
 화순 사또 뒤돌아보시기는 구태여 의녀들을 보시려 하셨던 건지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물을 구경하려다 우연히 보셨던 건지
 아전이 제 인사로 제 말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낙마하여 만일에 죽는다 한들
 어찌 의녀들이 살인이 되리이까

(중략)

아하 그렇더냐 너희 사정 그러더냐
 순창 서리 ㉥ **송사한 사연**이
절절히 모함이로다
 너희들 몸뚱이에 **씩은 칼** 벗기고
 ㉦ **석방**하려 하려 하니
 너의 말 들어보니 절절이 원통하겠다
 감사 병사 수령님네 중이던지 속인이던지
 덕을 숭상해야 할 곳이 있었구나
 그래도 **선비를 따라야 오복**이 갖춰지리라

- 이운영, 「순창가」

*서리: 고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아전
 *동산의 고상한 놀이: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화계 땅 동산에서
 은거하면서 한가로이 노닐 적에 항상 가무에 능한 기녀를 대동했
 다는 고사를 이룸.
 *용문의 눈 구경: 서도(西都)의 태수 전유연이 송나라 사희심과
 구양수가 눈이 내린 용문의 향산(香山)에 이르자 용문의 눈경치를
 구경할 것을 권유한 고사를 이룸.

(나)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더미 위에 뛰어올라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어서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리다가 두엄더미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내가 날래기 망정이지 어혈이 들뻔 했구나.

-작자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25 수완 실전1 '순창가' 변형.제작문항-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상황의 확장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변화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A] ~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순창가」는 작가가 순창 지방을 여행하던 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사이다. 여타 가사와는 달리 송사 서사의 구성을 가지는 ‘소지형 시가’로, ‘최윤재의 고발-관찰사의 수사-관기에 대한 심문-관기의 무죄 호소와 관찰사의 처결-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의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대상의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지배층의 횡포를 비판하며 신분이 낮은 피지배층이 억울하게 받는 고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A]에서 ‘원통함을 아뢰’는 것은 최윤재의 심사를 드러낸 것으로, 소지형 시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저년들을 죽이시어’에서 고발의 목적을 드러내어 기녀들이 고통을 받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 ② [B]에서 ‘수화에 들라 하’는 것은 관찰사의 지시로, ‘원통화와 소회’를 말하는 것에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는 기녀의 호소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C]의 ‘씩운 칼 벗기’는 처결에 도달하게 된다.
- ③ [C]에서 ‘선비를 따라야 오복이 갖춰’진다는 것은 서술자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A]에 드러난 고발자의 고발 내용과 [B]에 나타난 고발에 대한 관기의 대응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 ④ [A]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 것은 최윤재가 고발을 하게 된 원인이며, 이를 ‘기생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B]의 기생들은 이를 ‘우연히 낙마’한 것으로 생각하며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의 ‘불쌍히 죽는 님을 위로’해 달라는 것은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자신을 낮춰 말하는 것이며, [C]에서 관찰사는 [A]의 소지를 ‘절절히 모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층의 횡포가 다른 지배층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특정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경험 과정에서 얻게 된 결과로 인해 ㉠은 ㉡를 고발하게 된다.
- ② ㉠에 대한 ㉢의 부정적 반응은 ㉡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 ③ ㉠과 ㉡의 발화로 인해 사건의 정황이 밝혀지며, 이를 바탕으로 ㉢은 ㉡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 ④ ㉡는 ㉠에 대한 판단 주체로, ㉢이 송사한 과정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
- ⑤ ㉡는 ㉠과 ㉢의 상위자로, ㉢과의 협력을 통해 ㉡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4.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최윤재’와 (나)의 ‘두꺼비’는 상대 신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 ② (나)의 ‘파리’는 ‘두꺼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의 ‘의녀’와 비슷한 처지이다.
- ③ (나)의 ‘송골매’는 ‘두꺼비’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의 ‘사또’와 유사한 존재이다.
- ④ (가)의 ‘최윤재’와 (나)의 ‘두꺼비’는 특정 행동의 결과로 ‘어혈’이 생겼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⑤ (가)와 (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대의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1. ②

음성상징어는 상황을 생동감있게 묘사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가)의 ‘쟁그랑 쟁그랑’ ‘오르락 내리락’, (나)의 ‘펼쩍’등에 음성상징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선지이다.

2. ②

‘수화(水火)에 들라 하신들 감히 거역하리까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처분대로 하려니와’는 사또의 처분을 거역할 수 없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므로, 처분에 응하겠다는 태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는 기녀의 호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 따르면 ‘소지형 시가’는 송사(소송) 서사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원통함을 아뢰’는 것에서 소송의 특성이 드러나며, ‘저년들을 죽이’라는 발화에서 최윤재의 고발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는 서술자의 평가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비를 따라야 오복이 갖춰지리라’라는 서술은 서술자의 사고 방식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A]와 [B]의 내용을 관찰한 경험에 따라 서술자가 인식한 부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A]에서 최윤재는 ‘실족해야 넘어지게 된 것의 원인으로 기녀들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실족의 원인을 기생들의 탓으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기녀들은 최윤재의 낙마를 ‘우연히’라고 함으로써 소송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발화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불쌍히 죽는 녀를 위로’해 달라고 발화하는 주체는 ‘최윤재’이다. 즉 최윤재는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관찰사에게 자신을 낮춰 공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관찰사는 최윤재와 기녀의 발화를 모두 들은 이후 [C]에서 최윤재가 기녀들을 ‘모함’한 것으로 이해, 기녀들의 무죄 판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최윤재라는 지배층의 횡포가 관찰사라는 또 다른 지배층에 의해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①

㉔는 ㉔의 수행원으로 담양 부사 생일 잔치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생일 잔치라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 경험 과정에서 최윤재는 낙마하여 부상을 입게 되며, 이를 ㉔의 탓으로 돌리며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

4. ④

(가)의 최윤재는 낙마로 인해 어혈(피멍)이 들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두꺼비는 ‘날래기 망정이지 어혈이 들 뻔 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즉 두꺼비는 어혈이 ‘들 뻔’한 것이지 어혈이 실제로 든 것은 아니다.

① (가)의 최윤재는 (나)의 두꺼비에 대응하며, 기녀와 파리는 각각 힘없는 서민을, 관찰사와 송골매는 각각 더 높은 신분의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둘은 유사상이 있다.

② ‘의녀’는 기녀들로 최윤재에게 억울하게 소송을 걸리게 된다. 따라서 ‘파리’가 두꺼비에게 물려 괴롭힘을 당한다는 측면에서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사또(관찰사)’는 높은 신분으로 최윤재보다 상위자이며, 최윤재는 사또에게 송사 과정에서 저자세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두꺼비가 송골매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송골매와 사또는 대상의 상위자라는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

⑤ 지배층-피지배층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은 당대 세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효과를 준다. 이는 두 작품의 주제의식 측면에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지붕 우희 익은 박은 요긴한 그릇이라
 대싸리로 비를 만들어 타작할 때 쓰리라
 참깨 들깨 거둔 후의 다소 이른 벼를 타작하고
 담배나 녹두 등을 팔아서 아쉬운 대로 작전(作錢)*하라
 장 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소
 북어쾌 젓조기 사다가 추석 **명일(明日)** 쇠어 보세
 신도주(新稻酒)* 오려 송편 박나물과 토란국을
 선산(先山)의 제물하고 **이웃집 논화** 먹세
며느리 휴가 얻어 친정에 근친(覲親) 갈 제
 개를 잡아 삶아 건져 **떡고리**와 술병이라
 초록색 장옷과 남빛 치마로 몸을 꾸미고 다시 보니
 농사짓기에 지친 얼굴이 원기가 회복되었느냐
 추석날 밝은 달 아래 **기를 펴고 놀다** 오소

<중략>

십이월은 계동(季冬)이라 소한 대한 절기로다
 설중(雪中)의 봉만(峯巒)들은 해 저문 빛이로다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집안의 여인들은 세시 **의복** 장만하고
 무명 명주 끊어 내어 온갖 무색 들어 내니
 자주 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매 옥색이다
 일변으로 다듬으며 일변으로 지어 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햇대에도 걸었도다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 장만하오리라
떡쌀은 몇 말이며 **술쌀**은 몇 말이고
콩 갈아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 빚소
 세육은 계를 믿고 북어는 장에 사서
 납평 날 창에 묻어 잡은 **뽕** 몇 마리이고
 아이들 그물 쳐서 참새도 지저 먹세
 깨강정 룡강정에 곱감 대추 생률이라
 주준에 술 들으니 돌 틈에 새암 소리
 앞뒷집 **타병성***은 **예도 나고 제도 나네**
 새 등잔 새발심지 장뚱하여 새울 적에
 윗방 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 정학유, 「농가월령가」

*작전: 돈을 만들

*신도주: 새 쌀로 만든 술

*타병성: 떡을 치는 소리

1. **윗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향촌 공동체의 문제 상황을 조망하고 있다.
- ② 시기에 맞는 다양한 음식들을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과 결부하여 특정 시기임을 알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맞는 소재들을 열거하는 서술을 통해 정형성을 확보하고 있다.

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 ① 작물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행위에서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박과 대싸리는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 풍경과 관련된 것으로, 농사일과 관련된 소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추석을 맞이하여 장을 보면서도 흥정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다양한 음식들을 만든 것은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계절과 관련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새로 만든 쌀로 술을 빚는 것은 명절 풍속과 관련된 것으로, 선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읽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권농(勸農)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농가(農歌)계열의 작품은 일 년 열두 달이라는 시간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는 월령체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농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농가월령가」는 이러한 형식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농사일과 관련된 정보 외에도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각 달의 세시풍속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사대부 작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 ① ‘명일’에 여러 음식들을 마련하여 ‘이웃집 논화’먹는 모습에서, 특정 달의 풍속과 더불어 공동체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떡고리’는 ‘며느리’와 관련된 소재로, ‘기를 펴고 놀다’올 수 있는 장소와 연결되어 공동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당대의 풍습이 나타나는군.
- ③ ‘소한 대한’은 계절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시어로, ‘세전’을 지나 ‘의복’을 ‘장만’하는 모습을 통해 월령체의 형식과 세시풍속에 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군.
- ④ ‘떡쌀, 술쌀, 콩’등으로 ‘음식 장만’하는 모습과 더불어 ‘쟁’을 사냥하여 마련하는 장면에서는, 향촌 사회의 풍요로운 모습을 제시하여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⑤ ‘타병성’이 ‘예도 나고 제도 나’는 것은 화자가 ‘명랑’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장면으로, ‘십이월’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맞물려 사대부의 시선에서 묘사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군.

11. ①

윗 글은 각 시기별 세시 풍속과 농사일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여 교훈성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추석' '십이월' 역시 계절감과 관련된 소재이다. 추석과 관련지어 벼를 타작하는 행위가, '십이월'과 관련지어 의복을 장만하는 행위가 연결되고 있다.

2. ③

흥정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품질이나 가격을 논의함'이라는 의미이다. 물건을 좀 더 싸게 사거나 질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흥정이므로, 이것이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배려, 이해와 관련된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

① 담배, 녹두 등의 작물을 팔아 아쉬운대로 작전(돈을 마련함)한 것은, 바로 다음 행에서 북어괘 찢조기를 사서 추석을 쇠기 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작물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선산은 '조상의 선영(묘지)이 있는 산'이다. 선산에 제물한다는 것은 선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는 추석 명절과 관련된 행위이다.

3.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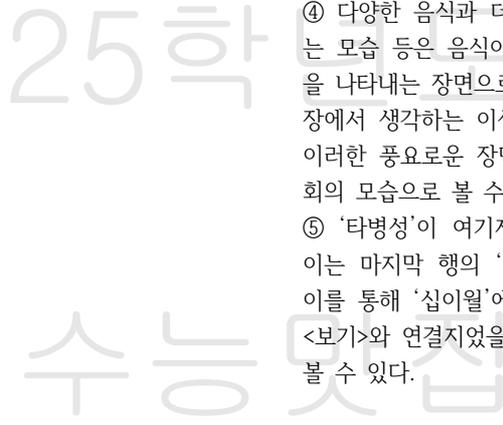
'소한 대한'은 십이월 계동으로, 월령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시기에 여인들이 의복을 장만하는 것은 각 달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라는 서술에서 '세전'은 '남은 날'이라는 주어와의 수식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새해가 오기 전 남은 날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전을 '지나' 의복을 장만하는 것이 아닌, 세전'에' 의복을 장만하는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 따르면 윗 글은 각 달의 세시풍속과 더불어 사대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 제시된다고 하였다. '명일'은 추석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달(음력 8월)을 나타내는 것으로, 월령체의 형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때 마련한 다양한 음식을 선산에 제사 지내고 이웃과 나눠먹는 것에서 특정 달의 풍속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대부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며느리가 명절을 맞아 휴가를 얻어 친정으로 향하였는데, 문맥상 개와 떡고리, 술병은 며느리를 위해 친정에서 마련한 음식이다. 이곳에서 며느리는 '기를 펴고 놀다'오게 되며, <보기>와 연결한다면 이는 명절날 시집 살이를 하던 며느리들이 일반적으로 친정에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다양한 음식과 더불어 평을 사냥하고, 이어서 참새를 지저 먹는 모습 등은 음식이 모자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윗 글은 사대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풍요로운 장면 묘사는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향촌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타병성'이 여기저기에서 나는 것을 통해 역동성이 드러나며, 이는 마지막 행의 '명량'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십이월'에 행하는 세시 풍속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보기>와 연결되었을 때 사대부 입장에서 묘사한 당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헌소한 **조화옹(造化翁)**이 산천을 빚어낼 제
낙은암(樂隱巖) 깊은 골을 날 위하여 삼겨시니
봉우리도 훌륭하고 천석(泉石)도 기특하다
어와 ㉠ **주인옹(主人翁)**이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진세(塵世)를 하직하고 암혈(巖穴)의 깃들이니
내 생애 담박(淡泊)한들 내 분(分)이라 관계하라
(중략)

해당화 깊은 곳의 낙대 메고 내려가며
어부사(漁父詞) 한 곡조를 바람결의 흩날 부러
목동의 피리 소리에 넌즈시 화답하니
석양방초(夕陽芳草) 길의 걸음마다 더디여다
동풍(東風)이 건듯 불어 세우(細雨)를 뵈야오니
사의(蓑衣)*를 니미차고 물가에 안즌마리
용면(龍眠)*을 불너내 이 형상 그리고자
영욕(榮辱)이 불관(不關)하니 세사를 내 아더나
주육(酒肉) 즐긴 분내 부귀(富貴)를 자랑 마오
너름날 더운 길의 홍진(紅塵)의 분주하며
겨울밤 치운 새에 대루원의 서성이니
자내는 도타 하나 내 보매는 괴로워라
어저 내 신세를 내 니르니 들어 보소

- 남도진, 「낙은별곡」

*사의: 도롱이. 비옷.

*용면: 송나라의 유명한 화가

(나)

금년이 이상하여 동천(冬天)의 눈 없으니
성명(聲明)하신 우리 ㉡ **주상(主上)** 근심이 **과도**하시
어주(御廚) 명을 내려 음식을 줄이시고
궁궐의 음악을 금하게 하셨구나
예관에게 명을 내려 산천에 빌라시니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에 통**하였도다
(중략)

곤륜산(崑崙山)에 옥을 부어 **옥가루가 날리는** 듯
광한전(廣寒殿)에 용을 뿜아 비늘이 빛나는 듯
부용성(芙蓉城) 넘은 곳에 **백옥 나무** 몇 그루인가
천년 동안 꽃이 피어 오랜 세월 흰 빛인데
선동(仙童)이 일이 많아 가지를 흔드누나
점점이 바람따라 나부끼며 떨어지니
세상의 **배꽃**과도 같다고도 **허련**마는
여섯 모는 **므스**이고 **곳초**차 다르더나
하늘의 직녀는 선궁에 혼자 있어
하는 일이 전혀 없네
옥베를 올라 안자 **금복**을 던졌으니
하루밤 소이의 얼음 같고 서리 같은 흰 비단을
몇 필이나 끊었던 말인가

- 홍계영, 「희설(喜雪)」

백제: 방위를 지키는 오방신장의 하나로 가을을 맡은 서쪽의 신

(다)

많은 ㉢ **돌층계**를 우리는 밟고 오르며 산다. 층계를 밟고 오를 때마다. 그것은 내게 삶의 계단으로 떠올라 헛디딜세라 조심이 된다. 어차피 인생은 끝이 있는 층계를 밟고 올라서며 사는 것이다. 한 층에 한 걸음이 맞도록 계단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두 단 세 단 뛰어오르려는 충동을 느껴왔었다. 이렇게 서두르거나 남보다 앞서려거나 또 남을 밀치고 먼저 나서려는 데서 헛딛는 실수나 넘어지는 확률은 커지게 마련이다. 한 층에 한 걸음 한 발짝씩 밟아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두 층 세 층을 한꺼번에 건너뛰어 밟으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 추락이나 도중 탈락 도중 하차를 해 왔던가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만 허둥거리며 살아왔다. 차근히 한층, 한층 밟아야만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 **성실한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삭빠르게 잔재주로 ㉤ **앞지르려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려는 욕심 때문에 남을 제치거나 밟고 올라서려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립중앙 박물관의 높은 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서,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히 제대로 발을 옮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리에 힘주고 무릎을 짚어 가면서 이마의 땀을 씻게 되니, 한 층, 한 층 올라 밟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험뎠으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 보기에 흉하도록 같지(之)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 다.

- 유경환, 「돌층계」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은거 생활을 즐기며, 인간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초월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자연을 예찬하며 눈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미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인생을 계단에 비유하여, 한 걸음씩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는 삶의 태도를 권장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 속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지만, (다)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보다는 인간의 내면적인 성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은거를, (나)에서는 왕의 근심을, (다)에서는 인생의 계단을 각각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화자 자신으로 본다면 주관적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이 겪는 근심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화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군.
- ③ ㉠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자 하고, ㉡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군.
- ④ ㉠과 ㉡은 모두 자연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과 ㉡은 외부 세계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대상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드러나는군.

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머무는 공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정 장소에 오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정서는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지 않는다.
- ③ 화자는 장소의 특정성으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정감을 바깥 세계와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지향하는 것과 지향하지 않는 것의 대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가 공동체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집단적 성격으로 인해 형성된 이념으로 볼 수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 은일가사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던 일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을 인간과 대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는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작가가 자연 속에 머물며 느끼는 소회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흥취와 풍류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병으로 인해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쓴 시로, 기존 가사와 달리 눈이 내린 도성 안의 풍경을 매우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자연에 대한 관념적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의 미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① (가)는 '조화옹'이 화자가 머무는 공간을 '빛어'낸 것을 '날 위히여' 만든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근심이 과도하사'를 통해 관직 생활을 했던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눈이 내리는 것을 '하늘에 통'하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관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용면을 불너내'고자 하는 것에는 화자가 관찰하는 자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의 '금복을 던졌으니'에는 자연에 대한 작가의 미적 감각이 돋보이고 있다.
- ④ (가)의 '석양방초'와 '동풍'은 자연과의 조화를 좇는 화자의 태도를, (나)의 '백옥나무'와 '배꽃'은 대상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화자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가)에서 '영옥이 불관'한 것은 '부귀를 자랑'말라는 화자의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옥가루가 날리는 듯'에는 기존 가사와는 다른 작가의 초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의 입장에서 ㉠은 ㉠을 오르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힘이 드는 나이'가 되어서 ㉠을 오르는 방법 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다.
- ② '박물관의 높은 계단'은 글쓴이의 성찰을 유도하는 대상으로, ㉠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단'이라는 사물의 본질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 ③ ㉠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끝이 있는 대상으로, ㉠과 ㉡가 ㉠을 오르는 것의 의미를 인생 경험과 연관지어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남을 밀치거나 헛디딜 뻔했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서, 자신의 이전 삶이 ㉠보다 ㉡와 가까웠음을 반성하고 있다.
- ⑤ ㉢은 타인을 앞지르려는 욕심으로 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글쓴이는 ㉠가 ㉡를 오르는 행위에 비해 ㉢가 ㉠을 오르는 행위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 ④

(가)와 (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으며, (다)에서도 자연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보다는 인간의 내면적인 성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2. ③

㉠은 '내 분(分)이라 관계하라'라는 구절을 통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 하고, ㉡은 어려운 상황에서 행동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 '주상(主上) 근심이 과도(過)하사'에 고뇌가 드러난다.

3. ④

좋다-나쁘다 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③

'용면(龍眠)을 불러내'에서 화자의 자연에 대한 소유욕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에서 인간과 자연을 대등하게 바라본다고 했는데 인간이 자연을 소유하면 이에 맞지 않는다. 문맥상으로도 자연을 소유한다는 태도는 맞지 않는다.

① 화자는 조화왕이 자신을 위해 공간을 만들었다고 인식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소회와 회포는 같은 뜻이다.

② 작가는 왕의 근심과 눈이 내리는 것을 관념적으로 연결시키며, 관직 생활에서 느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④ (가)의 자연 요소들은 화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나)의 자연 요소들은 화자가 자연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⑤ (가)에서 화자는 명예와 이익에 무관심함을 나타내며, (나)에서는 기존의 관념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자연의 미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②

글쓴이가 현재 박물관의 계단에서 성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박물관의 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진술한 것에서 성찰을 유도하는 대상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박물관의 계단은 사물로써, 층계의 본질은 높은 곳을 오르는 데 쓰이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관적이고 확장적 의미로 사용한 '삶의 계단'이 사물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는 계단을 한 층 한 층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사람으로, 글쓴이는 계단을 오르는 경험을 통한 성찰로 한 층, 한 층 올라 딛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깨닫고 있다. 특히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들었다는 점에서 1번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어차피 인생은 끝이 있는 층계를 딛고 올라가며 사는 것'이라는 말에서 글쓴이는 돌층계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와 ㉣가 층계를 오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물의 의미를 인생 경험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의 삶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려는 욕심으로 인한 삶이다. 즉, 인생을 쉽게 사는 것에 해당한다.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비틀거리고, 남을 밀치고, 헛디딜 뻔하고, 갈지자로 왔다갔다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는 자신의 이전 삶이 ㉡보다는 ㉢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⑤ '두 층 세 층을 한꺼번에 건너뛰어 밟으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 추락이나 도중 탈락 도중 하차'한다는 사고에서 ㉣가 ㉡에 비해 위험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현대소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길 거리로 나가니 칠 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제, 오정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 길 맞은편으로 쪽 늘어진 것은 빈지를 들었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찢렁찢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열네다섯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주던, 그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립다.

다시 돌쳐 들어오며 보니, 차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엷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정거린다.

㉠ '젓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 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수사가 불쌍하기도 밉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리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져 버려라!'

차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나 난로 문 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차간 안의 공기는 담배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짙다. 우중충한 남뿔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목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돌려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하는 가름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서울에 도착해 머물다가 아내의 초상을 치른다. 그리고 동경에서 교분을 나누었던 일본인 카페 여급 정자에게서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내 생애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희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

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魑魅魍魎)*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용기와 희망을 돌려 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혀서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化石) 되어 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학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노쇠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內省)하는 고민이요 노쇠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기면서도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니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은 못 됩니다. ……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新生)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 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

우리 문학의 도(徒)는 자유롭게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 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

- 염상섭, 「만세전」

*이매망량: 온갖 도깨비. 산천, 목적의 정령에서 생겨난다고 함.

-25 수특 현소1 '만세전' 변형.제작문항-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사건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바탕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위기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한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꽃의 서울**에 대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의지적 태도
- ② 이매망량 같은 존재와 동일시하기 위한 노력
- ③ 주체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 ④ 삶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태도
- ⑤ 현실을 외면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태도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체가 관찰한 상황에 대해 인식한 서술로, 관찰 대상의 태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 ② ㉡: '나'의 지각을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부정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 ③ ㉢: 서술 주체의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일련의 경험이 주체의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 ④ ㉣: 지각 주체의 경험을 토대로 한 서술로, 억압적인 상황을 경험적 사실과 연관지어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 서술 주체가 대상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우정이 맺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만세전」은 동경에 유학을 간 '나'가 아내가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고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서술하는 작품이다. 일제의 수탈 속에서도 여전히 전근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며 조선에 대한 비하적 인식을 보이면서도, 일본 유학생이면서 조선인이라는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경계인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나'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동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무력한 지식인의 처지를 보여주기 도 한다.

- ① '나'가 역 밖에서 '일본 사람 상점'을 보고 '두 청년과 헌병'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은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경험들에 해당한다.
- ② '나'가 바라본 '얼굴'을 '시든 배춧잎'같다고 느끼는 것은 시대 현실에 대응하는 조선 민중들의 무력감을 드러내며, 이는 '나'가 '공동묘지'라고 현실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③ '나'가 '남푼'이 사람들을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전근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질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가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자각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스스로를 '그런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에서는 경계인으로서의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⑤ '나'가 '안온하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경계인으로서의 상황을 자각하는 것을, '우리의 우정'이 '헛소리'라는 서술에서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볼 수 있다.

1. ㉟

글에서 주인공 '나'는 자신이 관찰한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젓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 줄 일이지'라는 생각이나 '공동묘지다!'와 같은 표현에서 서술자의 개인적인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를 '샤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서는 나라의 백성'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처지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억압된 현실과 얽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본 유학생이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애매한 정체성을 자각한 것이다.

2. ㉟

'꽃의 서울'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주인공이 '공동묘지'라고 표현한 현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자가 느끼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다.

3. ㉟

단순히 주체가 상황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지,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는 주체가 단지 생각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 찾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지각을 하며 들었던 부정적 사고를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찾간에서 대수색의 경험이 서술 주체의 부정적 정서적 사고를 이끌어내었다.

㉢ 소학교 선생이 샤벨이나 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것은 억압적인 당대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념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대유법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 서술자가 일본인 카페 여급 정자에게 진실된 삶을 찾기 위한 자각과 발본이 있어야만 진정한 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는 서술 주체가 대상에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정이 성립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4. ㉟

여기서 '우리의 우정'이 '헛소리'라는 부분은 '우리의 우정이 진실된 생활을 찾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짓말이다'라는 의미로, 이는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허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지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 '나'는 대전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일본인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조선인이 일본 헌병에게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며 조선의 현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깨닫는다. 이는 '나'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억압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경험들에 해당한다.

㉡ '나'는 찾간 안에서 사람들이 지쳐 있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시든 배춧잎'에 비유한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 민중들이 일제에 의해 억압받고, 무력하게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상징한다. 이는 '나'가 조선의 현실을 '공동묘지'로 생각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나'는 찾간 안에서 남뿔불이 흐릿하게 비추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치 그 불빛에 눌러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상황을 상징한다. '나'는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며 '질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 '나'는 조선의 억압적 현실을 깨달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흥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저렇게도 물골이 초라할까? 둘 사이의 주고받는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석도 몸집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변해 버린 작가(作家) 조운을 대할 때, 경이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역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조로 말을 끄집어는 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물골이 얼마나 초라할까가 마음에 걸려 미상불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 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일세.” / “기적 같은 말이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작가 조운이라면,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그것을 담는 난잡한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더욱이 자신에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 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 오던 사람이었다. 그를 따르는 문학소녀가 많았다.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와 작품, 범속한 것을 싫어하는 문학소녀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을 시인(是認)*할 수 있다’**는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인 신조였다.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고 생활은 늘 궁하였다.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문(賣文)*은** 하지 않았다.

항상 **초라한 물골**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차림에 도무지 무관심이었다.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의 덕으로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몸차림에 무관심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무슨 회합에든 공식 모임에는 통 나가지 않았다.

결혼식과 장례에는 머리가 쑤시었다. 전승과 마중,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렇던 조운이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기적이 아닐라 수 없었다.

<중략>

잠깐 머리를 푹 숙이었다가 조운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벗어 못에 걸어 놓았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쓴 것을 끄집어냈다.

“이걸 보게.”

내미는 종이 **꾸러미를** 펴 보고 싶은 석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뭐가?”

거기에는 새것인 검정 넥타이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이 나타났다. 봉투에는 ‘조운 선생님’이라고 틀림없는 여자의 글씨가 단정하게 씌어 있었다.

어안이 병병해 앉았는 석에게, 조운은 **편지**를 집어 알맹이를 내어 주었다.

“읽어 보게.” / “읽어두 괜찮은가?” / “읽게.”

펴 보니 간단한 문면이었다.

선생님의 호의는 뼈에 사무치오나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선생님 몰래 간호 장교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시험은 월요일 대구에서 치르나, 준비 때문에 지금 떠납니다.....

그때 그 넥타이는 집과 함께 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신입니다. 선생님은 역시 검정 넥타이를 매셔야 격에 어울립니다. 안녕히.

미이 올림

“미이?”

석은,

“그 미이인가?”

하고 가볍게 놀라면서 물었다.

“그렇네.”

미이는 조운을 따라다니던, 석도 잘 아는 문학소녀였다. 그러면 뜯소문과 같이 조운은 미이와 도피 생활로 삼 년을 지낸 것인가? 그러자 차 안에서 **도피 생활 운운의 소문**이 떠돌았다고 말했을 때, 침묵을 지키던 조운의 태도가 새삼스럽게 눈앞에 떠올랐다. 지금까지 관념 속에 그리고 있던 거룩한 조운이 한 개 장사치요, 자동차 바퀴를 굴러 먹고 사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 두려워졌다.

그러자 갑자기 석은 제 마음이 딱 차짐을 느꼈다. 그리고 **공격적인 어투**로 말이 튀어나갔다.

“정말, 자네 미이하구의 관계가 소문하구 같은가?”

“아닐세, 천만에.”

“그럼 이건 무언가?”

조운은 말을 못 하고 잠깐 눈을 감았다 다시 뜨더니, 술을 쪽 들이켠 다음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다.

미이는 자네도 알다시피 나를 따르던 문학소녀였었네. 소설을 쓰겠다고 내게 자주 오던 그는, 그때의 나와는 달라 **화려하고 명랑**하고 어느 편이냐하면 **부박한*** 편이었었네. 다방 같은 데 자네서건 함께 앉은 자리에도 나타난 일이 있었으나, 나타나서는 **부박한 의복**을 입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이 시인 저 시인 저 작가를 대해 **종알거리**는 양이 도무지 소설은커녕 일기 한 줄도 바로 써낼 것 같지 않았었네.

- 안수길, 「제3 인간형」

-25수특 갈복9 '제3 인간형' 변형.제작문항-

*시인: 어떤 내용(內容)이나 사실(事實)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認定)함

*매문: 글을 파는 것. 여기서는 신념을 꺾고 글을 쓰는 행위를 뜻함

1.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특정 인물의 주관적 심리가, [B]는 대상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② [A]는 작중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두고, [B]는 인물이 과거 상황에 대해 발화하는 것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이전과 달라진 대상에 대한 인물의 인상이, [B]는 대상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대상과 대조되는 초라한 처지에 대한 자조가 인물의 입을 빌어 서술되고 있다.
- ⑤ [B]는 인물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유사성을 띤다.

2. ㉞의 문맥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주제적 의지를 드러낸다.
- ②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겠다는 조운만의 신념이다.
- ③ 과작을 하더라도 깊은 숙고를 통해 글을 완성하겠다는 문학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난해한 문장이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려는 사람만을 위해 글을 쓰겠다는 조운의 신념을 드러낸다.
- ⑤ 자신의 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모두 포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3. 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중 상황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소재이다.
- ② 인물에게 과거 행적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편지를 쓴 인물의 이후 행적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 ④ 인물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당혹감을 표출하게 한다.
- 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인물이 놀라움을 표출하는 원인이 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보기>

「제3 인간형」은 6·25 전쟁을 겪으며 삶의 지침이 변화한 세 인물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한때 세속적 가치에 초연한 작가였으나 운수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정신적 가치를 잊고 타락한 조운을 제1 인간형, 그를 따르던 명랑한 문학소녀였으나 전쟁으로 집안이 몰락한 이후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미이를 제2 인간형, 그리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에 종사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미련만 갖고 있는 석을 제3 인간형으로 설정하여 이 세 가지 삶의 유형을 통해,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생존 자체가 지상 과제가 되는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석은 ‘흉허물 없는 사이’처럼 대화하고 있으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변해버린 조운의 모습에서 세속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충돌함으로써 나타나는 위화함을 느끼고 있다.
- ② 석의 기억 속 조운의 모습이 ‘초라한 물골’을 하고 있던 것은 그가 과거에 물질적 가치에 뜻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오늘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조운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 ③ 석이 자신에게 ‘주눅이 잡’힌다고 느끼게 한 대상을 과거에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로 평가하는 것에는 석이 한때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④ ‘종이 꾸러미’에 쓰여진 내용으로 인해 석은 ‘공격적인 어투’를 취하게 되고, 이는 ‘도피 생활 운운의 소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지고 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⑤ 조운이 ‘화려하고 명랑’했다고 평가한 것은 미이의 집안이 몰락하기 이전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미이가 ‘시험에 지원’한 것은 환경 변화로 인해 성숙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②

[A]는 석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고 있다. 석이 조운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고, 그에 따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자각하는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B]는 조운이 미이와의 과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과거 상황에 대해 조운이 직접 발화하는 형식이다. [A]는 석의 심리에 초점을 두고 있고, [B]는 조운이 직접 발화하는 방식이므로 적절하다.

① [A]에서 석의 주관적 심리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B]에서 이율배반적인 심리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과거 사건에 대한 조운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율배반적인 심리보다는 사실적 서술이 중심이다.

③ [A]는 조운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석의 인상이 드러나 있지만, [B]에서는 조운이 미이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조운은 미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반감보다는 이해와 회고에 가까운 내용이다.

④ [A]에서는 석이 조운과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비교하며 자조적인 심리를 드러내지만, [B]는 대상과 대조되는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서술이 아니다. [B]는 조운의 과거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⑤ [B]에서 조운은 미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A]에서 석이 조운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 [A]는 조운의 변화에 대한 석의 반응과 심리가 더 중요한 내용이다.

2. ④

㉞는 조운의 문학적 신념에 대해 설명하며, 그의 신념이 단순히 난해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난해함을 이해하려는 사람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④

편지는 미이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는 석에게 당혹감을 주기보다는, 석이 이미 알고 있던 소문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4. ①

가치의 충돌은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석은 내적 갈등을 겪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적 가치에서 세속적 가치로 변한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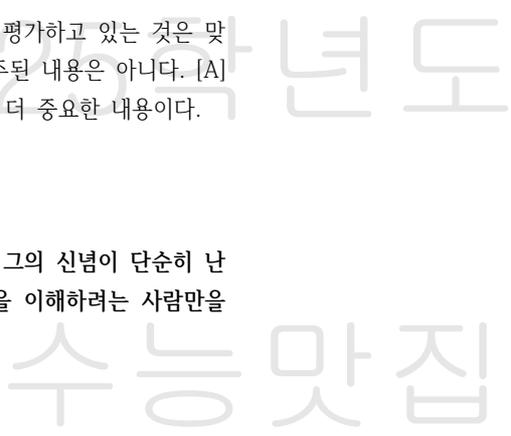
② 과거의 조운이 '초라한 물골'을 하고 있던 것은 세속적 가치에 초연했던 것을 보여주며, 현재의 변화된 모습은 그가 물질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③ 석이 과거의 조운을 높이 평가했던 것은 석 자신이 한때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운을 더 존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④ 편지 내용이 석이 조운에게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석은 조운과 미이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⑤ <보기>를 바탕으로 보면 미이가 명량한 문학소녀였던 것은 집

안이 몰락하기 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시험에 지원'한 미이의 행동은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른 장사치들은 D국민학교 앞에서 얼씬도 못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장사치들이 몰려들었으나 이내 철거당하곤 했다. D국민학교 애들은 ㉠ **강씨 이외의 장사치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토요일 어린이회 시간이면 아이들은 잡화상에 대한 철거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 안전에 따라 독하게 생긴 어린이 회장과 함께 담당 선생이 거들먹거리며 그들에게 철거를 요구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실력행사로 들어갔다. 어린이회장은 당장 다음 월요일부터 불매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고 정말 그 약속은 실현되었다.

주변 완장을 단 상급반 애들이 학교 앞 정문에 서서, 누가 그들에게 물건을 사는가를 감시하고 이름을 적었다. 그것은 매보다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장사치들이 이 꼬마들에게 어떻게 압력을 가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노상에서, 더욱이 국민학교 정문 앞에서 장사판을 벌인다는 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별 수 없이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야 했다.

강씨는 같은 장사치면서도 어린이 국회의 치외법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강씨가 단신 월남한 후, 그곳에서 솜사탕 장수를 할 때부터 으레 정문 앞에는 털보 강씨가 노트 몇 권이나 사탕 등을 놓고 팔고 있으려니 하는 이미 굳어진 일종의 잠재 의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D국민학교 어린 애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경험에서 우러나온 처세와, 그리고 교묘한 그의 연기력 때문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어른들에게서 진실로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도 잘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모두 ㉡ **열쇠 구멍**으로 어른들을 엿보기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어린애들은 코 안경을 높이 세우고 도덕을 역설하던 어른들도 일단 열쇠 구멍을 통해 볼 때는 비루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열쇠 구멍 저편에서는 편하게 마련인 이론만의 윤리와 도덕을 저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누구든 어른들의 은밀한 모범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강 씨로서는 아이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쯤은 쉬운 일이었다. 그는 ㉢ **아침마다 학교 앞을 손수 비로 쓸었고**, 어린이 회의에서 수재의연금 모집 안전이 통과되면 아깝지 않다는 듯 헌금을 했다. 아이들은 강씨의 왼손 팔뚝을 보고 싶어했다. 그곳에는 길이 십 센티미터 정도의 긴 상흔이 있었다. 언젠가 강씨는 몇몇 아이들이 물건을 사다 말고 그 상처를 자기네끼리 감탄해 가며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순간 강씨는 이 상처는 **빨갱이와 싸울 때 다친 상처**라고 거짓말을 했다.

[주요 줄거리] 여름이 되자 장사가 잘 되지 않던 강씨는 사행성이 짙은 장사를 계획하게 되고, 아이들이 강씨의 잡화상에서 돈을 탕진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이가 원판 앞에 모여 선 아이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서며 강 씨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아저씨, 정말 열 개 주는 겁니까?”

강 씨는 소리 나는 쪽을 보았는데 그곳엔 방금 낮잠을 깬 듯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서 있었다.

“아무렴, 자 할 테냐?” / “…….”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누런 이빨을 내보이며 노파처럼 웃었다. 그리고는 손바닥 안에서 동전을 굴렸다.

“몇 번으로 할 테냐?” / “아무 번호나.”

그 아이는 굉장히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소리로 대답하며 바지허리를 추켜올렸다.

“애, 몇 번으로 할까?” / 갑자기 그는 옆에 서 있는 급우에게 생각난 듯 물었다.

“글쎄 일 번이 어때?” / “일 번 그래, 참 좋은 번호네.”

그는 과장의 수고를 했다. 그는 서서히 비수를 들었고 길든 ㉣ **원판을 내려다보았다.** ㉤ **그의 태도는 어딘가 치수가 모자란 녀석처럼 별스러웠다.**

“둘러요, 아저씨.” / 강 씨는 원판을 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소년의 높이 쳐든 손아귀 안에서 비수는 소리도 없이 번득였다. 그와 동시에 그 아이의 입은 날카롭게 비틀렸다.

“사 번, 사 번이에요, 아저씨.” / 원판은 비수를 맞고 태엽 풀린 구식 축음기같이 점점 지쳐 갔다. 정확한 결정타를 맞은 권투선수인 양 원판은 그의 매니저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사 번이다!” / 둘러서서 원판을 응시하고 있던 아이들이 감격의 환호성을 발했다. 비수는 정확히 사 번에 꽂혀 있었다. ㉥ **강 씨는 순간 그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벌써부터 그 아이는 나른한 표정으로 강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이번에도 맞으면 열 개 주는 거죠?”

“물론이지.” / 강 씨는 어딘가 겁먹은 말투로 대답했다.

“애, 이번엔 몇 번으로 할까?”

이번에도 그 소년은 비수를 피살자의 가슴에서 뽑아 들며 조금 전의 급우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가 말했던 번호가 무시당했음을 의식했기 때문에 무안해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 번이 어떨까, 사 번이 괜찮지.”

“그래.”

딱 아이가 뒤에서 대답하자, 소년은 비수를 높이 쳐들었다. 원판은 새로운 경주를 시작했고 비수는 사생아처럼 내던져졌다.

“일 번이에요, 아저씨.”

소년은 권태로운, 마치 낮잠이 오는 듯한 그런 나른한 목소리를 내었다. 순간 원판을 둘러싼 모든 것은 정지 상태로 일변하였다. 둘러서 있는 아이들과 강 씨의 시선은 필사적으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한 무리의 정지 상태는 뺨뺨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나지막하게 숨을 고르면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한바탕의 소요가 가라앉자, 원판은 일 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녀석은 단 두 개의 동전으로 스무 개의 사탕을 획득했다. 소년은 그 사탕들을 둘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의 얼굴엔 기쁨도 환희도 아무것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매우 피로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소년은 사탕을 모조리 나누어 준 다음, 천천히 책가방을 들고 시내 쪽으로 걸어 나갔다. 아이들은 배급 탄 사탕을 굴리며, 그가 전차가 달리는 거리로 꼬부라질 때까지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다봐 줄 것을 기대하였다. 허나 소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꼬마 녀석이 한바탕 휘저어 놓은 ㉠ **끈적끈적한 불쾌감과 도전해 오는 듯한 태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밥을 해치운 그는, 콩초를 갈아 피우며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힐책하는 눈초리와 굵은 어깨, 작은 손아귀에 들린 쇠꼬챙이가 번득이며 원판을 내리찍던 광경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 최인호, 「모범 동화」

1. 윗 글에 대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명시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 ② 서술 주체를 드러내는 표지를 통하여 인물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 장소와 관련된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이 지각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체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이 관찰한 바를 작품 외부의 서술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씨가 D국민학교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른 장사치들에 비해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 타인에게 호감을 얻음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다.
- ③ ㉢: 대상의 언행과 행동을 토대로 주변의 다른 인물들과 실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 예측과 달리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간파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이 계획했던 의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낭패감에 따른 반응이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 ① ㉠에서는 관찰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서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다른 인물들과 달리 특정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관찰 이전과 이후 대상의 모습에 차이가 드러나며, ㉢은 인물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 ④ ㉠에는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갈망이 내포되어 있고, ㉢은 이를 제작한 인물의 욕망이 함축되어 있다.
- ⑤ ㉠에 비해 ㉢은 인물이 원하는 대상의 의미가 한정적이며, 이는 ㉢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보기>를 토대로 윗 글을 이해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윗글은 제목의 의미와 달리 모범적이지 않은 어른들의 행태를 통해 70년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다소 사기성이 농후한 행동을 일삼는 어른과 이를 추종하는 아이들, 어른들 세계의 위선과 타락 등을 간파하고 폭로를 서슴지 않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인 생기와 발랄함, 순수함과 달리 늘 피곤한 표정으로 어른들에게 냉소를 드러내는 아이 같지 않은 아이, 애어른과 같은 소년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보여 준다.

- ① 강씨가 '어린이 국회의 치외법권자'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은 '현금'을 하는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표면적인 태도와 달리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② '빨갱이와 싸울 때 다친 상처'는 발화자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자기네끼리 감탄'하는 인물들의 추종을 이끌어내고 있군.
- ③ '원판이 '처참하게 무릎을' 꿇은 것은 소년의 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씨가 '겉먹은 말투'를 한 것에는 위선이 폭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노파처럼 웃'는 아이가 사탕을 획득했음에도 '기쁨도 환희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소년이 '낮잠이 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어린이의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음이 확인되며, '사탕을 모조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군.

1. ④

강 씨가 자각한 내용에 맞추어 그의 체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2. ④

강씨가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은 아이가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는 아이들이 무엇이 굶주려 있는가 ~ 잘 알고 있었다.’ 구절을 통해 강씨가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들이 ‘어른들의 은밀한 모범’을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강씨는 ‘학교 앞을 손수 비로’ 쓰는 행동을 통해 호감을 얻어 개인적인 이익인 장사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③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무기력하고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질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⑤ 강씨가 아이의 비상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장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으로 낭패감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25학년도

3. ④

‘아이들이 진실로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라는 ㉔의 선행 진술에서 아이들의 갈망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㉕는 강씨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과시라고 보기 어렵다. 과시는 적극적으로 태도를 표출해야 한다.

수능맛집

4. ⑤

소년이 사탕을 나누어 주는 장면은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라기보다는, 그가 아이들에게 우상으로 비추어지는 모습과 그의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소년의 행동은 어른들의 위선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냉소를 담고 있는 것이지,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과는 멀다.

① 강씨는 ‘현금’같은 모범적인 행위를 하지만 ‘치외법권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② 강씨가 ‘빨갱이와 싸울 때 다친 상처’라고 사기성이 농후한 말을 통해 그의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며, 이러한 행동은 아이들의 감탄과 추종을 이끌어내고 있다.

③ 소년이 원판을 정확히 맞추면서 자신의 의도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강씨가 자신의 사행성 장사가 폭로될 가능성, 즉 위선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통해 노파처럼 웃는 아이가 기쁨이나 환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자, 그럼 **처음부터 찬찬히 이야기해봐**. 거짓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아. 우린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열 여덟 살 만덕이에게는 아버지뻘이나 되어 보이는 중년 수사관이 불편을 거기 조서 위에 굴려 놓고 결상 등반이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이미 조서는 꾸며졌으니 **들어나마나 한 이야기**지만 하도 애원을 하니까 한 번 더 들어봐 준다는 그런 태도였다.

“형사님, 제가 왜 무엇 때문에 거짓부령을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 요만큼도 거짓부령 없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나무 결상에 두 무릎을 모으고 단정하게 앉은 만덕은 새끼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그 새끼만 손톱을 가리켜 보이며 울상을 지었다.

“글쎄,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보라는 거 아냐!”

수사관은 담배를 붙여 물며 맞은 편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뻘한 사건**을 빨리 끝내 버리고 싶은 그런 눈치였다.

㉡ “**나 정말 미치겠네요! 억울합니다. 정말!**”

만덕이란 그 눈이 커다란 소년은 벌써 얼마든지 울었던 모양으로 형편없이 얼룩진 얼굴을 또 한 번 시꺼먼 작업복 소매로 문질렀다.

“이 녀석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라는 거 아냐!”

수사관은 꽤 **고함**을 질렀다. 만덕은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내려 놓으며 한 번 수사관을 쳐다보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법 맑은 음성에 시고 무식한 소년 치고는 이야기가 또박또박 조리 있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그게 아마 열 시쯤이었을 겁니다. 읍내의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한 통 배달해 주고 갔어요.

“그때 너는 펌프에서 밥그릇을 씻고 있었고”

수사관이 빙그레 웃어 보았다.

“예, 다 알고 있구먼요.”

“이 녀석아,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어. 다 조사했으니까.”

“아 그럼요,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부령을 합니까. 좋아요, 형사 아저씨가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퍽 놓이**누만요.”

이번에는 만덕이 그 얼룩진 얼굴에 하죽이 웃음을 담아 보였다. 수사관이 귀신처럼 죄다 알고 있으니 자기의 죄 없음도 알것이고 진범도 쉬 붙들릴 테니까. ㉢ -**그래 난 그 편지를 들고 선생님 화실로 갔죠**. 화실은 내가 있는 별채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선생님, 편지 왔습니다.”

나는 문을 두어 번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기척이 들리며 문 손잡이를 덜컥거리더군요.

“문이 잠겨구만.”

안에서 선생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밖에서 한 번 더 동고란 손잡이를 쥐고 돌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연한 짓이죠. 그 출입문은 안에서 잠그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한 번 ㉣ **손잡이**가 안에서 덜컥거렸습니다.

[중략 줄거리] 화가가 화실에 갇혔다는 사실을 안 만덕은 열쇠로 문을 따보려 했으나, 고장난 문은 열리지 않는다.

“야 인마! 가면 어떡해! 어서 **목수** 못 불러 와!”

선생님은 창문으로 달려와 쇠창살을 두 손으로 짝 쥐고 마구 흔들며 대며 소리소리 지르지 뭐니까. 그건 언제나 인자하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난 전엔 그런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창에 ㉤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뛰어넘어 나와서 날 박살을 냈을 겁니다. 정말 겁났어요. 이마엔 핏줄이 서고 입은 짝 다물고. 선생님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 “**야! 빨리 문 열어!**”

갑자기 선생님이 미친 것이나 아닌가 했다가요.

“예, 목수 아저씨한테 또 갔다 올게요, 선생님!”

나는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읍내로 달렸습니다. 그때 벌써 밤이 꽤 깊었죠. 캄캄한 길을 나는 거의 단숨에 읍내에 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뭐니까. 목수 아저씨는 잔뜩 술에 취해서 자고 있지 뭐니까.

“아저씨, 빨리 좀 일어나세요. 문을 좀 열어 주어야 해요.”

“음, 문……? 문을 열면 되지 뭐 그래.”

목수 아저씨는 눈도 안 뜨고 그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좀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잔뜩 화났단 말예요!”

“화가 나……? 왜 화가 나…….”

목수 아저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취해서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이죠.

“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단 말예요!”

“문아…… 고장이 났다!” / “예, 그래요.”

“인마, 문이 무슨 고장이 나고 말고가 있어…… 열면 되지…… 문이란 인마, 열리게 돼 있는 거지, 인마.”

목수 아저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쓱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누워 버렸**어요.

“그게 아냐요. 아저씨가 달아 준 저의 선생님 화실 문 알잖아요.”

“에이, 시끄럽다! 걸어차라 걸어차! 그럼 제가 열리지 안 열려! 열리지 않는 문이 어디 있어, 인마.”

목수 아저씨 잔뜩 몸을 꼬부리며 좀처럼 깨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총각, 웬만하면 널 아침 일찍 고치지. 저렇게 취했으니 뭐가 되겠어 어디.”

목수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글쎄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미쳐? 아니 문이 안 열린다고 미칠 거야 뭐 있어?”

“글쎄나 말이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런 걸 어떡해요.”

“왜, 뒷간이라도 가고 싶은가?”

“뒷간엔요! 그런 건 다 안에 있죠.”

“그럼 배가 고프는가?”

“허 참, 아주머니도. 먹을 건 얼마든지 안에 다 있다가요!”

㉦ “**그런데 왜 그래. 먹을 것 있구 뒤볼 데 있으면 됐지, 그런데 미치긴 왜 미쳐?** 오, 바람이 안 통해서 숨이 답답한가 보구면 그

래.”

“허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왜 안 통해요. 스무 평 방의 사방이 창문인데!”

“그럼 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더구나 지금 밤인데, 열어놓았던 문도 걸어 잠그고 잘 시간인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 원 참 별난 양반 다 보겠네.”

- 이범선, 「고장난 문」

1. ㉠ ~ ㉣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화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해 상대방에게 재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다.
- ② ㉡: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③ ㉢: 서술 주체가 작품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 발화 주제를 알리는 표지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인물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바가 서술되고 있다.

2. ㉠과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이야기의 주제를 나타내는 제재라면, ㉢은 이야기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제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인물이 처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물이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이 인물의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면, ㉢은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표지로 볼 수 있다.
- ④ ㉠은 인물이 겪게 된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단서이고, ㉢은 위기 상황을 타개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재이다.
- ⑤ ㉠이 문제 상황을 발생시킨 원인이라면, ㉢은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인물이 원하는 행동을 가로막게 되는 소재라 볼 수 있다.

3. **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 ②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
- ④ 주관적 판단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상대의 문제 제기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4. <보기>를 토대로 **윗 글**을 이해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알레고리(Allegory)는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다른 주제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고장난 문」은 쉽게 열려야 할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통해 외적 상황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특히 인물이 폐쇄된 상황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사회를 폭로하고 있다.

- ① ‘수사관’이 ‘이야기’를 ‘들어나마나’하다고 인식하며 상대방의 경험을 ‘뻔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군.
- ② ‘수사관’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 개인을 억압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면, ‘만덕’이 ‘정말 마음이 텅 놓’인다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 소통이 강요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꼬는 것이겠군.
- ③ ‘목수 아저씨’가 ‘씩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버’리는 것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소통이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선생님’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마구 쥐어뜯’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문’이 열리지 않아 촉발된 행동으로, 자유를 억압당하는 개인의 절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⑤ ‘목수네 아주머니’가 ‘만덕’의 발언을 듣고도 ‘참 별난 양반 다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로 판단할 수 있겠군.

1. ④

발화 주체를 알리는 표지는 대명사를 뜻한다. 여기서 발화 주체는 화가이므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나 그 외에 자신을 지칭하는 3인칭의 대명사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㉔에는 이러한 대명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3인칭 대명사의 경우 자신을 객관적으로 칭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야'와 같은 2인칭 대명사는 발화 주체인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뀌며 서술 주체가 작품 외부에서 작품 내부에 있는 만덕이로 바뀌고 있다.

2. ⑤

㉔(손잡이)가 잠겨 문이 안 열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㉕(쇠창살)이 없었으면 선생님이 자신을 박살냈을 것이라는 만덕의 말을 통해 인물이 원하는 행동이 쇠창살을 통해 가로막혔음을 알 수 있다.

3. ③

목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만덕이가 말하는 것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마, 문이 무슨 고장이 나고 말고가 있어…… 열면 되지……'라고 대답한다.

4.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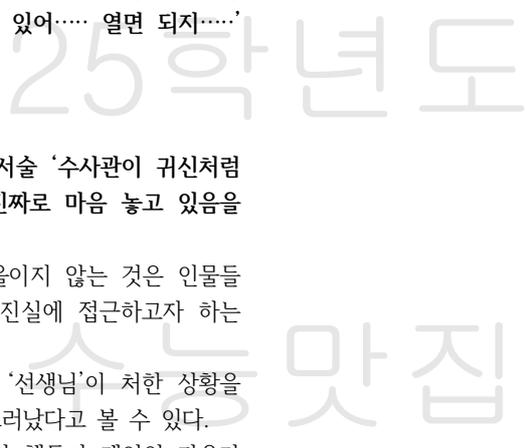
만덕이의 발언 이후 이어지는 서술자의 서술 '수사관이 귀신처럼 죄다 ~ 붙들릴 테니까'를 통해 만덕이 진짜로 마음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수사관'이 뻔하다며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인물들 간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목수 아저씨'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선생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통이 부재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통해 화실에 갇힌 '선생님'의 행동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통해 '목수네 아주머니'가 '선생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의서 내용을 소상히 밝힐 만큼 우 하사의 동기생들은 친절하지 않았다. 다만 도장을 지참하고 일렬로 주욱 늘어서 한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뒤편에 전에 ㉠ **불쌍한 눈** 호강이나 시키자구!”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찍는 도장이 장차 무엇에 소용될 것인지를 곧 알았고, 각자가 도장으로 확인해 준 내용의 엄청난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우 하사의 동기생들은 술을 진탕 마시고는 비틀 거름으로 각 내부만을 돌면서 **영영 소리 내어** 울다가 우 하사의 이름을 부르다가 했다. 누구도 그들의 서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보이는 광란에 가까운 전우애는 누가 만약 입바른 소리라도 할라치면 당장에 때려죽일 것 같은 기세였으며,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대대 **분위기를 점점 최면시켜** 진실과 허위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다. 목석이 아닌 이상 그것은 감동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신들린 상태였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인물이 있었던가 새삼스레 돌아다보아질 정도였다. 심지어는 건의서 상으로 우 하사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지목된 ㉡ **세 명의 사병**마저도 정말 자기를 구한 것이 우 하사 그 사람인 줄로 믿어 버릴 정도였다. 우리는 모두 합심해서 하나의 미담을 엮어 내었고, 그 미담 속에서 우 하사는 하루가 다르게 완벽한 영웅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 **대대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체 사병의 귀감이 될 영웅적인 하사관 한 명쯤 자기 휘하에 두었대서 조금도 손해날 일은 아니었다. 대대장의 확인을 거쳐 단본부에 제출된 우리들의 진정 내용은 일차로 단장을 감동시켰다. 그는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우선 빈사의 **하사관을 장교 병동에 입실**시킨 다음 민간인 연고자가 영내에 거주하면서 간호에 임하도록 했다. 훈장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먼저 비행단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아쉬운 대로 성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각 언론 기관에 연락하여 일단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취재를 하도록 했다.

[종략 줄거리] 큰 부상을 입은 우 하사의 수발을 신 하사가 자청하여 들기 시작했으나, 우 하사는 결국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다. 이후 비행단장은 신 하사를 기자 회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다.

회견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톱니바퀴가 물리듯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각자가 겪은 일들을 진술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한 개인의 경험을 떠나 우 하사의 행위와 교묘하게 결부시키는 화법들을 썼다. ㉣ **기자들**은 열심히들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임이 거의 확실해진 순간이었다.

“혼자서 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해 오셨다죠?”

여태껏 한쪽 구석지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던 신 하사에게 일제히 시선이 집중되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군요. 어때요, ㉤ **신 하사**가 보는 우 하사의 인간 됨됨이랄까 병상에서 있었던 일화 같은 걸 소개해 주실까요?”

자리나 메우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직접 입을 열어 뭔가를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할 사람치고는 분명히 자격 미달이었다. 신 하사를

그런 자리에 끌어들인 그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배역임이 뒤늦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 하사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어떻습니까, 평소의 그답게 투병 생활도 영웅적입니까?”

“…….”

“사고 당시 **격납고 안에서** 우 하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신 하사가 맡은 몫을 기어코 감당하게 만들 작정으로 그들은 번갈아 가며 질문을 던져 말문을 열게 하려 했다.

“예.”

하고 마침내 신 하사의 입에서 대답이 떨어졌다.

“그때 우 하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 하사가 입을 열었을 때 깜짝 반가워하는 표정이던 기자들이 **이 예상 밖의 답변**에 점잖지 못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부터 그들은 신 하사를 노골적으로 깔아 보기 시작했다.

“그가 불에 탔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냥 불에 타기만 했냐는 겁니다.”

“예.”

회견장이 소란해졌다.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불이 붙기 전에 우 하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불이 붙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아, **가연은** 신 하사…….

“작업이 거의 끝나 가던 참이었습니다. 우 하사는 작업복이 기름 투성이었습니다. 평 소리가 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환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 하사가 불덩이가 되어서 훌쩍훌쩍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무슨 영문인지…….”

그날 오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당했다. 일과가 끝나 갈 무렵에 격납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그랬다. 평 하고 터지는 폭발음이 울림과 동시에 줄지에 주위가 불바다로 변하더라는 것이었다. 때마침 온 좋게 격납고 밖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하게 된 사람들의 얘기는 격납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이 빠져가지고 불길 속을 우왕좌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순간적이었다는 것이다. 훈련 비행기 한 대가 착륙 자세를 잡은 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간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술하게 보아 왔지만 불길한 예감과 함께 유독 그것만은 눈길을 끌더라는 것이다. 똑바로 자기를 겨냥하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접근해 오는 걸 보니 조종사가 낙하산 탈출할 때 조종석 덮개가 벗겨져 나가면서 꼬리 날개를 자른 흔적이 얼핏 눈에 띄었고, 그것은 바람을 가르는 쇠소리를 거느리면서 활공 비행으로 내려오다가는 활주로를 멀리 벗어나 퍼런 스파크를 튀기면서 용하게 주기장(駐機場) 빈터에 접지한 다음 행하게 개방된 격납고 문 안으로 마치 골인하듯이 곧장 뛰어들더라는 것이다.

“신 하사가 목격한 것은 아마 쓰러지기 직전의 마지막 광경이었을 겁니다. 자아, 그럼 이것으로 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보던 정훈 장교가 서둘러 질문을 마감해 버렸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마련한 기자 회견의 자리는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끝나갈 수 있었다.

회견이 끝난 그 직후부터 신 하사는 몹시 바쁜 몸이 되었다. 여기저기 **오라는 데**는 많은데 몸뚱이는 하나여서 그야말로 오줌 싸

고 빛 볼 틈조차 없어 보였다. 회견석상에서의 신 하사의 마지막 언급이 그만 단장과 대대장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윤홍길, 「빙청과 심홍」

-25 수완 실전5 '빙청과 심홍' 변형.제작문항-

1. **윗글의 (나)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하는 두 입장 중 서술자가 특정한 입장을 선택하여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특정 상황과 관련된 경험을 종합해 요약적으로 재진술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이 처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사건의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2. **권의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기생들의 진심어린 전우애를 바탕으로 제작된 문서이다.
- ② 기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문건이다.
- ③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 ④ 사건의 진실과 다른 내용을 대대장이 작성토록 한 것이다.
- ⑤ 우 하사가 기자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인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 과정이 왜곡되게 된다.
- ② ㉡은 외부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실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 ③ ㉢은 우 하사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상대방의 답변이 예상과 다른 것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⑤ ㉣은 관찰한 사실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진술을 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빙청과 심홍」에서 서술자는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서술 방식은 집단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자는 평범한 인간을 영웅으로 조작함으로써 자신의 명리를 위하여는 권위의 횡포 앞에 도전하고 나서는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술자는 집단과 인물의 논리를 이해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집단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 ① '영영 소리내어' 우는 '우 하사의 동기생들'의 행위가 '분위기를 점점 최면시'켰다고 하는 것은, 집단의 논리가 상황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군.
- ②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은 '신 하사'를 '가엾'게 느끼는 것은 집단보다는 인물의 논리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③ 대대장이 '하사관을 장교 병동에 입실'시킨 것은 집단 내에서 특정 인물의 위상을 높여 개인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군.
- ④ 기자 회견 이후 '신 하사'를 '오라는 데'가 많아진 것은, 권위에 저항하는 인물에 대해 '격납고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이군.
- ⑤ '신 하사'의 '예상 밖의 답변'은 집단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어지는 답변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응성거리는 소리'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었군.

수능맛집

1. ③

‘그날 오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당했다. ~ 격납고 문 안으로 마치 골인하듯이 곧장 뛰어들더라는 것이다.’와 같이 격납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 격납고 밖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하게 된 사람들의 얘기 등을 통해, 신 하사가 사고 당시에 겪었던 상황과 관련한 부대원들의 실제 경험담을 서술자가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재진술하고 있다.

2. ③

‘건의서 상으로 우 하사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지목된 세 명의 사병’ 이라는 서술에서, ‘건의서’는 문맥상 우 하사의 사고를 왜곡하여, 우 하사가 돌보이도록 조작한 문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의서에는 우 하사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다.

④ 건의서 작성 주체는 우 하사의 동기들이다. 대대장은 이를 작성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사건의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했을 뿐이다.

3. ③

‘전체 사병의 귀감이 될 영웅적인 하사관 한 명쯤 자기 휘하에 두었대서 조금도 손해날 일은 아니었’다는 서술에서 대대장은 사실과 다른 우 하사의 행적을 보고한 보고서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우 하사의 행위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대장 역시 우 하사의 행위를 영웅적 행위로 탈바꿈시키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므로 우 하사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족감의 범주가 ‘보고서에 올라온 우 하사의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가 왜곡된 것이기 때문이다.

4. ④

신 하사의 발화는 ‘단장과 대대장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오라는 데’가 많아진 것은,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은 신 하사에게 단장과 대대장 등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은 신 하사를 문책하기 위한 것이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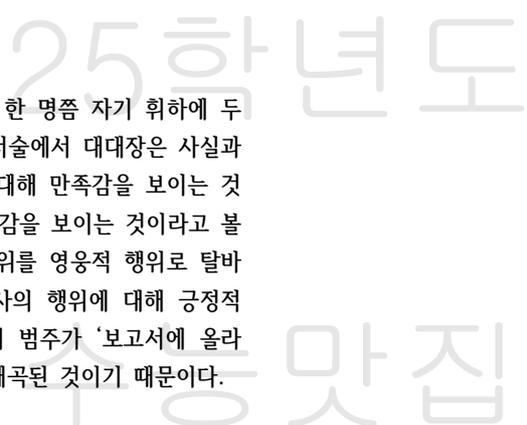
① 실제와 달리 우 하사의 동기생들이 ‘광란’에 가깝게 울며 우 하사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인해 건의서 상으로 우 하사에게 구출된 것으로 처리된 세 명의 사병들도 이를 진실로 믿게끔 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는 군대라는 집단의 논리가 상황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서술자가 들은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다. 이는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또한 신 하사를 ‘가엾’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의 처지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술자가 집단인 군대보다는 개인인 신 하사의 논리에 더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하사관인 우 하사가 장교병동에 입실한 것은 자기 휘하에 귀감

이 될 만한 하사관 한 명쯤이 있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대장의 명예에 의한 것이다. 이를 볼 때 대대장은 <보기>에 나온 ‘평범한 인간을 영웅으로 조작함으로써 자신의 명리를 위한’ 인물이며, 이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신 하사’의 답변은 우 하사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집단의 논리와는 상반되는 대답이었다. 이어지는 질답을 통해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 이는 기자들 역시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기에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고전산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파담자는 충주 강가에서 왜란으로 희생당한 유해를 보고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시를 짓는다. 이후 꿈 속에서 파담자는 병사들의 원혼과 만나 대화를 한다.

병사 귀신이 말했다.

“그대는 전날 여기를 지나간 이가 아니오? 그때에 보내준 시를 우리들은 잘 받았소. 그 시와 울은 풍자가 잘 되었으며, 절구는 처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읽을 수 없게 하니 참으로 이른바 귀신도 울리는 문장이었소.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이기에 다행히도 군자를 만나 보니, 구름 같은 지난 일을 날날이 이야기할 수는 없소만 그 중의 한두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대는 듣고서 세상에 전해주면 매우 다행이겠소이다.”

하고는 곧 털어놓기를,

“장수는 삼군의 생명을 맡은 이요, 병사는 한 사람이 지휘하여 쓰는 것이니 만일에 장수가 어질지 아니하면 반드시 일을 망치는 법이오. 중원(中原) 충주(忠州)는 지세가 뛰어나서 실로 남기(南紀)요, 초점(草岾)은 천험(天險)의 으뜸이요, 죽령은 지리로 따져 믿을 만한 곳이므로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사람도 열지 못함은 촉도(蜀道)보다 어렵고, 백 사람이 요새를 지키면 천 사람으로도 뚫고 지나가지 못함은 위험하기 정형(井陘) 하북성 정형산 위에 있는 요새)같으니, 나무를 깎아서 목책(木柵)을 만들고 돌을 쪼개어 병거(兵車)로 삼으면 북쪽 군사가 어찌 날아선들 건너오리오. 남풍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오지 않을 것이니, 폭 신 아군으로 피로한 적을 기다리면 장사는 배개를 높이 하고, 주인이 되어 객을 제압하면 승패는 바둑판같이 흰하거늘, 아깝도다! 신 공의 계략이 이러하지 못하고 그 위엄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 김 종사(金從事)의 청이 어찌 근거가 없으리오. 이순변(李巡邊)의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었건만, 듣지는 않고 감히 억측으로 결정하였던 것이오. 신 공의 말이, ㉠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걷기가 어렵고, 길을 두 배로 빨리 달려온 적은 개·돼지와 같이 계략이 없는 법이니, 평평한 큰 들판에서 단판 싸움에 때려부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산 험한 고개에 두 길로 갈라서 지킬 필요가 어디 있겠나?’ 하고, 드디어 탄금대(彈琴臺)로 퇴진하여 용추(龍湫) 물가에 탐정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고, ‘세 번 호령하면 북을 치며 오위(五衛)의 군사에게 재갈을 물려 까닭없이 군사를 놀라게 하는 자를 베는 것은 손자(孫子)의 병법이요, 사지(死地)에 놓여야만 마침내 산다 함은 한신(韓信)의 기이한 계략이다.’ 하였소. 이는 거문고의 기둥을 아교로 고착시켜 놓고 거문고를 뜯는 것이나, 나무 그루만 바라보며 토기 오기를 기다리는 식이라. 효원(孝元)을 죽이고, 안민(安敏)을 목벤 일도 본래 이런 데서 말미암은 것이며, 건아(健兒)는 핏덩이가 되고 장사(壯士)는 고깃밥이 되었으니 또한 참혹한 일이 아니겠소. 더욱 우스운 것은 서릿발 같은 큰 칼과 해에 번쩍이는 긴 창을 번득이면서 날뛰고 고함지르며 한참 싸우는 판에 별안간 진지를 바꾸어 징을 치고 깃발을 놓으니 그 당당하고 정연하던 대형세가 구름같이 흔들리고 새처럼 흩어져 용감하고 씩씩하던 군사가 뒤만 돌아보고 두 손을 모아서 드디어 관문을 뛰어

넘고 배를 끼고 강을 건너뛰던 용기와 박차고 일어나 싸우려던 힘으로 하여금 마침내 피투성이로 쓰러지게 했으니, 당시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잘 싸우는 장수는 있어도 잘 싸우는 병졸은 없었으니, 어찌 우리들만 목이 베어졌겠소. 불세출의 재주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공을 세우려 하니, 우리가 이러한 죽음에 어찌하겠소?”

하였다. 말을 마치자 근심스러운 낫빛으로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이윽고 피로한 기색을 띤 장부가 부끄러워온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정거리며 그 발은 머뭇머뭇, 그 입은 말을 못하고 여닫기만 하다가 읊하고 고하기를,

“고아가 된 아들,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한이 내 일신에 모였으니, 내 비록 죄진 몸이나 오늘 그대들의 말에 있어 어찌 변명하지 않겠소. 나는 본래 장군 가문의 후손으로, 계보는 귀인의 집에서 나왔으므로 기운은 소도 삼킬 만하고 성품은 말달리기를 좋아하였소. 삼세의 경계에는 어두웠으나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병법을 배웠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호방(虎榜)에 장원급제는 못했지만 백보 밖의 버드나무 잎을 뚫을 정도로 활쏘는 재주를 참으로 배웠더니, ㉡ 밝은 임금에게 그릇 알려져서 외람되어 임금의 은혜를 받아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되었소. 북쪽의 오랑캐가 준동하였을 때에는 서관(西關)에 장성(長城) 구실을 하며 번개처럼 한 칼로 소탕하여 적을 없애버렸고 우레같이 삼군을 움직여 그 소굴을 무찌르니, 마치 강동(江東)이 장요(張遼)의 이름에 우는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며, 새북(塞北)이 이목(李牧)의 위엄에 놀려 말(馬)도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같았지요. 공은 적었으나 보답은 무겁고, 지위가 높으니 뜻도 높았소. 한강과 금강의 사이를 달리니, 금띠를 허리에 차고 승명려(承明廡) 한 나라 때 신하들의 속직소에 드나들 때 임금께서는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소. 변방의 풍진이 한번 일어나자 봉화의 신호가 석 달을 계속하니, 장수로 제수한다는 명령을 받자 곧 전장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어전에서 간절히 아뢰는 말씀에 임금께서 감동하시어 일신 장수를 통솔할 권한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겼소. 적을 흰히 꿰뚫어보고, 군사는 손바닥 위에서 운용하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강한 눈을 종아리만 때리기로 작정하고 문을 열어 도적을 끌어들이는 것을 깨달지 못했소.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 사람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고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패하는 법이라. 마복군(馬服君)의 아들 조괄(趙括)의 일과 같았으나, 어찌 사람의 잘못만 이겠소. 역시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소. 어려(魚麗)의 진을 치지도 못한 채 왜적이 선수를 치니 형세는 북산(北山)을 차지한 자가 이긴다 하듯이 지리적 조건도 비록 편했지만 사람들이 다투어 동해(東海)에 뛰어들어 죽었으니, 대사는 이미 끝났소. 아! 어디로 돌아갈꼬. 나 홀로 무엇을 할 것인가. 드디어 여덟 자의 몸을 만길 물속에 던졌던 것이오. 놀란 물결이 넘쳐도 이 부끄러움은 씻기 어려우므로 맑고 빠른 여울은 슬피 흐느끼면서 다투어 나의 회포를 호소하지요. 가끔 구름이 골짜기 어귀에 잠기고, 달이 못 가운데 비치는데 낮은 외로워 의지할 곳이 없고, 그림자는 홀로 서러워하네. 세월이 덧없이 가고 억울한 심사는 미처 펴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그대를 만나 마음속을 털어놓게 되었소. 아! 항우(項羽)가 산을 뽑는 힘과 세상을 뒤엎을 기개를 가지고 백 번 싸워 백 번 이겼지마는 마침내 오강(烏江)에서 패하였으며, 제갈량(諸葛亮)

이 와룡(臥龍)의 재주로 한(漢) 나라를 붙들려는 충성을 품고 기산(祁山)에 다섯 번을 나가 싸우고 다섯 번을 돌아왔으나 보람이 없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한 일이라 사람이 어찌 하리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라. 아! 저 아득한 하늘이여!”

- 윤계선, 「달천몽유록」

-25수특 고소4 '달천몽유록' 변형.제작문항-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대화를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인물 간 판단이 대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현실과 꿈의 이동이 드러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사건이 꿈에서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한 인물의 지적에 대해 다른 인물이 변명을 하며, 의견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대화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정황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실의 사건이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이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제시되고 있다.

2. <보기>의 설명을 토대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몽유록은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용에 기반하여 창작된 문학 작품이다. '현실-꿈-현실'의 액자식 구조를 가지며, 꿈 속의 인물과 현실의 인물은 동일한 인물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꿈 속 경험이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파담자가 꿈에서 귀신들과 대화하는 것은 현실과 달리 꿈에서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군.
- ② 파담자가 병사를 위로하는 시를 쓴 것은 병사 귀신의 발화가 현실에 인물에 영향을 준 것이군.
- ③ 병사 귀신이 공을 세우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현실의 사건이 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군.
- ④ 장부가 현실에서 행했던 일을 부끄러워 하는 것에서 현실과 꿈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병사 귀신과 장부의 대화를 파담자가 관찰하는 것은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파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군.

3. ㉠과 ㉡의 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판단한 바에 대하여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발화가, ㉡은 임금의 잘못된 판단이 초래한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② ㉠은 대상에 대한 비하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 ㉡은 대상의 행위에 대한 예찬과 경외의 태도가 드러나는 표현이 나타난다.
- ③ ㉠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지 않음을,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과거 경험에 대한 공격을 내세우고 있다.
- ④ ㉠은 영탄적 어법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추론이, ㉡은 겸양의 표현을 통해 자신이 맡은 직책이 과분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대상의 무능함을 부각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음을, ㉡은 상대방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병양란의 경험은 문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변형이 많이 일어났다. 이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참혹한 경험에 대한 책임을 타인 또는 운명으로 전가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행위이다. 「달천몽유록」은 임진왜란 과정 중 있었던 탄금대 전투 참패의 원인을 무능한 장수의 부적절한 처신, 민족이 맞이해야 했던 가혹한 운명 등으로 돌리며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대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① '탄금대(彈琴臺)로 퇴진하여 용추(龍湫) 물가에 탐정을 보내어 정탐'한 것은 전란에서 겪었던 경험을 서술한 것으로, 이에 대해 '참혹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경험에 대한 주관적 수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충주는 지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승패는 바둑판같이 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신 공의 계략이 이리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서 패전을 특정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전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군사들이 '용감하고 씩씩'하다고 한 것이나 장부가 '지위가 높으니 뜻도 높'다고 한 것은 참혹한 경험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려고 하는 발언으로,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볼 수 있다.
- ④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적을 업신여기'는 것에서 장부는 본인의 탓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발언을 통해 실패에 대한 경험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항우가' '오강에서 패하였'다는 것과 '제갈량이' '보람이 없'다는 것은 장부의 운명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드러내어 전투의 실패를 '하늘이 한 일'로 돌리는 것이다.

1. ㉠

병사 귀신과 장부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과거 사건에 대해 각자의 판단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

파담자가 시를 쓴 것은 꿈 속에서 병사 귀신의 발화가 현실의 인물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파담자가 시를 쓴 것이 꿈속의 병사 귀신에게 영향을 준 것이므로 이 선지는 부적절하다.

3. ㉢

㉠은 ‘거위나 오리처럼’, ‘개·돼지와 같이’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보여주며, ㉡에서는 과거의 공적을 ‘번개처럼 한 칼로’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내세우고 있다.

4. ㉤

‘도적을 끌어들이 것을 깨닫지 못했소.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 사람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고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패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부가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어찌 사람의 잘못만이겠소. 역시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소.’라는 발언으로 하늘의 책임으로도 돌리는 것이다.

㉠ 전란에서 겪었던 경험을 ‘참혹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패전 경험에 대한 병사 귀신의 주관적 수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패전의 원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신 공’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군사들이 ‘용감하고 씩씩’하다고 한 것이나 장부가 ‘지위가 높으니 뜻도 높’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본 모습은 패전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으로 자신의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장부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를 취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노국공 범질의 아들인 범경문은 정혼녀인 유혜란이 있음에도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교란과 혼인한다. 경문은 과거에 급제하자 유혜란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경문의 애정이 유혜란에게 쏠리자 여교란은 유혜란을 시기한다.

취شم이 ㉠ **이 날** 여 씨의 명을 받아 유 씨의 침실에 와서 동정을 살피다가 창문을 여는 소리에 혼백이 몸에 붙지 아니하고 당황하여 돌아오니 놀란 땀이 등에 가득하더라. 여 씨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남의 잘못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유치하고 졸렬함이 먼저 드러났으니 앞으로 어찌하겠는가?**”

취شم이 말하기를,

“제가 빨리 피하였으므로 **유 소저가 미처 보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비록 보았다고 해도 달빛이 희미하여 굳이 누구인 줄 몰라 보았는가 합니다.”

여 씨가 말하기를,

“너의 말과 같다면 내가 장차 시험하여 탐지해 볼 것이다.”

인하여 한탄하며 말하기를,

“황하의 맑음을 기다릴 것 같으면 사람의 목숨이 어찌 미치겠는가? 이처럼 한가롭게 일생을 지낼 것 같으면 저는 까닭 없이 부귀를 편안하게 누리고 나는 헛되이 마음을 허비하여 괴로운 웃음과 싫은 말씀으로 **남의 즐거움을 위하여 헛된 이름만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다.**”

<중략>

㉡ **며칠 후에** 여 씨가 유 씨의 침소에 이르러 좌우의 사람을 멀리 물리치고 남몰래 가만히 말하기를,

“첩이 부인으로 더불어 정이 형제에 넘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을** 속이지 아니하고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님의 시녀 중 한 사람이 인품이 간사하고 교활하며 행동거지가 음흉해서 사람의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 **며칠 전** 상공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밤을 지낼 때 까닭 없이 창밖에 와서 엿보다가 나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분하게 여기나 모르는 체하여 상공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제 스스로 죄를 알고 저에게 아첨할 계교를 내어 허망한 말로써 부인의 허물을 꾸며내어 말하기를, ‘부인이 저를 대하여

[A] 학사에게 원망하며 욕하는 말이 저의 몸에 미치더라.’하니 제가 비록 어리석고 어두우나 부인이 저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찌 소인배의 모함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까닭이 있겠습니까? 꾸짖어 물리쳤지만 도리어 생각해 보니 시비가 이미 저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했으니 반드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인을 모함하던 말이 뒤집어져 저를 참소하는 일이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부인의 넓은 도량으로써 참소하는 사람을 멀리함을 당부할 바가 아니지만 저의 구차스러운 정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부인으로 하여금 창밖을 엿보는 **근심을 미리 막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 씨가 감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부인의 바다 같은 덕량으로 참소하는 무리를 물리치고 저의 아

득한 어두움을 밝게 가르쳐 주시니 제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어찌 소인배의 이간하는 바가 되어 부인의 형제 같은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나 굳자는 어두운 곳에서 삼가기를 밝은 곳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니 내몸의 부끄러운 행실이 없으면 비록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엿보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곱집어낸 것은 모두 취شم의 일이 발각될까 염려하여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유 씨의 기색을 염탐**하고자 하더니 유 씨의 대답은 **논리 정연**하여 빈틈이 없더라. 그 마음속을 헤아릴 수가 없고 또 다시 물어볼 수도 없어 다만 손으로 유 씨의 팔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부인의 말이 상대를 놀리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나 제가 무슨 부끄러운 행실이 있어 남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유 씨가 또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기를,

“저는 다만 인간의 일반적인 도리를 말하였을 뿐인데 오히려 조롱한다고 꾸짖으시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 씨가 말하기를,

“제가 ㉣ **이 일을** 학사께 말씀드려서 다스리고자 하되 시어머님을 모신 시녀라서 잘못된 것을 꺼리는 혐의가 있기에 감히 발설하지 못하였으니 부인도 또한 마음에 혼자만 알고 입 밖에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 씨가 입으로는 승낙하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B] ‘며칠 전에 취شم의 일이 가장 분한 일이지만 의심이 오히려 여 씨에게 가지 않았더니 이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여 씨가 취شم을 보내어 동렬*의 침실을 살피고 몸소 찾아와 그 기색을 살피는 것이 된다. 이것은 매우 신의나 의리가 없는 행동이다. 네가 마침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앞으로 **나의 길흉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슬퍼함을 마지않더라.

- 이정작, 「옥린몽」

*동렬: 같은 수준이나 위치. 여기서는 부인이라는 같은 위치를 뜻함.

-25수특 갈복3 '옥린몽' 변형.제작문항-

1.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생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 표지를 통해 사건의 전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술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감정이 제시되고 있다.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유 씨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여 씨의 발화는 [B]에서 여 씨의 행위가 도리에 어긋남을 유 씨가 인식하게 한다.
- ② [A]에서 여 씨가 자신의 강직함을 드러내는 것은 [B]에서 유 씨가 통분하는 상황에 처하게 한다.
- ③ [A]는 여 씨가 특정 사건의 인식에 대해 유 씨를 시험하려는 의도이고, [B]는 여 씨의 의도대로 유 씨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④ [A]가 여 씨의 부도덕함을 부각하는 발화에 해당한다면, [B]는 유 씨의 안일함을 드러내는 생각에 해당한다.
- ⑤ [A]에서 여 씨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B]에서 유 씨가 이전과 인식을 바꿔 이에 동조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 ~ ㉣을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사건의 여파는 ㉡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 씨의 반응을 살펴본 여 씨는 ㉢을 불문에 부치고자 한다.
- ② 여 씨가 언급하는 ㉢의 시간에 있었던 사건은 ㉢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유 씨에게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겪는 문제 상황을 공유하려 하고 있다.
- ③ ㉢의 시간대는 ㉡보다 나중으로, 유 씨가 여 씨와의 대화를 통해 ㉢의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여 씨의 무고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 ④ 여 씨는 ㉢의 진실을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 유 씨에게 당부하는 것은 ㉢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 있었던 일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 ⑤ 유 씨는 여 씨와의 대화를 통해 ㉢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 시간대에서 유 씨가 의심하는 사건의 주모자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옥린몽」은 본처와 후처 사이의 갈등을 다룬 ‘쟁총형 소설’로, 악인의 음모에 의해 선인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때 악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데, 선인은 이에 도덕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고초를 겪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견디면 복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여 씨가 ‘유치하고 졸렬함이 먼저 드러났’음을 염려하여 유 씨에게 찾아가게 된 것은, 오히려 유 씨가 ‘나의 길흉’을 걱정하게 만들게 됨으로써 유 씨가 자신에게 고초가 있을 것임을 예견하게 하였군.
- ② 취섭이 ‘침실에 와서 동정을 살피’던 행위는 조력자를 통해 악인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한 행위이며,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유 씨의 기색을 염탐’하는 것에서 두 부인이 갈등 관계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군.
- ③ 취섭이 ‘유 소저가 미처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남의 즐거움을 위’한다며 한탄하는 것은 조력자와의 협력 관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악인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군.
- ④ 여 씨가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하는 것은 실제 여 씨의 속 마음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악인이 자신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여 씨가 ‘근심을 미리 막게 하고자’ 한 발화에 대해 유 씨가 ‘논리 정연’하게 대답하는 것은 악인의 부당한 공격에도 올바른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군.

1. ㉔

본문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인물들의 대화와 그들의 내면 독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 ㉑

[A]에서 여 씨는 유 씨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B]에서 유 씨는 여 씨가 자신의 행위를 염탐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며 도리에 어긋남을 깨닫게 된다.

3. ㉕

‘며칠 전에 취섬의 일이 가장 분한 일이지만 의심이 오히려 여 씨에게 가지 않았더니’에서 유 씨는 취섬이 자신을 염탐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만 해도 유 씨는 여 씨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유 씨를 떠보기 위한 여 씨의 대화를 통해 ‘여 씨가 취섬을 보내어 동렬의 침실을 살피고 몸소 찾아와 그 기색을 살피는 것’임을 알게 되어 사건의 주모자가 여 씨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㉑ ㉕의 사건에 대한 여파가 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관련이 없다. 오히려 ㉑이 먼저 일어났기에 ㉕의 사건의 여파가 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㉔ 여 씨가 언급하는 ㉕의 사건은 유 씨에게 자신이 겪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 씨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㉔ ㉕의 시간대는 ㉔보다 후반부에 위치하며, 유 씨가 여 씨의 무고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다.

㉔ 있었던 일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 씨는 사건을 불문에 부치려고 한다.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유 씨의 기색을 염탐’하려는 것이지 유 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4. ㉓

취섬이 ‘남의 즐거움을 위’한다며 한탄하는 것은 악인과 조력자와의 협력 관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악인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신에 대한 한탄으로 볼 수 있다.

㉑ 여 씨의 행위는 오히려 유 씨가 자신의 길흉을 걱정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고초를 예견하게 만든다.

㉔ 취섬의 행위는 악인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로, 두 부인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㉔ 여 씨의 발언은 실제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악인의 목적을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㉕ 유 씨의 논리 정연한 대답은 악인의 부당한 공격에도 올바른 태도, 선한 마음을 취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임을 암시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안도의 유명한 기녀 홍도화와 류지연은 평생의 반려자가 될 남성을 찾아 한양에 가게 되는데, 이춘풍의 비범함을 알아본 둘은 남장을 해 이춘풍의 문하생으로 들어간 후 꾸며낸 이야기로 춘풍을 속여 평양으로 데려가고, 이후 선녀로 가장하여 유혹해 춘풍을 훼손시킨다.

두 남자가 좌우에 모시고 앉아 다시 술을 권할새, 벽도 낭자 왈, “오늘 즐거움이 평양 객점(客店)에서 **㉠ 홍·류 두 문하생**을 데리고 **경학 강론(經學講論)**하시는 것과 어떠하시니잇고?” / 이생이 기쁜 낫빛으로 왈,

㉡ “**온전한 재미는 있거니와 몹시 흥겨운 풍취야 어찌 이만하오리요!**” / 또 문(問) 왈,

“두 문생의 온화 정대하움이 저희 두 첩과 어떠하니잇고?” / 답 왈,

“차이가 없을 듯하여이다.” / 또 문 왈,

“낭군이 항상 허황한 일을 믿지 아니하시거니와, 만일 홍·류 두 문생이 일조(一朝)에 남화위녀*하여 평생을 모신다 하오면 낭군은 어찌하시리잇고?” / 이생이 추연(惆然)* 왈,

“그럴 이치가 없으나 두 문생은 나의 지기(知己)지우(知己之友)라. 평생을 ㉢ **함께 지내기로 서로 약속하여 잠시 이별을 하였으니**, 만일 범절(凡節)과 모양이 그러한 여자 있으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그러나 낭자가 속객(俗客)*을 대하여 조롱이 심하다.”

이에 두 남자가 비너를 빼어 일시에 바닥에 엎드려 사죄 왈,

“백 년을 함께 사는 일이 지중(至重)하여 천첩(賤妾)이 대군자에게 **중죄를 지었사오니** 차생차세(此生此世)에 어찌 다 속죄하며, 대군자의 하늘 같은 대덕(大德)을 세세생생(世世生生)에 어찌 다 갚사오리까? 일월(日月) 같으신 군자의 안광(眼光)으로 어찌 몰라 보시리잇가? 첩들을 어여뻐 여기서 용서하심인가 하나이다. ㉣ **당초에 여화위남*하여 몇 달 모실 때**와 평생을 배운다 하여 모시고 내러올 때는 혹 분변(分辨)치 못하실 듯하옵고 첩들의 죄상도 오히려 용서하심을 바라려니와, 허황한 흘계(譎計)로 선녀를 가탁(假託)하여* 정대하오신 군자를 산 위로 유인하여 연분(緣分)을 맺는다 하옵은 그 죄상이 만 번 죽어도 아쉽게 않으리라. 그러하오나 하향(遐鄉)의 천첩들이 대군자의 권고지택(眷顧之澤)*을 받아오니 오늘 죽어도 한이 없을지라. 엎드려 삼가 바라건대 대군자 서방님께옵서 용서하옵소서. 오늘 이후 첩들의 사생영욕(死生榮辱)이 서방님께 달렸사오니 강과 바다와 같은 은혜를 바라나이다.”

하거늘, 이생이 듣기를 다 마친 후에 **정신이 어지러워**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왈,

“말씀이 하도 맹랑하여 믿지 못하겠으니 자세히 해명하라. 중원(中原)에서 밤에 홍도 낭자 만날 때에는 홍생이 성천에 간 자취가 분명하고, 이번은 류생이 안주에 간 일이 확실하거늘 어찌 그러하리오?”

두 남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여 왈,

“조그마한 천첩들이 하늘이 내신 **대군자**를 기망할 때에 무슨 꾀를 아니 쓰리잇고? ‘성천이나 안주에 간다’ 하고 지적에 있을들 서방님 눈에 띄지 않으면 어찌 알오시며, 자고로 소인과 천인은 얇은피가 많사와 군자를 모함할 때 도리를 벗어난 악한 짓을 갖가

지로 하는 법이옵고, 군자는 정직한 심장과 정대한 행세가 평생 거짓된 일과 사곡(邪曲)한 꾀는 아주 모르시니 어찌 요량하시리잇고? 그런고로 왕왕히 소인의 모함에 빠져도 요행으로 면할 궁리를 아니 하나니, 서방님께옵서 **천성이 고상하시와** 부귀변화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태어나 이십팔 년 동안 정대한 성인(聖人)의 책만 읽으시어 정대한 마음과 정대한 일만 아시고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시니, 어찌 권변술수(權變術數), 사모기계(邪謀奇計)를 아시리잇고? 맹자 말씀이 ‘군자는 가기이기방(可欺以其方)이라 *’ 하시오니, 첩들의 백 가지 흘계를 어찌 측량하시리잇고?”

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이야기하온대, 이생이 다만 두 사람의 입만 보고 아무 말도 아니 하다가, 다시 꿇어앉으며 왈, / ㉤ “**도무지 학생*의 공부가 차지 못한 연고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중략)

하루는 모든 기생들이 모여 음률을 배울새, 수백 명 명기생과 백여 명 재자율객(才子律客)들이 일시에 아뢰되,

“선생님께옵서 이제는 평안·황해 양도에 **오편 수척**이 되시와 악부(樂府)를 개조하옵시고 교방(教坊)의 정사를 맡아 계옵시니 제일 교방(第一教坊)을 창건하옵이 득당하여이다.”

이생이 손사왈,

“**㉞ 소생 같은 근본 없는 종적이 열위 제공의 여며며 여기심을 입사와 교방에 참여하오나 어찌 그다지 과장하시느뇨.**”

모두 칭찬하며 말하고 즉일에 의논이 구일하여 평양성 한복판에 수백 간 교방을 창설하고 ㉞ **‘관서 제일루(關西第一樓)**라 헌판하고, 정당(正堂)은 수미당이니 **춘풍용 이학자 선생**님이 거하고, 동편 강선루에는 좌수석 홍도화 낭랑이 십 이 교방을 거느려 거하고, 우편 수선루에는 류지연 낭랑이 십 이 교방을 거느려 거하고, 중앙 만화당은 장광(長廣)이 30간이니 이십 사 교방이 모여 연습하는 곳이라.

자고로 조선 제일 강산이 평양으로 지목하더니, 이후는 제일 교방을 겸하였고, 이춘풍의 **성명이 자자**하되 그 내력은 알 리 없더라.

- 작자 미상, 「삼선기」

*남화위녀: 남자가 변화하여 여자가 됨.

*추연: 처량하고 슬프게.

*속객: ‘속세에서 온 손님’이라는 뜻으로 이생(이춘풍) 자신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 이생은 홍도화, 류지연 두 여자를 선녀로 착각하여, 그 둘과 달리 자신은 속세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속객’이라는 표현을 씀.

*여화위남: 여자가 변화하여 남자가 됨. 여기서는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처럼 행동한 것을 가리킴.

*허황한 ~ 가탁하여: 허황하게 남을 속이는, 간사하고 능청스러운 꾀로 선녀인 척하여.

*권고지택: 돌보아 준 은혜.

*군자는 가기이기방이라: ‘군자는 도에서 어긋난 그럴듯한 꾀로 속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말.

*학생: ‘학문을 닦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생(이춘풍)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

1.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 ② 특정 공간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고전을 활용하여 속임수에 당한 상대방을 탓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 ⑤ 작품 내 행위주체와 서술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흥취보다는 수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타인의 과거 발화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인물을 속인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은 상황을 이해한 인물이 상황이 촉발된 것의 잘못을 자신으로 돌리고 있다.
- ⑤ ㉣은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겸양의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본래의 성별을 바꿔 대상을 속이고 있다.
- ② ㉠은 상대방이 의문을 가지는 인물에 해당한다.
- ③ ㉠은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은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
- ⑤ ㉢은 인물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성취된 것이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삼선기」는 도학자의 삶을 살던 이춘풍이 두 기녀에게 속아 연분을 맺게 된 후 교방의 모가비(우두머리)가 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을 다룬다. 표면적으로 선비가 교방의 모가비로 전락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춘풍은 모가비가 된 이후에도 기녀들을 잘 가르치고 품위를 지키도록 하여 평양의 교방 문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신분적 질서가 흔들리던 근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분과 상관없이 고결한 자세를 유지하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위선적인 지배층을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① '오늘 즐거움'과 '경학 강론'은 두 남자가 이생을 떠보기 위해 발화한 것으로, 이생이 두 남자와의 연을 맺게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이생이 '두 문생은 나의 지기지우'라고 칭하는 것에서 아직 두 기녀의 꾀에 넘어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두 남자가 '중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발화를 듣고 이생은 '정신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며, 이는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상황을 인물이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두 남자가 이생에게 '천성이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인물의 고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러한 인품으로 인해 '옳음 수석'이 되어 '성명이 자자'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군.
- ⑤ 남자들이 '대군자'라고 칭하는 것이나, 서술자가 '춘풍옹 이학자 선생님'이라고 호명하는 것은 신분과 무관하게 바른 태도를 잃지 않는 인물을 제시하여 지배층이 지녀야 할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1. ③

‘군자는 가가이기방’과 같은 고전을 활용하였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생이 너무 정직하여 자신들의 꾀에 속았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두 남자가 자신들의 탓으로 돌렸다.

2. ①

이춘풍은 흥겨운 풍취만한 것이 없으면서 흥취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② 홍도화와 류지연이 남장했을 때의 발화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홍도화와 류지연이 이춘풍을 남장으로 속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④ 이춘풍은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자신의 공부가 모자랐다면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

⑤ 명기생들과 재자율객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 겸양의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3.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답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홍도화와 류지연은 남장으로 이춘풍을 속이고 있다.

25학년도

4. ③

두 남자가 ‘중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발화를 듣고 이생은 ‘정신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저 밝혀진 진실에 대해 충격을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① ‘오늘 즐거움’과 ‘경학 강론’은 이생을 떠보기 위해 이야기한 것으로, 이생이 홍도화와 류지연과 연분을 맺게 된 과정과 연관이 있다.

② 두 문생을 ‘나의 지기지우’라고 칭하는 것에서 이생이 아직 두 기녀에게 속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생을 ‘천성이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이생의 고결한 자세가 보여지는 부분으로, 이러한 인품으로 성명이 자자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⑤ 이생을 ‘대군자’, ‘춘풍옹 이학자 선생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고결한 자세를 유지하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층이 지녀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능맛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심자(無心子)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해진 배옷을 입고 여원 말을 타고 노복도 없이 혼자 전주성 서쪽을 따라 얼음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그때는 봄이고 삼월 상순이라 복사꽃과 자두꽃이 온 성안에 가득 피어 있었다. 저 멀리 어떤 장부 한 사람이 보였다. 대지팡이를 등에 지고 허름하고 짙막한 배옷을 입은 그는 마음껏 노래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 **살쩍과 머리칼이 눈처럼 희었다.** 그의 노래를 들어 보니 이리했다.

「강호에 기약 두고 십 년을 분주하니
[A] 그 모르는 백구(白駒)는 더디 온다 하건마는
└ 성은이 지중(至重)하시니 값고 갈까 하노라.”

내가 탄 말 바로 앞에 다가와 그제야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서울의 옛 악사 송경운이었다. 무심자는 예전에 그와 교분이 있었기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대지팡이를 짚은 건 늙어서일 테고, 짙막한 배옷을 걸친 건 가난해서일 테고, 그냥 걸어가는 건 말이 없어서일 텐데,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인가?”

경운은 이내 활짝 웃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친네** 이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친네는 예전에 음악을 좋아했지요. 그러니 친네는 늙은 악사입니다. **노래란 음악 중에 으뜸가는 것이지요.** 늙은 악사로서 봄날의 흥에 겨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게 이상하신지요? 친네가 알기로 선생님은 옛날에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분인데, 수놓은 비단옷을 해진 배옷으로 바꿔 입고 멋진 청총마(靑驄馬) 대신 여원 말을 타고설랑 그 많던 뒤따르던 종들은 어찌하시고 노복 하나도 없이 서울의 큰길 대신 산길을 가고 계시는지요? 어째서 이렇게 ㉡ **고생을 사서 하고 계십니까?** 친네는 선생님이 유독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 즐겁게 노닐며 한나절을 보냈던 것이다. 송경운은 서울 사람이다. 자기 말로는 옛날에 이 절도사(李節度使)의 노복이었는데 민첩하고 재주가 있어 특별히 노비 장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침내 ㉢ **군공(軍功)으로 사과(司果) 벼슬까지 얻었다고 한다.** 체구가 흰칠하게 컸고, 풍채가 좋고 피부가 희었으며, 가느스름한 눈은 별처럼 빛나는 데다, 수염이 아름답고 담소를 잘했으니, 말하자면 **참으로 호남자**였다.

(중략)

일찍이 그와 더불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경운은 이렇게 말했다.

“비파는 곡조가 옛날과 요즘이 다릅니다. **요즘** 사람은 대체로 옛것을 내치고 요즘의 것을 숭상하지만, 유독 저는 **옛 곡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전부 옛 곡조로 채우고 요즘 곡조는 끼워 넣지 않으면 저의 마음에 흡족하여 음악답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워 편협하거나 비루하게 보이지 않도록 연주하면 말세의 사악한 소리를 씻어 내고 훌륭한 옛날의 바

른 음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음악을 평생토록 하고 후세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연주를 듣는 이들은 모두가 평범하여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고 보잘것없어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음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 음악을 듣고도 즐겁지 않다면 비록 안희*가 거문고를 연주하고 증점*이 비파를 연주한다 한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때문에 저는 특별히 저의 곡조를 변주하여 **요즘 곡조를 간간이 섞음**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피합니다.”

전주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제각기 어울려 계(契)를 만들고, 약속을 정하여 서로 경계하고 재물을 늘려 서로 돕는 옛 풍속이 있었다. 하지만 가난해서 계획대로 재물을 늘리지 못하고, 또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 **처음만 있고 끝이 없이 몇 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는 게 없었다.**

이곳의 아전들이 자못 피폐하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아전들 대하기를 사뭇 두려워**하고 꺼렸다. 송경운은 몇몇 아전들과 함께 계모임을 가졌는데, 봄가을로 한 번씩 모여서 조금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경운이 정색하고 그를 꾸짖으니, 말이 사리에 꼭 닿기 때문에 **온 좌중이 숙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경운은 여향*의 부류이지만 도리어 아전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기개가 있기에 이 **고장의 풍토대로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수십여 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이 없었다. ㉤ **전주 사람들은 그의 역량을 일컫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이기발, 「송경운전」

*안희, 증점: 옛 중국의 유명한 음악가들

*여향: 여염. 평범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뜻함

-25 수특 고소12 ‘송경운전’ 변형.제작문항-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보고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주체의 과거 경험이 현재 사건을 유발한 원인이 드러난다.
- ③ 서술 주체와 경험 주체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다양한 수식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 ⑤ 장소와 관련된 표지를 활용하여 서술자의 체험에 신비감을 형성하고 있다.

2. [A]의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호'는 화자가 지향하는 장소이고, '십년'은 지향하는 장소를 위해 한 노력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 ② '백구'는 '강호'에 있는 존재로, 오지 않는 화자를 책망하고 있다.
- ③ '성은'은 화자가 갈아야 될 대상으로, 화자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이다.
- ④ '성은'을 '갖고' 간다는 인식에서 '강호'에 돌아가기 위해 겪어야 할 필연적인 제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십년'을 '분주하'게 움직인 것에서 화자는 말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관찰 대상의 외양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 ② ㉡은 상대방의 처지를 보고 느낀 바를 말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전해 들은 바를 서술함으로써 대상이 신분의 제약을 벗어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의 서술에서는 특정 지방의 풍속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계획에 어긋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에서는 한 인물이 그 동안의 행적으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칭송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보기>

「송경운전」은 비파 고수로 이름을 날리던 실존인물 송경운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작가가 실제로 전주에 낙향한 이후 만난 송경운에 대한 일화와 평가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이를 통해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써서 듣는 이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음악의 참된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송경운전」에서는 고착화된 신분제로 인한 부조리,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예술의 향유층이 증가하는 모습 등의 17세기 사회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은 진정한 삶의 자세에 대해 통찰하고 있다.

- ① '무심자'는 '송경운'을 만난 일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참으로 호남자'였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무심자'가 '웃으며' 한 말에 '천네'라고 송경운이 대답하는 내용에서 두 인물이 구면임을 알 수 있고, '노래란 음악 중에 으뜸가는 것'이라는 말에서는 음악에 대한 송경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③ '요즘 사람'과 달리 '옛 곡조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송경운이 생각하는 진정한 음악의 본질이며, 이러한 경운의 태도는 '온 좌중이 숙연'해지게 만드는 행위로까지 이어져 삶의 자세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고 있다.
- ④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요즘 곡조를 간간이 섞'게 된 것에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음악을 즐기는 계층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⑤ '아전들 대하기를 사뭇 두려워'한다는 것에서 신분에 의한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당대 세태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장의 풍토대로 가지 않는'다는 백성들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1. ③

서술 주체와 경험 주체가 모두 '무심자'로 '송경운'에 대한 일화를 바탕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다.

2. ④

'성은'이 '지중(무거워)'하여 이를 갖고 간다는 점에서 화자는 여전히 정치 현실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선택은 화자가 한 것이다. 화자는 자연 속에 은거하는 것보다 임금의 은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화자의 가치 판단이지, 강호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필연적인 제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충성과 같은 유교적 논리는 사대부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데, 이러한 가치를 '제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②

'무심자'의 발화에 대한 대답으로, '무심자'와 '송경운'이 서로 즐겁게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다. 상대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① '어떤 장부 한 사람'의 외양을 '눈'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송경운'에게 직접 전해 들은 바를 서술함으로써 '송경운'이 노복이라는 신분의 제약을 벗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전주의 풍속은 서로 도와 재물을 늘려가는 것인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조금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꾸짖는 '송경운'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어긋나는 일이 없어 전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⑤

사람들이 고착화된 신분제로 인해 '아전들 대하기를 사뭇 두려워' 했지만, '송경운'의 행동으로 인해 아전들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송경운'을 '고장의 풍토대로 가지 않는'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지, 아전들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아니다.

① '무심자'는 '송경운'을 만난 일화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작가로 볼 수 있고, '참으로 호남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송경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무심자'가 '웃으며' 한 말에 '천네'로 답하는 것과 같이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은 두 사람이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사이임을 알 수 있고, '노래란 음악 중에 으뜸가는 것'이라는 말에서는 '송경운'이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③ '송경운'이 '옛 곡조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을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음악의 본질은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써서 듣는 이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태도는 '온 좌중이 숙연'해지게 만드는 행위로까지 이어져 진정한 삶의 자세에

대해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요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곡조를 간간히 섞'게 된 것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예술의 향유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작이 승상의 사위가 된 지 십 여일이 되니, 잠자기를 너무 늦도록 하고 글읽기를 아니하니, 공이 물어 가로되

“네 잠자기를 너무 늦도록 하고 선비로서 학문을 아니하니 어인 뜻이뇨?”

이생이 대왈

“잠은 평생 소원이요, 글 읽기는 싫어서 아니하나이다”

양 공이 웃으며,

“선비 글 읽기 싫고 무엇을 하리오?”

이생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사위의 나이 십 세라. 아직 너무 일렀으니 이십부터 하려 하나이다.”

공이 대왈,

○ “네 말이 비록 바람직하지 못하나 네 뜻대로 하라”

공이 말마다 사랑하고 중히 여김이 날로 더하니, 생이 중심에 감격함이 되었다.

차설, 부인과 가중(家中)은 나날이 더욱 화를 내어 심화 일었도 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더니 자고로 영웅 호걸이 불운이 많은 지라. 공이 숙환(宿患)*이 점점 중하니 가중이 황황하여 병을 구완한 지 십여 일에 다달아 더 중해지니, 사위 설생 부부 승상의 병세 위 중함을 듣고 심사 망극하여 설생으로 더불어 금주에 이르러 한 가지로 약을 지어 오니, 공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줄을 알고 두 아들더러 이르되,

“너희 조정에 돌아갈 기한이 다 되었을 것이니 어찌 그저 머무르고 있느냐?”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 “기한이 지났으나 대인 병환이 이려하시니, 가지 못하고 황제께 표(表)를 올렸나이다.”

공 왈

“불연하다. 신하된 자로 몸을 나라에 허하매 마땅히 부모 처자를 간절히 생각하며 그리는 것은 나중의 것이니, 명일로 발행하여 경성으로 가라.”

인하야 안색을 가다듬어 좌를 정히 하고 두 아들을 경계 왈,

“네 아버 몸예 덕이 두텁지 아니하고 재주가 미약하거늘, 천은(天恩)을 과히 입사와 당치 못할 이름이 자주 들리니 내 매양 스스로 부끄러운 바라. 나이 늙고 분에 넘치는 일이 많을새, 용안(A)(龍顏)을 이별하고 이에 이르매, 조석으로 상(上)을 생각하나 기운을 수습지 못하여 뵈지 못하니 다시 뵈옵고 죽음을 바라더니, 이에 수명이 위급하니 다시 뵈옵지 못할지니 지하에 나가 눈을 감지 못하리다”

[중략 줄거리] 승상이 죽은 후 경작은 처가 식구들의 핍박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경작은 학문을 닦아 장원 급제를 하게 되고, 번왕의 모반을 원수가 되어 평정하게 된다.

이때 원수 거룩한 위외에 승상을 더하여 개가(凱歌)를 부르고 금주로 지날 새, 금주 일군이 진동하니 모든 부녀 집이 엿보더니 양부에서 한 부인이 또한 자부* 남, 성 두 부인을 데리고 종각에서 승상의 지남을 보려 하더니 문득 서편으로 붉은 양산이 움직이며 병마 기치

정정제제(整整濟濟)하야 정기를 떨치고 군사들이 앞을 인도하야 승전곡을 어울러 부르니 위엄이 능렬(凜烈)하더라.

한 부인이 칭찬 왈,

[B] “기특하며 기특하다. 저의 어진 소리 사해에 퍼졌더니 그 풍도를 보매 헛되지 아니로다. 어떤 사람이 능히 그런 아들을 두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저런 사위를 얻었는고? 다복함이 만고의 일인 이로다”

칭찬함을 이에 그치지 아니하니, 남부인이 성부인을 돌아보아 왈,

“제 어찌 풍골 기상이 이생과 흡사한 것이 많느냐?”

성씨 역시 이르고 괴이히 여기더니 부인이 이르되,

○ “**이랑은 천고에 한미한 남자요, 이 사람은 만고 영웅 호걸이라. 어찌 비할 바이리오**”

인하야 행차 지나매 두 부인을 데리고 집에 이르러 두 아들로 더불어 칭찬함을 마지 않더라.

남, 성, 두 부인이 양소재의 방에 이르니 소저 기운을 잠깐 수습하거늘, 두 부인이 승상 병마의 거룩함을 이르고 인하야 탄식 왈,

“풍도 기상이 얼핏 이생과 같으니 문득 반갑고 척감하더라”

소저 이 말을 들으며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며 한숨지고 헤어진 남편을 그리워하며 벽을 향하여 눕거늘, 두 부인이 위로하더니 두어 시녀 황급히 들어와 고하되,

“아가 지나시던 승상이 이 상공 분묘에 배알하시며 통곡하시나이다.”

어사 왈,

“일정 친족일도다.”

한림 왈,

○ “**본디 친척이 없고 한미함이 여차하니 어이 그런 영웅이 나시리오. 일정 친한 사람이렸다.**”

이윽고 시녀 또 총총히 들어와 급히 아뢰되,

“승상이 우리 노야(老爺) 분묘에 슬피 울며 배알하시나이다.”

어사 아무런 줄 몰라 이르되,

“대인이 생시에 이경모란 한 이를 사귀심이 없더니 알지 못할게라. 어떤 자인고?”

침묵하야 생각하더니, 문득 대문 앞이 소란스럽고 큰 소리가 마을을 진동하더니, 또 시녀 보하되

“대상상 행차 문 앞에 이르샤 이 노야를 청하시나이다.”

어사와 한림이 연고를 몰라 하니 이미 집에 이르렀다 하는지라. 재상께 뵈는 의복을 정히 하고 황급히 외실로 나아가니 옥륜거 별써 정전에 이르렀더라. 두 사람이 줄을 짓고 당하에 섰더니 승상이 완완히 내려 정전에 이르매 두 사람이 공손히 재배하거늘, 승상이 답례하고 한가지로 총중에 이르니, 승상이 말을 퍼 가로되

“십일 세 헤어진 후로 집안이 다 무사하시니이까?”

두 사람이 오래 유유하다가 왈,

“소생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일찍 상국으로 더불어 면분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습시다. 무엇으로써 가르치시리이까?”

승상이 잠소(潛笑)하고 왈,

○ “**양 형이 어찌 동생을 이렇듯 과히 우대하시느냐? 형이 능히 동생을 몰라보느도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의 집에 들어온 경작이니 모름이 의아치 말지어다.”

두 사람이 믿지 아니하여 익히 보거늘, 승상이 재삼 밝히어 이르매
바야흐로 이경작인 줄 깨치매 실로 몽매(夢寐)인 듯하여 오래 말을
못하더니 이윽고 알,

“그대 어찌하여 몸이 이에 이르렀느냐?”

승상이 전후 곡절을 약간 베풀고

“존당과 가중이 편안하시니이까?”

답왈,

“모친은 무양하시나 누이 병이 의독하니라.”

승상이 가로되

“내 왔음을 장모 일정 알지 못하시리니 전함이 어떠하리오.”

어사 형제 저의 진덕함을 알매 이르러는 옛일을 생각하매 매우 부
끄럽게 여기니, 일변 반가운지라 그 손을 잡아 재삼 치하야 가로
되,

“전일 우리 형제에 보채임이 많더니 바라건대 개의치 말라”

승상이 흔연히 답왈

“소제는 인물이 본대 소탈하야 아침에 지난 일을 낮에 능히 깨치
못하리니 저 십 년 전 일을 어이 꿈엔들 생각하리오.”

-작자미상, 「낙성비룡」-

-25 수완 실전2 '낙성비룡' 변형.제작문항-

숙환: 오래 묵은 병

자부: 며느리

1. 양소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사, 한림과 남매 관계로 현재 와병중에 있다.
- ② 헤어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두 부인의 말을 듣고 남편의 행방을 깨닫게 된다.
- ④ 남편에 대한 심정이 식구들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아직 남편이 귀환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발화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B]의 발화의 평가 대상과 같은 인물이다.
- ② [A]에서 양 공이 아들들에게 경계를 당부하는 말은, [B]에서 이를 지켜 성공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A]에서 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물의 내적 갈등은, [B]에서 부인으로 인해 해소되게 된다.
- ④ [A]에서 겸양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의 발화는 [B]에서 그 덕을 칭송받게 된다.
- ⑤ [A]의 발화에서는 주체의 소망이, [B]의 발화에서는 주체의 부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3.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다.
- ② ㉡은 상대방의 물음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위중하여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동일한 인물에 대해 서로 평가를 달리 하면서 상대방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분묘의 주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승상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은 대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서운함을 표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인지감(知人之監) 화소’는 남들이 모르는 타인의 자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낙성비룡」에서는 지인지감을 가진 인물이 보잘 것 없는 인물의 능력을 꿰뚫어 보고 그를 선택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지인지감을 가지지 못한 주변인들이 선택된 인물의 못난 행위를 보고 핍박하게 되지만, 결국 그 인물이 입신양명을 이룩하게 되며, 자신을 핍박한 인물을 용서하는 과정이 제시된다. 이렇듯 위 소설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비범성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못난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서사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 ① 승상이 이생의 의도를 존중해주고 그를 중히 여기는 것은 부인이 그를 한미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인지감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 ② 이생이 평소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물이 쫓겨남으로써 서사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군.
- ③ 남, 성 두 부인이 승상의 행차를 보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인물의 과거 행색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군.
- ④ 어사 형제가 옛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에서, 아버지와 달리 인물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며, 이에 승상이 개의치 않음으로써 그들을 용서하고 있군.
- ⑤ 이생이 학문을 닦아 출세하게 되는 데서, 양 공이 이생의 자질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이생이 급제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1. ㉓

양 소저는 두 부인의 말에도 원수가 이생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리워했을 뿐이다. 그 후 시녀가 이생이 양 공의 묘에 가 슬퍼하고, 이생이 여사와 한림을 불러 정체를 고백한 후 시가의 사람들이 이생이 승상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2. ㉕

[A]에서는 양 공이 본인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황제를 빗지 못하고 죽음을 한탄하며 다시 빔을 소망하고 있다. [B]는 이생의 활약상을 듣고 이생이 승상이 되었음을 모르는 처가에서 그와 같은 아들, 사위를 얻은 이들을 부러워하는 내용이다.

3. ㉔

황제에게 표를 올리는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원칙에 융통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다는 아버지의 물음에 동의하면서도,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여 황제께 표를 올려 양해를 구한 것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발화자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감하지는 않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발언한 것이므로 동일한 인물에 대해 서로 평가를 달리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양 공의 배경에 대해 비하하기보다는 양 공의 죽음에 이생이 슬퍼함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추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했다기보다, 아는 사이임에도 과하게 예의를 차리는 것에 대한 의아함에서 비롯된 웃음을 짓고 있다.

4. ㉖

양 공이 이생의 자질을 알아보고 선택을 한 '지인지감'을 가진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생의 급제를 돕진 않았다. 오히려 양 공이 죽은 후, 처가에서 쫓겨난 이생이 공부하여 급제를 하고 전장에서 공을 세운 것이 출세의 계기이다.

- ① 『낙성비룡』에서 지인지감을 갖고 있는 인물은 양 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처가의 인물들이 이생을 핍박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② 지인지감을 가지지 못한 인물들이 이생의 잠이 많은 성향을 보고 못난 행위라고 생각하여 핍박하며, 그로 인해 이생이 처가에서 쫓겨나 위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다.
- ③ 두 부인이 승상이 된 이생의 행차를 보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생과의 괴리감이 있지만 외관이 닮아 동일 인물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 ④ 여사 형제가 옛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승상이 될 이생의 자질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인지감이 없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승상은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므로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다.